



www.umnloan.com
소중한 주택 응자,
신뢰와 전문성을 갖춘 회사
유니티드 플레이스 네이션과
함께 아시오!
NMLS# 2425871
1-833-846-4004

대표전화 : (703)281-9660 koreadaily.com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COPYRIGHT 2024 제 691443호 Wednesday, December 10 2025 A

불법체류자 체포만 되도 5000달러 벌금

지속되는 반이민 강화
이민자 심사센터 신설

이민 당국이 체포된 불법체류자에게 비용 명목으로 수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고위험 이민 대상자의 스크리닝과 서류 검토 강화를 위해 외국인 심사 센터를 신설한다고 밝혀 이민 사회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최근 시민권 선서식에 참석했던 ‘위험국가’ 출신 이민자의 선서가 취소되는 사태도 발생했다. 보스턴 지역 매체인 WGBH에 따르면 지난 5일 보스턴 페뉴일홀 귀화 선서식에서는 줄을 서 있던 귀화 신청자 중 일부가 ‘위험국 출신’이라는 이유로 현장에서 선서가 취소됐다는 것이다.

벌금 부과 방침과 관련 마이클 뱅크스 국경수비대 국장은 최근 소셜미디어 액스(X·구 트위터)를 통해 “14세 이상 불법 체류자에게 체포 비용 (Apprehension Fee) 5000달러를 부과할 것”이라며 “입국 경로, 체류 기간, 진행 절차와 무관하게 일괄 적용된다.



주민들이 2025년 11월 중순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브로드뷰 ICE 사설 밖에서 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로이터]

다”고 밝혔다.
뱅크스 국장은 이번 조치가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A)’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OBBA는 2025 회계연도 기준 체포 비용을 최소 5000달러로 규정하고, 국토안보부(DHS) 장관에게 물가 상승에 따라 금액을 조정할 권한을 부여하

고 있다. 이번 조치는 DHS의 이민 수료 인상 정책과 맞물려 단속 효율성 제고와 재정 부담 완화를 동시에 노린 조치로 풀이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불법 체류자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불법 체류자 1명을 체포·구금·추방하는데 드는 비용은 평균 1만7000달러로 알려져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외국인 입국자의 범죄 전력 및 잠재적 안보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애틀랜타에 이민자 전담 사전심사센터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USCIS는 이민 심사 정보를 한곳에서 통합 처리하고, 고위험 대상자의 스크리닝과 서류 검토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외국인 테러 및 범죄 위험 차단을 목표로 한 행정명령 14161호의 후속 조치로, 심사센터는 비공개·공개 정보를 모두 활용해 승인 전·후 이민 신청서를 검토하며 인공지능(AI) 기반 분석 기술도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정한 이란, 예멘, 아프가니스탄, 아이티, 리비아, 소말리아 등 19개 위험국 출신 신청자는 우선 심사를 받게 된다.

USCIS는 이날 19개 위험국 출신 이민자의 심사 업무를 일시 중단하라는 내부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전 통보 없이 선서 일정이 취소되거나 행사장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김경준 기자



취약계층 위한 오색빛깔 마음

9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평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사랑의 119 반찬 나눔’ 행사에서 평동사마을부녀회 회원들이 취약계층 45가구에 전달할 반찬을 포장하고 있다.

‘싸움닭’ 다카이치 “다케시마는 일본영토”

중국 이어 한국에도 도발



응을 요구하자 이렇게 답했다. 그는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우리나라(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기본 입장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해갈 것이라는 데 변함이 없다”며 “국내외에 우리 입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침투되도록 메시지 발신에 힘써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강경보수 성향의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이는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 입장과도 일치한다.

이날 질의에선 시마네현이 매년 2월 22일 열어온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일본 정부가 정부 대표로 어떤 급의 관료를 보낼 지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이 문제와 관련

해 “대신(장관)이 다케시마의 날에 당당히 나가면 좋지 않은가”라며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13년간 다케시마의 날에 차관급인 정무관을 참석시켰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후인 지난달 10일엔 정부 대표를 각료(장관)로 격상할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현주 기자

파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사고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 빌
301-279-6960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 결혼 액물 전문
• G.I.A 다이아몬드
• 보석, 금 고가 매입
• 손금 아끼 물반지, 팔찌
• 보석 세공, 시제 수리
703.988.0033
301.792.5615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메 구합니다.
410-988-5523

교통사고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 상해전문병원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통증
전문 병원



Q. 교통사고가 나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A. 사고로 인하여 몸에 물리적 혹은 정신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우선 그 분야의 전문 의료진의 도움으로 X-ray, 근전도 검사 및 다양한 정밀 검사를 통해 어디가 어떻게 손상을 입었는지, 어떤 치료를 받아야하는지, 또한 후유증의 여부를 먼저 파악한 후 그에 알맞는 치료를 받으시는게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저희 클리닉에 방문하시면 변호사 선임, 자동차 수리, 보험처리등에 관한 일반적인 상담을 해드립니다.

Q.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나요?

A. 매릴랜드주에서는 교통사고 후 누구의 과실의 여부를 떠나 타고 계셨던 차량의 보험으로 혹은 본인의 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노풀트(No-fault)보험이라고 하며 PIP(Personal Injury Protection)이라고 불립니다. PIP카버는 기본 \$2,500이며, 금액은 보험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 보험의 혜택으로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치료하면 보험금이 올라가나요?

A. 내 보험을 사용하면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생각이 당연 할지도 모르겠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올리고자 한다면 정해놓은 여력까지 상황에 따라 올릴 수도 있겠으나 내가 괴상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인해 노풀트 보험을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료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과실을 하고 내 보험료가 올라간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사고후
서류 처리

치료 전문
LMT마사지

각종
보험

변호사 선임
통역 및 교통편 제공

테라피스트가
함께합니다

BlueCross
BlueShield

CareFirst
BlueCross BlueShield

원장 Dr. 김동국 D.C.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 Sydney University in Australia
- Maryland & Washington Boards Licensed
- Practiced in Blue Spring Chiropractic
- Whiplash Injury Specialist
-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vical and Lumbar
- Manipulation Specialist



Mocurrency Chiropractic

9275 Baltimore Nat'l Pike, #104
Ellicott City, MD 21042

410-480-0083

중·러 군용기 KADIZ 침범…북은 서해상에 방사포 쌌다

<한국방공식별구역>

군 당국, 전투기 긴급출격 대응
북 방사포, 동계훈련 일환 분석

북한과 중국·러시아가 9일 각기 방사포와 군용기를 이용해 서해와 동·남해상에서 무력시위를 벌였다. 공교롭게도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격화하고, 양국 모두와 관계 개선을 꾀하고 있는 한국은 중립을 지키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한·미 군당국은 북한이 이날 오후 서해 상으로 방사포 수발을 발사한 것을 포착했다. 현재 북한은 연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내년 초 9차 당대회 준비에 여념이 없는데, 이는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북한군 동계훈련의 일환으로 보인다.



북한군이 지난해 5월 30일 초대형 방사포를 동원한 '위력시위사격'을 진행하는 모습. [조선중앙통신]

북한은 지난달 3일에도 서북 해상으로 방사포 수발을 발사했다. 당시에는 방한 중인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판문점을 방문하는 걸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이번에는 한반도와 관련한 특별한 정치·외교 행사는 없었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카디즈)에 무단으로 진입했다. KADIZ는 각국이 자국의 영공으로 빠르게 접근하는 비행체를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설정한 임의의 선이다. 영공과는 다르지만, 진입 전 해당 국가에 알리는 게 관례다.

합동참모본부는 "오전 10시쯤 러시아 군용기 7대와 중국 군용기 2대가 동해 및 남해 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했다"며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중국 및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식별하고,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전술 조치를 했다"고 덧붙였다. KADIZ에 진입한 양국 군용기는 전투기와 폭격기다. 이들은 동남쪽

과 북동쪽에서 각각 날아왔다. 특히 일부는 남해상 KADIZ와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의 중첩구역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유통도와 독도 사이로 향한 러시아 측 군용기 4대 중 2대가 남하해 대마도 인근 상공의 중첩구역에서 중국 측 군용기 2대와 합류했다. 양국 군용기는 중첩구역에서 연합 공중훈련으로 추정되는 비행을 한 뒤 각각 돌아갔다. 군당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F-15K 전투기 등을 긴급 출격시켰다.

중·러 군용기가 함께 KADIZ에 무단으로 진입한 것은 지난해 11월 29일 이후 약 1년여 만이다. 과거에도 중·러는 정세에 맞춰 KADIZ 진입 카드를 활용하곤 했다. 이유정 기자

연방 법무부, 시민권 집행 '인종 기반 규칙' 종료

연방 법무부는 9월 1964년 민권법 제6장에 따른 규정을 업데이트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하면서 제6장 프레임워크에서 "불균등한 영향" 책임을 삭제하고 연방 민권 집행은 통계적 결과보다는 고의적 차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파벨라 본디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수십 년 동안 법무부는 불평등 영향 책임을 이용해 모든 국민이 법 앞에 서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을 훼손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더 이상은 아니다. 법무부는 연방 기금 수혜자들이 인종에 따른 결정을 내리도록 너무나 오랫동안 요구해 온 규정을 폐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변경 사항은 표면적으로는 중립적이지만 서로 다른 그룹에 미치는 영향이 고르지 않은 정책을 근거로 연방 자금 지원 수혜자에 대한 청구를 하

용하는 규정을 대상으로 하며, 차별적 의도에 대한 증거가 없더라도 마찬가지다.

법무부 해당 부서는 연방 자금 지원 프로그램에서 인종, 피부색, 국적을 기반으로 한 고의적 차별을 계속해서 금지하고 있지만, 제6장 규정에서 해당 개념을 삭제한다고 밝혔다.

이미 올해 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기관이 1964년 민권법 제7장을 포함한 연방 민권법에 따른 책임에 대한 불평등 영향 이론 사용을 중단하도록 지시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법무부 시민국을 이끄는 하밋 K. 딜런 차관보는 "이전의 불평등한 영향 규정은 의도적인 차별의 증거 없이도 사람들이 인종적으로 중립적인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하도록 부추겼다"면서, 부서의 전환에는 인종이나 성별에 따른 할당량이나 가정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차별이 있다

는 증거가 필요하고 말했다.

법률정책사무소의 니콜라스 쉴링 수석 보좌관은 "50년 이상"의 기준 점근 방식으로 인해 1964년 법률에 의해 금지된 차별이 발생했으며, 새로운 규정은 국민을 "실력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방 의회는 1964년 시민권법의 일부로 제6장을 제정했다.

법무부는 1973년 연방 정부가 차별적 영향 규칙을 추가했으며, 이는 행당 법률의 일부가 아니라고 밝혔다.

해당 부서는 새로운 규정이 제6장에 대한 부서의 해석을 반영하고 있으며, 지난 20년 동안 대법원이 해당 법률을 다룬 방식과 일치한다고 밝히며,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언어를 제거하면 규정을 헌법에 맞춰 조정하여 보다 일관된 집행을 촉진하고 시민권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한 기자

한국, 해외송금 규제 완화

연 10만불까지 무증빙 허용

내년부터는 한국에서 미국 등 해외로 돈을 보낼 때 증빙 서류 없이 송금할 수 있는 한도가 은행·비은행 구분 없이 연 10만 달러로 일원화된다.

한국 기획재정부는 8일 은행·비은행

한국 정부는 이러한 불편과 악용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은행과 함께 '해외송금 통합모니터링시스템(ORIS)'을 내년 1월부터 본격 가동한다. ORIS는 은행과 비은행권을 모두 포함해 전 업권의 무증빙 해외송금 내역을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개편이 시행되면 개인은 은행이나 소액송금업자 등 원하는 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해 연간 10만 달러까지 증빙

없이 송금할 수 있게 된다. 사실상 비은행권 이용자의 무증빙 송금 한도는 사실상 두 배로 늘어나는 효과가 생긴다. 연간 10만 달러 한도를 모두 사용한 뒤에도 소액 해외송금 수요를 고려해, 은행을 통한 건당 5000달러 이내의 무증빙 송금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외환 규제를 우회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소액 송금을 할 경우, 해당 내역은 국세청·관세청 등 관계 기관에 통보된다. 김연주 기자

종교시설 토지 주택 건설 촉진법안 추진

북버지니아 지역을 중심으로 종교단체와 비영리 단체가 소유한 토지에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주택을

건설하도록 허용하는 법안 추진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제니퍼 코렐 포이 주상원의원(상원

제33지구)은 "버지니아 지역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30만채의 주택 공급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각종 규제로 인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종교시설 등의 유유토지에 대해서라

도 예외적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닝 변경을 위해서는 도시 계획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심사와 근처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에 사

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연합회는 법안보다는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 법안을 만드는 것이 훨씬 낫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윤미 기자

워싱턴 날씨 (°F)



12월 10일(수) 44-34

| | | | |
|--------|-------|--------|-------|
| 11일(목) | 39-26 | 14일(일) | 34-17 |
| 12일(금) | 38-29 | 15일(월) | 30-20 |
| 13일(토) | 44-32 | 16일(화) | 37-25 |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12001 Rt 50, 2nd Fl, Fairfax, VA 22033 (703) 449-7629

SALE 특집
교통 좋은 알렉산드리아
3층 타운 홈 \$749,900

차고 2, 방 3, 화 3½

RENT 특집
기차역 가까운 매나세스
3층 End 타운 홈 \$2,900

차고 2, 방 3, 화 2.2

형사법 전문 변호사

ERIK JURGENSEN

마막한 순간, 나에게 힘이 되는
변호사를 믿으세요.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영향을 끼치는
형사사건, 대응에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 음주운전 / 교통위반
- 폭행 / 아동학대
- 절도 / 횡령
- 기울파손 ■ 마약

20년 이상 한인사회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강하고 힘있는 법정 변호사, 데이빗 막스!
정확한 분석력과 정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실력으로 합당한 판결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저희 손을 잡으십시오.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편히 주무십시오.

에릭 저겐슨 변호사 C. Erik Jurgensen, ESQ

- TOP Criminal Lawyers by Northern Magazine
- TOP 20년간의 법정경력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데이빗 막스

형사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담부터 재판까지 패이팩스 커뮤니티
검사출신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상담
무료

데이빗 막스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www.davidmarkslegal.com
한국어
상담 환영 703.385.1100
10513 Judicial Dr. #204, Fairfax, VA 22030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DAVID MARKS

David L. Marks, ESQ

- 20년간의 법정경력
- Rated AV-PREEMINENT
- SUPER LAWYERS
- Member of "MILLION DOLLAR ADVOCATES FORUM"
- NATIONAL TRIAL LAWYERS TOP 100 LAWYERS
- TOP ATTORNEYS IN VIRGINIA

FREE
The Ultimate Accident Guide

버지니아 자동차 사고 보험 청구

세번째 가이드북 출간

이 책을 읽으시기 전까지 보험회사와 연락하지 마십시오.
703-385-1100으로 연락주시면 무료로
위의 책자를 드립니다.

딱 한 잔만 마셔도 걸린다

연말 음주운전 단속 강화

연말연시를 맞아 술자리 모임이 잦아지는 가운데, 워싱턴 일원(DC/메릴랜드/버지니아) 지역에서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이 진행됨에 따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버지니아주는 12월 중순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음주운전, 하면 잡힌다 (Drive Sober or Get Pulled Over)' 캠페인을 본격 기동한다. 이 기간 동안 주 전역에서는 순찰 인력을 대폭 늘리고, 주요 도로와 교차로에 음주운전 검문소(소브리티 체크포인트)를 설치해 단속 강도를 높일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소량만 마셨으니 괜찮다"는 안일한 생각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혈중알콜농도(BAC)가 낮아도 경찰의 현장 판단에 따라 운전능력 저하가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버지니아의 처벌 기준은 매우 엄격하다. BAC 0.08~0.15%일 경우 최소



만 넘어도 처벌 대상이 되며, BAC가 0.05%~0.08%여도 운전 능력이 현저히 저하됐다고 판단되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알콜도수 4~5%의 맥주 한 잔(12온스)만으로도 BAC가 약 0.03%까지 상승할 수 있다. 다만 이는 개인의 체중, 성별, 건강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한 잔쯤은 괜찮다"는 판단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이다.

워싱턴 DC 인근 북버지니아 지역은 연말마다 주 및 카운티 경찰의 집중 단속이 이뤄지는 곳으로, 메릴랜드와 버지니아의 법률 차이에 유의해야 한다는 안내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지역 카운티 경찰국들은 연말 기간 특별 순찰 대를 운영하며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국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달라"며 "지역사회에 안전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윤미 기자

"제 반쪽은 어디 있나요?"

미혼자 및 재혼자 100여명 참여

에베니저 '연말 싱글 매칭 파티'

건강한 한인 선남선녀들이 짹을 찾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미혼 남녀를 연결시켜주는 매치 메이킹 전문업체인 '에베니저 매칭 (Ebenezer Matching)'은 지난 6일, 뉴저지 소재 파인프라자 연회장에서 100여명의 신청자가 참석한 가운데 '에베니저 연말 싱글 매칭 파티(Ebenezer Year End Single Matching Party)'를 열었다.

'에베니저 매칭'은 결혼적령기인 짹은 미혼 남녀는 물론 사별한 중장년층, 그리고 기타 이유로 혼자가 된 싱글들을 위해 원스톱 결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6일, '에베니저 매칭'사가 마련한 '짬' 찾기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대화를 나누며 게임을 하고 있다.

교포기업을 포함한 60여개 업체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많은 미혼자들이 예비 배우자를 찾았으며, 이성간의 친목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에베니저 매칭'은 각 회원과 우선 면접을 한 뒤 예비 배우자를 찾은 다음,

결혼이 결정되면 연회장 예약과 의상, 예물, 결혼 사진, 꽃 장식, 청첩장 준비, 식사제공 등 결혼식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뉴욕과 뉴저지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매치 메이킹 서비스를 활발히 제공하고 있다.

이 업체는 또 수익의 일부를 선교 자금과 불우 이웃을 위해 후원하고 있으며, 향후 장학금 후원 등 교포사회 복지 서비스에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정기적으로 매치 메이킹 행사와 같은 이벤트를 통해 미주지역 차세대 이민자들을 위해 종합적인 결혼 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에베니저 매칭의 한기선 소장은 "인생의 행복은 한 가정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인 만큼, 많은 교포들의 후원과 지원이 절실히다"고 말했다. 문의: 917-359-

1578
홍알벗 기자



2025 성탄축하 송년예배

"보라 치녀가 임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1:23)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임마누엘 하나님의 부르심에 낮은 자세로 임하며
정중히 교역자님들을 초대합니다.

일 시 : 2025년 12월 14일 (주일) 오후 6시

장 소 : 워싱턴 비전교회 (김찬영 목사)

Washington Vision Community Church
7628 Leesburg Pike, Falls Church, VA 22043

- 말 쓰: 정인량 목사 (27대 교회협의회 회장)
- 문 의: 회장: 571-486-6430 / 총무: 703-434-0363
victorhee1234@gmail.com / wkpc.us@gmail.com

2026 워싱턴지역 한인 교역자회 임원

• 회장: 박희숙 • 부회장: 박지나 • 총무: 이경희 • 서기: 안현우 회계: 안상도 • 자문위원: 양경욱, 김찬영, 문정주, 김성도

행사 안내

- | | |
|----|------------------------------|
| 2월 | 목회자들을 위한 재정 세미나 |
| 5월 | 5개지역 체육대회 |
| 7월 | 목회자 위로회 |
| 9월 | 교역자 사모 위로 수양회 (사모님 함께 해요) |



워싱턴지역 한인교역자회

한국 해군 작전 남중국해까지 확장돼야

미 해군참모총장 단독 인터뷰

중국은 한국의 현실적 위협
미국과 공동대응 대중 견제
원잠은 글로벌 발돋움 기반
조선 기술협력은 동맹 과제



“한국은 북한을 가장 큰 위협으로 보고 있겠지만, 중국 역시 한국에 위협이 되고 있다. 한국 내에서 이러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데릴 카들(사진) 해군참모총장은 지난 6일 레이건 국방포럼 기간 본지와 단독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새 국가안보전략(NSS)을 발표한 다음 날인 이날 그는 “중국은 한국에 현실적 위협”이라는

평가와 함께 “한국 해군이 활동 범위를 더 넓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새 NSS는 제1도련선을 따라 대만방어를 최우선 전력으로 명시하고, 중국 압박을 인도·태평양 정책의 핵심으로 규정했다. 반면 북한은 문서 전체에

서 단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다. 한국과 일본에는 제1도련선 방어를 위한 방위비 분담 확대를 요구했다.

커들 총장은 새 NSS에 따라 “한국은 중국 견제에 미국과 공동 대응해야 한다”며 “이를 전제로 한국 해군의 작전 영역은 필리핀해와 남중국해까지 확장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한국이 도입을 추진 중인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에 대해 “한국 해군이 한반도 중심의 연안 방어 체계를 넘어 글로벌 해군으로 발돋움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며 지난달 방한 당시의 발언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원잠은 속도, 항속, 작전 지속성, 잠항, 탑재 능력을 모두 갖춘 플랫폼으로, 이를 보유하게 되면 미국 및 동맹국과의 연합 운용도 지역을 넘어 글로벌 차원에서 이

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커들 총장은 지난달 방한 당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조선소를 돌려본 소감도 전했다.

그는 “한국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사람들”이라며 “그들의 근면함과 조직 문화가 조선소 현장에서 그대로 느껴졌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와 한화 모두 미국내 조선 사업 참여 의지를 보였고, 이는 양국 관계의 깊이를 보여 준다”며 “한국 조선 기술은 미국의 조선 역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이를 단순 비즈니스가 아닌 동맹 협력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두 기업은 접근 방식은 다르지만 미국이 당면한 어려운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했다.

향후 MRO(정비·수리·개조)를 넘어 선 심화된 함정 기술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답했다.

그는 “그 정도의 의지가 확인되면 자연스럽게 더 큰 신뢰와 더 넓은 협력으로 이어진다”며 “그 결과는 더 높은 수준의 기술 공유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40년째 군 생활을 이어온 커들 총장은 지난 8월 제34대 해군참모총장으로 임명됐다. 1985년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한 뒤 장교후보생과정(OCS)을 거쳐 잠수함 장교로 임관했다. 합동해상구성군사령관, 북부해군사령관, 합대전략사령관 등을 지내며 ‘전략통’으로 평가받아왔다.

김경준 기자



한양대 글로벌CEO 총동문회 송년회 한양대 글로벌최고경영자(이하 HGCEO) 총동문회(회장 풀 김)는 지난 3일 부에나파크의 로스코요테스 컨트리클럽에서 송년회를 열어 동문들의 친목과 화합을 다졌다. 행사에 참석한 120여 명의 동문은 기수별 장기자랑을 포함한 여흥을 즐겼다. 동문회 측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감사패, 공로패, 12기 과정 리크루트상 등을 수여했다. 이기정 한양대학교 총장은 동영상 축사를 보내왔다. 행사 직후 참석자들이 헌자리에 모였다.

[HGCEO 총동문회 제공]

연말 빈집털이 절도단 주의보

LA의 부촌인 벨에어 지역에서 빈집털이 사건이 발생, 외출이 짧은 연말 시즌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이번 사건은 초저녁 짧은 시간에 범행이 이뤄져

전문 텔리벌들의 소행으로 보인다. 7일 KTLA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5일 오후 7시께 발생했으며, 절도단의 범행 시간은 약 7분에 불과했다.

수사 결과 당시 주택 소유주 가족은 당시 외출 중이었으며, 절도단은 이들이 집에 도착하기 약 15분 전에 현장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가족은 귀가 직후 방 외부로 연결된 문이 파손된 것을 발견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쿠팡, 미국서 징벌적 손배소 직면

로펌 SJKP, 집단 소송 추진

배상 규모 확대 가능성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을 상대로 한국 법인은 물론 미국 본사까지 포함한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이 제기된다.

한국 범무법인 대륜의 국내 범인인 로펌 SJKP는 8일 뉴욕 맨해튼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모기업인 ‘쿠팡 아이엔씨(Inc.)’를 상대로 뉴욕 연방법원에 소비자 집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쿠팡 본사는 멜라웨어주에 등록돼 있으며 뉴욕증시에 상장된 미국 기업”이라며 “미국 사법시스템의 강력한 칼날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 아이엔씨는 쿠팡 한국 법인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다.

앞서 쿠팡은 지난달 29일(한국시간) 고객 계정 약 3370만 개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히며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 정보 등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고 공지했다.

김 대표는 “미국 소송은 한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과 별개로 독자적으로 추진된다”며 “미국은 상장사의 지배 구조 실패와 공시의무 위반을 다루는 본질적으로 차별화된 소송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 소송에 참여한 약 200명이 미국 소송에도 동시 참여했으며, 소송인 수는 계속 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쿠팡 본사의 역할은 한국 민사소송만으로는 규명하기 어렵다”며 “미국 소송은 미국 본사와 한국 법인 간 관계에서 본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혜·김경준 기자



월드미션 칼리지 장학생, 후원이사, 교수 모집

1

장학생 모집

지난 10월 TRACS의 Accreditation을 획득한 본교는 2026년 입학생중 전액장학생 신입생 30명을 모집합니다. 입학후 성적이 우수한 학생 50%에게는 2년차도 전액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지원자격:** 현재 대학생 (I-20 유학생포함) 또는 2026년 5월 High School 졸업 예정자중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로 이후 선교에 헌신할 자, 현재 대학 재학중인 자는 현재까지의 학점중 본교 학칙에 따라 일정 학점은 이수학점으로 적용 가능.
- **지원방법:** WMCGW.EDU 혹은 WMCGW.ORG로 접속하여 입학지원 신청 (성적 및 추천서 등 서류 심사후 선발자에게 개별 통지)
- **제출서류:** 신청서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출석교회 목회자 추천서, 지난 1년간 성적표, I-20관계서류 (유학생의 경우),
- **신청기한:** 2026년 1월 10일 마감
- **연락처:** 학생처장 (admin@wmcgw.edu / contactwmcgw@gmail.com)

2

후원이사 모집

세계 선교를 위한 비전에 기쁘게 동참하고 학교 발전을 위해 후원이사로 섬기실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후원이사로 동참하실 분들은 언제라도 연락을 주십시오.

- **연락처:** 김치환 이사장 (ccwkim43@wmcgw.edu / wkim43@gmail.com)

3

교수 모집

세계선교를 위한 인재 양성에 동참하며, 헌신하시기를 원하는 교수님들을 모집합니다.

- **B.Th. 과정:** 정규신학대학 석사학위 이상/ 일반대학 박사학위 소지자
- **M.Div. 과정:** 정규신학대학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
- **Doctor 과정:** 정규대학의 신학, 목회학, 선교학 등신학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 **연락처:** 양광호 총장 (president@wmcgw.edu / k_h_yang@hotmail.com)

* 지원관련 모든 신청은 학교 홈페이지 WMCGW.EDU 혹은 WMCGW.ORG로 접속하여 확인 가능하며, 기타 문의는 이메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문의는 사절합니다.)

학교 주소:
World Missions College of the Greater Washington
11400 Shirley Gate Court, Fairfax, VA 22030

호주·일본…세계 고속도로 ‘지하’로 통한다

세계 지하도로를 가다

시드니 22km 지하도로 통행시간 단축
‘트럭 사고 위험’ 민원도 해소 효과
도쿄, 땅밑에 도로 넣고 도심 재개발

지난달 5일 오후 호주 시드니의 지하고속도로인 ‘웨스트 커넥스(WestConnex)’로 들어섰다. 시드니 서부의 M4 남서부의 M5 고속도로 사이의 끊어진 구간을 잇는 길이 22km의 지하도로로 2023년 개통했다. 15조원의 공사비가 투입됐으며 호주에선 가장 긴 지하도로다.

천정에는 제한속도와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전광판이 촘촘히 설치돼 있었다. 터널 벽면엔 흰색 패널이 설치돼 지하인데도 달리는 동안 어둡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차가 막히지 않은 덕에 22km 전 구간을 주파하는 데 20여 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현지 관계자는 “지하도로 덕에 통행 시간이 크게 단축돼 반응이 좋다”고 말했다.

호주를 비롯해 미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여러 나라의 고속도로가 지하로 빙어가고 있다. 도로용량 증대, 주민 민원 해소, 주변 재개발 등 목적은 각기 다르지만 지하고속도로가 큰 흐름으로 자리 잡아가는 것만은 분명하다.

호주의 멜버른에선 M80 고속도로와 M3 유료도로를 연결하는 길이 6.5km의 ‘노스이스트링크 지하고속도로’ 사



업이 진행 중이다. 2028년 완공 목표로 국내의 GS 건설이 참여하고 있다. 멜버른 서부와 도심을 연결하는 웨스트 게이트교의 교통량 분산을 위한 지하도로(4km) 건설사업도 올해 말 완공을 앞두고 있다.

GS 건설 현지 법인의 이제우 부문장은 “호주는 물류의 중심이 대형트럭이지만 주거지 부근에 사고가 잦은 탓에 민원이 상당하다”며 “이 때문에 대형트럭을 아예 지하로 보내기 위해 지하도로 사업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고가도로의 천국으로 불리는 일본

에서도 지하도로 사업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5년 도쿄에서 개통한 최장 18.6km의 ‘야마테터널’이 대표적이다. 도쿄의 가장 내부에 있는 순환도로인 수도고속도로 중앙환상선의 서쪽 구간(신주쿠선, 시나가와선)으로 사업비만 15조원 넘게 들었다. 수도고속도로의 나카무라 미즈루 토목안전부장은 “처음엔 고가도로 등으로 계획했지만, 주민 반대 때문에 지하도로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지하 35m의 야마테터널과 지상 35m 높이에 있는 수도고속 3호선의 고가도

로를 연결하는 ‘오오하시 분기점’은 고저차를 극복하기 위해 특이하게도 4층의 루프구조로 만들었다. 차량이 두 바퀴를 크게 돌고서는 목적지로 빠져나가는 방식이다.

도쿄에선 기존의 고가도로를 지하로 넣고 니혼바시교 부근을 재개발하는 사업도 진행 중이다. 수도고속도로 327km 구간의 고가도로 중 53%가 40년 이상 됐을 정도로 노후화가 심하지만 이를 헬고 새 고가도로를 만드는 방안은 주민 반대가 심해 지하화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호주 멜버른의 노스이스트링크 지하고속도로 공사현장. 사고가 잦아 민원이 큰 대형트럭을 지하로 내려보내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오른쪽 작은 사진은 도쿄의 야마테터널로 연장이 19km에 달한다. 도쿄=강갑생 기자, [사진 GS건설]

이처럼 다양한 이유와 방식으로 지하고속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공통점은 철저한 안전 관리다. 웨스트 커넥스의 경우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기법을 적용해 화재·교통사고 같은 각종 재난 가능성을 미리 점검하고, 환기시스템 등 대응책을 마련했다.

웨스트커넥스 사업에 참여한 호주 뉴사우스웨일즈대의 비나야 딕시트 교수는 “디지털 트윈을 통해 실제 도로 주행과 흡사한 상황에서 다양한 실험과 검증을 거쳤다”고 말했다. 터널 내 상황을 살피고 비상 대응을 하는 관제 센터도 24시간 운영 중이다. 야마테터널 등에도 최고 수준의 방재대책이 적용됐으며, 첨단의 환기시스템 역시 필수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일본 아오모리 앞바다 7.5 강진

한때 최고 70cm 쓰나미 관측

부상 최소 13명, 주택피해 1건

기상청 ‘후발지진 주의’ 발령

8일 밤 11시 15분께 일본 혼슈 동북부 끝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규모 7.5로 추정되는 강한 지진이 발생했다.

교통신부와 NHK 등에 따르면 일본 기상청은 당초 이번 지진 규모를 7.2로 공표했다가 7.6으로 정정한 뒤 다시 7.5로 하향 조정했다. 진원 깊이는 54km다.

이어 9일 오전 6시 52분께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규모 6.4로 추정되는 여진이 발생했다. 진원 깊이는 약 10km다.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는 전날 강진 이후 여진이 지속되고 있다.

NHK는 약간의 해수면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쓰나미(지진해일) 피해 우려는 없다고 전했다.

홋카이도와 혼슈 동북부 일부 지역에 발령됐던 쓰나미 주의보는 모두 해제됐다.

지난해 1월 혼슈 중부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규모가 7.6이었다. 아카마 지로 방재상은 9일 오전 3시께 개최한 회의에서 중상 1명, 경상 8명, 부상 정도를 알 수 없는 사람 4명 등 13명이 다쳤고 주택 화재 1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날이 밝은 뒤 피해 상황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진원에서 가까운 아오모리현 하치노헤시에서는 진도 6강, 오이라 세초와 하시카미초에서는 진도 6강의 흔들림이 감지됐다. 노도 지진 당시에는 진도 7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아사히신문은 “아오모리현에서 진도 6강의 흔들림이 관측된 것은 1996년 10월 관측계 설치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다.

일본 기상청 지진 등급인 진도는 절대 강도를 의미하는 ‘규모’와는 달리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의 느낌이나 주변 물체의 흔들림 정도 등을 수치로 나타낸 상대적 개념이다.

진도 6강의 흔들림이 관측되면 사람 이 서 있을 수 없고 고정되지 않은 가구는 대부분 움직여 쓰러지는 경우가 많다. 진도 6강의 흔들림에서는 창 유리나 벽타일이 파손될 수 있다.

아오모리현과 바다를 끼고 있는 홋카이도 하코다테시에서도 진도 5강의 흔들림이 관측됐고, 도쿄 등 수도권에서도 진도 3의 흔들림이 느껴졌다.

이번 지진으로 혼슈 아오모리현과 이와테현, 홋카이도의 태평양 해안가 지역에는 한때 쓰나미(지진해일) 경보가 내려졌다.

NHK는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자



방송 속보 화면에 ‘쓰나미, 도망가라’는 문구를 띠었으며 애나운서는 “지금 바로 높은 곳으로 도망가 달라”고 소리를 되는 경우 발령된다.

지르듯이 반복해 말했다.

9일 오전 1시 전후까지 관측된 쓰나미 높이는 이와테현 구지항 70cm, 홋카이도 우라카와초 50cm, 아오모리현 무쓰오가와라항 40cm 등이다.

쓰나미 경보는 9일 오전 2시 45분께 모두 쓰나미 주의보로 변경됐다. 일본에서 쓰나미 경보는 높이 1m를 넘고 3m 이하인 쓰나미, 쓰나미 주의보는 높이 0.2~1m의 쓰나미가 올 것으로 예측될 때 발령된다. 아울러 지진으로 고속열차인 도호쿠신칸센 등 일부 열차의 운행이 보류됐고 화재 등 사고도 발생했다. 일본 기상청은 이번 지진과 관련해 9일 새벽 2시께 ‘홋카이도·산리쿠 앞바다 후발 지진 주의 정보’를 처음으로 발표했다.

2022년 12월 도입된 이 주의 정보는 일본해구·구릴해구를 따라 거대지진 발생이 예상되는 진원 지역에서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나 평소보다 거대 지진 발생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령된다.

임마누엘 홈헬스

임마누엘 간병인들은
치매교육과 노인 질환 및 장애인
수발법 등 이론과 실습을 마친
간병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료 간병사혜택
서비스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이드 소지자, 장애인,
퇴역군인(Veterans Affairs) 혜택자

전문 간병인이 되고 싶으신 여러분을 위해 임마누엘이 도와드립니다.

임마누엘은 신뢰를 바탕으로 간병사님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하며 간병사님들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간호학 박사의 명강의로
노인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 교육
- 간병인 교육과 심폐소생술(CPR)/
응급처치(First Aid)를 한주에 수료 가능
- 유급병가(paid sick leave)
- 간병인 영주권 스폰서 가능

간병인에 관심있는 분들이 많은 문의 바랍니다.

443-288-6677

Email: care@emmanuel.care / www.emmanuel.care



Emmanuel
Adult Medical
Day Care Center

최고 시설 최대 규모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테이케어 센터

한인 어르신분들을 가족같은 분위기로
행복하고 즐거운 노년을 보내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장비를 갖춘 물리치료실(치료사 주2회 방문), 마사지체어실, 탁구대, 당구대, 노래방

소셜서비스 / 통근서비스 / 의료동행서비스 (병원 예약 및 진료에 동행, 맞춤형 지원)

전문적인 의료 및 간호서비스

즐겁고 활력 넘치는 다양한 액티비티 프로그램

최고의 맛과 영양을 자랑하는 식사

443-878-6611

6612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sville, MD 21228

Main Office
8174 Lark Brown Road, Suite 201, Elkridge, MD 21075

1801 Research Blvd, Suite 580, Rockville MD 20850

쿠쿠 메리 크리스마스 연말 특별 프로모션

기간: 11.26.2025 – 12.26.2025 조건: 기간내 주문 & 12월 내 설치

타사고객 대상 특별 이벤트

일시불 구매

최대 **25% OFF**

5년 이상 렌탈 시

최대 **5 개월 렌탈비 할인**

◆ 특별 사은품 증정



올해, 가장 특별한 순간을 가장 큰 혜택으로 완성하세요!

BRAND STORE

쿠쿠 AS 공식 수리처

• **VA 직영점** 13826 Braddock Rd #C, Centreville, VA 20121 Tel. 571-321-7776

• **롯데마트 Ellicott City** Tel. 410-750-8011

• **H Mart Annandale** Tel. 240-595-2257

프리미엄 제품 CP-SN102HW, CP-TN100S/DS, CP-TN102S, CP-TN102GPK, CP-P012T/G, CP-P011T/G, CP-QN1401SW, CP-KN501HW, CP-FR601HW, CP-FR601SW, CP-FR602SW, CP-ACR1620SW, CP-ABNC100GWH, CP-WN601HW, CP-WN601SW, CAC-F3010FW, CAC-D2020FW
일반제품 CP-ADR051UW, CP-MN031W/WH, CAC-C1020FW, CAC-AA0910FW, CBT-IS1131REW/RRW, CBT-I1030RW, CWS-AO201W

사은품은 지역/매장/판매인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본 프로모션의 최종 해석권 및 결정권은 CUCKOO RENTAL AMERICA INC.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쿠쿠 렌탈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판매처 및 홈페이지를 방문하세요. 해당 프로모션 복수 고객 시 사은품 중복 증정, 단 패키지 상품은 사은품 적용 제외

- 동일 계약자 & 동일 빌링 & 동일 설치처 필수
- 구매 후 계약 해지 또는 반품시 지급된 사은품은 회수될 수 있음
- 일부 혜택은 중복 적용 불가
- 사은품 관련 부품과 필터 등의 추가 구매 및 A/S는 유상 제공

통일교 겨눈 대통령...‘국민의힘 정교유착’ 프레임 굳히기

“종교단체 위법 행위 땐 해산시켜야”
국무회의서 일주일 만에 다시 언급
법제처장 “위법 지속 맨 해산 가능”

이 대통령, 정청래·김병기 만찬서
“개혁입법, 국민 눈높이 맞게 처리를”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反)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당연히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종교단체를 포함한) 법 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 탄반는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민 법상 사단법인·재단법인은 해산 사유가 있고 소관 부처에서 해산 명령을 하면 해산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느냐”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 2일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들이 있다”며 법적 조치 검토를 지시한 지 1주일 만에 해산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특정 종교 이름을 거명하지 않았으나, 정치권에선 “통일교와의 전쟁을 선포했다”는 말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해산 후) 재산은 정부에 귀속되는 가” “주무관청은 어디인가” 같은 구체적인 법적 절차까지 물었다. 조처장이 “종교 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그게 정당한지 아닌지는 소송하면 (법원이) 취소하든지 말든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교와 윤석열 정부의 ‘정교유착’ 의혹은 김건희 특검 수사에서 불거졌다. 특검팀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1

억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한학자 총재를 통일교 단체자금 1억4400만 원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이날 이 대통령 발언은 ‘정교 유착’ 의혹이 여권으로 옮겨붙던 시점에 나왔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더불어민주당의 두 전현직 의원에게 현금·시계를 건넸다고 진술한 사실이 최근 공개되면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와 만찬을 하며 “개혁입법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고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브리핑했다. 이 대통령은 2시간30분간 진행된 만찬에서 “한국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더라”며 “새해 예산안 합의 처리에 고생이 많았다”고도 했다.

여권에선 이 대통령의 강경 대응을 고도의 노림수로 본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공격이 최대의 방어”라며 “민주당에도 통일교의 검은 손이 들어왔다면 파헤쳐야 한다.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존 정치인은 종교 단체와의 갈등을 피하지만, 이 대통령은 명분만 확실하면 정면 돌파한다”며 “신천지와의 싸움처럼 이기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이던 2020년 2

월 방역수칙 위반 논란을 빛던 신천지

총회본부(경기도 과천시 소재)에 직접 찾아가 신도 명단을 요구해 이목을 끌었다.

조귀동 정치컨설팅 민 전략실장은

“당장은 통일교를 언급한 것으로 보이

지만, 결국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원칙을 세우는 흐름으로 만들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윤석열 대통

령 탄핵 반대 집회에 앞장섰던 일부 개

신교와 국민의힘의 연결고리를 겨냥한 발언”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민주당의 혹을 덮기 위해 협박한다”고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 불리한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자 ‘더 말하면 씨를 말리겠다’고 공개적으로 겁박한 것”이라며 “통일교가 해산돼야 한다면 민주당도 해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우리 돈준 거 불면 죽인다”는 공개 협박”이라며 “‘통일교 게이트’는 이미 열렸고, 이재명이 제 발 저려서 저럴수록 (의혹은) 커진다”고 했다.

다만 일본의 사례처럼 통일교에 대한 해산 절차에 실제 돌입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본은 종교법인법에 따라 ‘법을 위반해 종교 단체가 공공복지를 현저히 해친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법원이 해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우리는 민법으로 주무관청이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방식이라 정치적 논란을 피할 수 없다.

허가 취소를 위해선 법인이 ▶목적 외 사업 ▶설립 허가 조건 위반 ▶공익 침해 행위 등을 한 게 입증돼야 한다. 통일교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해산 절차가 장기화된다. 법인이 해산되더라도 정관에 별도 규정이 있으면, 잔여 재산은 국고로 귀속되지 않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개혁이라는 원래의 뜻이 가죽을 벗긴다는 것, 아프다는 것”이라며 “저항이 없는, 갈등이 없는 변화는 변화가 아니다”고 했다. 내린전담재판부 설치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법안을 두고 반발이 거센 가운데, 개혁론에 힘을 실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오현석·윤성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개혁이라는 원래 뜻이 ‘가죽을 벗긴다’는 것으로, 그만큼 아프다는 뜻”이라며 “그것을 이겨내야 비로소 변화가 생긴다”고 말했다. 왼쪽은 김민석 국무총리.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법정서 공개된 통일교측 녹음 파일...정진상 이름 언급, 나경원과는 통화

전간부 “정진상 정도는 될 것 같아”
나 “가급적 제3의 장소서 만나자”

전진법사 전성배씨의 알선수재 혐의 재판에서 통일교 측이 2022년 대선 직전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 모두에게 접촉을 시도한 정황이 담긴 통일교 간부의 녹음파일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이진관)가 심리하는 전씨 공판기일에서 다.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측의 추가 증거조사 과정의 일부였다. 녹

음에서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이름이 언급됐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 간부와 통화하는 육성도 재생됐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2022년 1월 25일 이현영 전 통일교부회장과의 통화에서 당시 ‘한반도 평화 서밋’ 행사 축사와 관련해 “여권은 일전에 이 장관님하고 두 군데 어프로치(접근)했어. 그건 그거대로 하고 이쪽은 오피셜하게(공식적으로) 가고요”라며

“그다음에 정진상 부실장이나 그 밑에

쪽은 화상(면담)이니 그거 정도는 될 것 같아요”라고 말한다. 정 전 실장은 2022년 1월 이재명 캠프의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을 맡았다. 이어 윤 전 본부장은 “미국에서 오늘 기사 난 게 윤석열은 즉흥적이다. 오히려 이재명은 실용적이라는 것”이라며 “오히려 의외로 남북관계를 풀어낼 거라고 기사를 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아프로 치한 건 헐러리, 오바마, 일론 머스크, 민주당 상원하고 해서 미국 자체 인지도 높은 사람 8명”이라고 했다.

통일교 측에서 2022년 2월 11일 ‘한반도 평화 서밋’을 앞두고 이 대통령의 참

석을 끌어내기 위해 미국 민주당 측 인

사들을 초청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이 확보한 또 다른 녹취록에서는 이 대통령의 측근 A의원이 등장한다. 서밋 행사가 끝난 2월 28일 이 전 부회장은 “후보자(이재명)나 사모가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저쪽에서는 A의원을 본부장님 한번 뵙게 하겠다고 했다”고 말한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육성 녹음 파일도 재생됐다. 나 의원이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과 윤 전 대통령의 만남을 조율하며 직접 통일교와 소통하

는 내용이다.

2022년 2월 11일 이현영 전 부회장과의 통화에서 나 의원은 “가급적이면 일정을 제가 가운데서 어레인지(조정)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대선 캠프) 본부장도 모르고 다 모른다. 가급적이면 제3의 장소 또는 우리 당사나 이런 데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이때 나 의원은 국민의힘 서울시당 선대위 총괄 선대본부장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2월 13일 행사장인 서울 송파구 롯데시그니엘호텔에서 펜스 전 부통령과 30분 가량 회동했다.

최서인 기자

2025년 하반기 주택 동향

매물상승으로 바이어들에게 더 좋은 기회,
이자율 6%대, 주택 가격 하락?

주택 구입 전략!

- 1. 주택 대출 금액을 알아본다. (세금보고서 2년차)
- 2. 주택 모기지 납입 능력 금액을 책정한다.
- 3. 구입금액 설정 후 구입지역을 설정한다.
- * 여러 각도에서 같이 고민해 드리는 비키리 부동산에 연락주세요!

셀러 집 판매 전략 !!

집 예쁘게 고쳐서 팔아 드립니다.
셀러를 대변하는 부동산, 비키리 부동산에 연락주세요.

RENT

타운 홈, 센터빌

차고2,

즉시 입주

\$3,200

타운 홈, 센터빌

차고2,

1월 입주

\$3,700

금매 스팟포드

싱글홈

조용하고 맷돌찰드는 편안 집,

방4개, 화 3.5,

지하 워크아웃

\$560,000

비키리 부동산

전화 703-231-5572

DC, MD, VA 브로커 면허 소유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선정 17년 연속 탑프로듀서,

주택 관리 전문 회사

NVAR Diamond Member

Membership in the Top Producer's Club for 10 years of cumulative success

CONFIDENTIALITY NOTICE: The contents of this email message

and any attachments are intended solely for the addressee(s)

and may contain confidential and/or privileged information

and may be legally protected from disclosure.



앤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버지니아 / 703-863-0321 D.C., 매릴랜드 / 301-399-0140



정승우
연방세무사

GTAX Consulting Group

703-844-0355 / www.gtax1.com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IRS 감사
세무탕감 전문
김영선
연방세무사

“ 세금 보고, 절세 전략, 세금 문제 해결,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돋웁니다.”

저희는 빠르고 저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인 세금 보고

- 50개 주 개인 세금 보고 / 세무 상담
- 해외 자산 및 수입 보고
-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
- 세무 감사 대행 / 세금 탕감 신청

사업체 세금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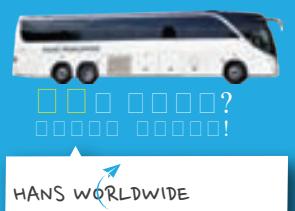
- 법인체, 사업체 설립
- 비영리 단체 설립
- 사업체 세금 보고 및 세무 업무
- 장부 정리 및 직원 PAYROLL

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

- 은퇴 설계 / 개인 연금 Annuity, IRA
- 생명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직원 복지 / SEP, 401K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HANS TRAVEL

hanstravelusa@gmail.com
문의전화 703.658.1717
www.hanstravel.com
7601 Little River Twpk., #201
Annandale, VA 22003



데이빗 한 재기조 조앤 한 세라 정 애나 김 김문배
인솔자가 함께하는 한스여행
VA 한스 에이전트/로컬 투어 가이드 모집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atc.davidhan@gmail.com

한스 2026년 여행 스케줄

항공 불포함 인솔자

| | | |
|-------------------------------------|-------------------------------|-------|
| 01/11(일)~01/19(월) | 오만, 사우디 아라비아, 카타 | 마감 |
| 01/16(목)~01/24(화) | 바하마 크루즈 (볼티모어) | 마감 |
| 01/22(목)~01/27(화) | 코스타리카 골프 & 온천 | 마감 |
| 01/29(목)~02/08(일) 신비의 북인도 여행 | | |
| 10박11일 | \$3,590 | 재기 조 |
| 01/29(목)~02/10(화) | 북인도+두바이 Stop Over | |
| 12박13일 | \$4,850 | |
| 02/09(월)~02/14(토) | 밸런타인 코스타리카 | |
| 5박6일 | \$2,190 항공포함 | 애나 김 |
| 02/07(토)~02/21(토) | 두바이, 아부다비+남인도+스리랑카 | |
| 14박15일 | \$6,450 | |
| 02/09(월)~02/21(토) | 남인도+스리랑카 | |
| 12박13일 | \$5,150 | 조앤 한 |
| 02/14(토)~02/21(토) | 스리랑카 문화탐방 | |
| 7박8일 | \$2,980 | |
| 02/17(화)~02/26(목) | 이집트 & 나일강 크루즈 | |
| 9박10일 | \$4,190 | 데이빗 한 |
| 02/23(월)~03/22(일) | 남미 일주(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 |
| 27박28일 | \$20,500 | 재기 조 |
| 02/23(월)~03/08(일) | 파타고니아 & 이과수 폭포 | |
| 14박15일 | \$9,900 | |
| 03/07(토)~03/15(일) | 이스터 아일랜드 & 칠레 | |
| 8박9일 | \$6,590 | |
| 03/14(토)~03/22(일) | 페루 일주 | |
| 8박9일 | \$3,590 | |
| 03/23(월)~04/01(수) | 모로코와 사하라 사막 탐험 | |
| 9박10일 | \$3,690 | 조앤 한 |
| 일본 + 한국 + 중국 | | |
| 03/30(월)~04/11(토) | 일본 맛여행+한상의 벚꽃축제 | |
| 12박13일 | \$5,995 | 재기 조 |
| 04/11(토)~04/18(토) | 한국의 남해, 땅끝 마을을 찾아서 | |
| 7박8일 | \$2,590 딜럭스 리무진 버스 | 재기 조 |
| 04/20(월)~04/28(화) | 중국 실크로드 | |
| 8박9일 | \$3,490 | 조앤 한 |
| 04/09(목)~04/17(금) | 베네룩스 3국 | |
| 8박9일 | \$3,890 봄 특선! | 세라 정 |
| 04/20(월)~05/01(금) | 스페인 & 포르투갈 | |
| 11박12일 | \$3,790 | 애나 김 |
| 04/29(수)~05/03(일) | 뉴멕시코 | |
| 4박5일 | \$1,690 | 인솔자 |
| 05/04(월)~05/14(목) | 서유럽 3개국 프랑스/스위스/이태리 | |
| 10박11일 | \$3,690 | 세라 정 |
| 05/06(수)~05/18(월) | 그리스 & 터키 | |
| 12박13일 | \$3,690 | 조앤 한 |
| 05/18(월)~05/26(화) | 동유럽 4개국 독일/오스트리아/헝가리/프리퍄 | |
| 8박9일 | \$3,290 | 애나 김 |
| 05/31(일)~06/11(목) | 알프스 파노라믹 투어 | |
| 11박12일 | \$5,995 | 재기 조 |
| 06/02(화)~06/14(일) | 코카서스 3국 | |
| 12박13일 | \$4,490 | 조앤 한 |
| 06/15(월)~06/25(목) |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스카이 섬 | |
| 10박11일 | \$6,695 | 재기 조 |
| 07/09(목)~07/14(화) | 캐나다 록키 5박6일 | 세라 정 |
| 07/16(목)~07/29(수) | 북유럽 4개국 & 밸틱 3개국 | |
| 13박14일 | \$6,695 | 재기 조 |
| 08/07(금)~08/21(금) | 케냐, 빅토리아 폭포, 남아공 + BLUE TRAIN | |
| 08/07(금)~08/19(수) | 아프리카 사파리, 빅토리아 폭포 남아공 | |
| 08/07(금)~08/14(금) | 아프리카 케냐 | 조앤 한 |
| 08/12(수)~08/18(화) | 알리스카 | 애나 김 |
| 08/15(토)~08/28(금) | 그린랜드 + 아이슬란드 | |
| 13박14일 | \$12,990 | |
| 08/15(토)~08/22(토) | 그린랜드 | 재기 조 |
| 7박8일 | \$5,995 | |
| 08/21(금)~08/28(금) | 아이슬란드 | |
| 7박8일 | \$6,995 | |
| 09/07(월)~09/16(수) | 북스페인+산티아고 순례길 | |
| 9박10일 | \$3,950 | 애나 김 |
| 09/10(목)~09/19(화) | NEW 북노르웨이~오로라 | 조앤 한 |
| 09/17(목)~09/25(일) | 발칸+크로아티아+돌로미테 | |
| 8박9일 | \$3,590 | 세라 정 |
| 09/27(일)~10/10(토) |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3개국 | |
| 13박14일 | \$5,390 | 조앤 한 |
| 09/28(월)~10/08(목) | 서유럽 3개국 | |
| 10박11일 | \$3,690 | 애나 김 |
| 10/12(월)~10/23(금) | 포르투갈 & 스페인 | |
| 11박12일 | \$3,790 | 세라 정 |
| 10/14(수)~10/24(토) | 한국의 맛과 멋, 기을 여행 | |
| 10박11일 | \$2,990 | 인솔자 |

뮤지컬 특선



대형버스 당일투어

한국 뮤지컬 브로드웨이를 장악하다!

어쩌면 해피엔딩

4차오픈! 2026년 1/10(토) \$289

티켓 포함, 점심식사 포함 대형버스

1차, 2차, 3차 마감,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 스페셜 투어 12/18(목) 마감! 성원에 감사합니다.

THE MAGIC FLUTE 12/22(토) 마감! 성원에 감사합니다.

NEW!
노옵션!

뉴멕시코

여전없이 가는
미국 국내여행

대자연과 아색도시를 모두 만나는 남서부 로드트립

알버커키/산타페/텐트록스/로즈웰/칼즈베드/화이트샌즈/엘파소

4박5일 4/29(수)~5/3(일)

\$1,690 항공불포함 인솔자 동행

한스 해외 투어

북인도 & 두바이

1 북인도+두바이 12박13일

1/29(목)~2/10(화) \$4,890 항공불포함

2 신비의 북인도여행 10박11일

1/29(목)~2/8(일) \$3,590 항공불포함

인솔자: 재기 조

3 두바이+남인도+스리랑카 14박15일

2/7(토)~2/21(토) \$6,450 항공불포함

2 남인도 & 스리랑카 12박13일

2/9(월)~2/21(토) \$5,150 항공불포함

3 스리랑카 문화탐방 7박8일

2/14(토)~2/21(토) \$2,980 항공불포함

두바이+남인도+스리랑카

인솔자: 조앤 한

4 뉴멕시코 4박5일

4/29(수)~5/3(일) \$1,690 항공불포함

5 밸리 투어 1박2일

5/6일 2/9(월)~2/14(토) 인솔자: 애나 김

항공포함 \$2,190

코스타리카 투어

따바콘 온천/행잉브릿지 커피투어/라빠스 생태공원

5박6일 2/9(월)~2/14(토) 인솔자: 애나 김

항공포함 \$2,190

코스타리카 골프 & 온천

골프 3라운딩 + 따바콘 온천

5박6일 2/9(월)~2/14(토) 인솔자: 애나 김

항공포함 \$2,350

3명이상 출발가능 워싱턴 DC \$100

당일투어 루레이동굴 \$125

8명이상 출발가능 미리 예약 하세요!

뉴욕 1박2일 12/29(월) \$399

캐나다 나이아가라 목요일 출발

& 뉴욕 2박3일 \$650

캐나다 나이아가라 수요일 출발

& 뉴욕 3박4일 \$899

미동부 캐나다 월요일 출발

5박6일 2/9(월), 2/23(월) \$1,350

러시모어, 크레이지호스

록키산맥 국립공원/러시모어/

베드랜드 국립공원/크레이지 호스

2026년 5/22(금)~5/25(월)

3박4일 \$1,040 항공불포함

서부4대캐년 5박6일

\$990 항공불포함 일요일 출발

미서부 일주 8박9일

\$1,540 항공불포함 일요일 출발

대통령 “백해룡 투입” 지시했지만… 마약 의혹 모두 무혐의

합수단 “백해룡에 수사외압 혐의도 대통령실 개입 의혹도 확인 안돼”
임은정 “백, 추측을 사실과 구분해야”
백, 관세청·대검 등 6곳 영장 신청

‘세관 마약밀수 연루 및 외압 의혹’을 수사한 검경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결론 내렸다.

서울동부지검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은 9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마약 밀수 연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를 받는 세관 직원 8명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출범 6개월 만에 밀수를 도운 사실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찰청과 관

세청 지휘부 7명이 백 경정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도 “대통령실의 개입과 관련자들의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모두 혐의의 없음 처분했다.

해당 수사는 백해룡 경정의 의혹 제기로 시작됐다. 백 경정은 서울 영등포 경찰서 형사과장이었던 2023년 1월 말 레이시아 국적 마약 밀수범이 세관 직원과 공모해 필로폰 약 24kg을 밀수했다고 폭로했다. ‘세관 직원의 도움으로 4번 또는 5번 검색대를 통과했다’는 밀수범의 경찰 진술 등이 근거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월 직접 임은정 동부지검장에게 백 경정을 합류시키고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하면서 의혹은 커졌다.

그러나 합수단 조사 과정에서 모든 밀수범은 “사실은 세관 직원의 도움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합수단은 2023년 9월 경찰의 인천공항 실황 조사 영상도 제시했다. 해당 영상에는 밀수범 A가 말레이시아로 “그냥 연기해. 영상 찍으려고 하잖아. 지금은 그게 중요해” “넌 여기(4번 검색대) 아니면 여기(5번 검색대)에서 있던 거야. 알겠지?”라며 동료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듯한 모습이 담겼다. 합수단은 “당시 경찰은 밀수범들의 허위 진술을 믿고, 이에 근거해 세관 직원들의 가담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4·5번 세관 검색대 통과’ 진술도 밀수범이 진술을 바꾼 정황이 있다고 합수단은 설명했다. 당시 영상을 보면 A는 최초에 ‘농림축산부 검역대를 통과했다’고 진술했지만,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이 ‘여전 동식물

검역소라 의미가 없다’며 제지하자 4·5번 세관 검색대를 임의로 특정하는 식으로 진술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합수단은 수사 외압 의혹도 실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백 경정이 제기한 대통령실 관여 여부 확인을 위해 피의자 주거지, 경찰청·인천세관 등 30개소를 압수수색하고 피의자 휴대전화 46대를 포렌식했지만 대통령실 관계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다. 경찰 지휘부의 브리핑 연기와 보도자료 수정 지시도 당시 세관을 압수수색할 예정이던 상황에서 적법 했다고 판단했다.

합수단은 “수사 장기화 과정에서 객관적 사실과 다른 의혹 제기나 추측성 보도로 사건 관계인들의 명예훼손 등 피해가 증폭돼 수사 종결된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한 결과를 먼저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고 밝혔다.

임은정 지검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밀수범들이 백 경정 앞에서 거짓말을 거칠없이 모의하는 영상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밀수범들의 거짓말에 속아 경찰 수사가 마약 밀수 조직에서 세관 직원들로 전환돼 직원 개개인은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 여러모로 피해가 큰 사건”이라며 “느낌과 추측을 사실과 구분해서 말해야 한다. 위험하다”고 꼬집었다.

반면에 백 경정은 “세관이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 필로폰 밀수에 가담한 정황 증거가 차고 넘쳐 검찰 사건 기록으로도 충분히 소명된다”고 반발했다. 백 경정은 현재 관세청·대검찰청 등 6개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상태라고도 밝혔다.

이영근·오소영 기자

61년 만에…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마이크 꺼졌다

우원식 “나경원 발언 의제 벗어나”
야당, 우 의장에 “제2의 추미애”
여당 “쇼츠 분량 땠으면 내려오라”

여야 충돌로 인해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중단되는 초유의 일이 9일 벌어졌다.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본회의에서 62건의 비행점 법안을 처리하려 했다. 그러나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사법제도 개편안, 필리버스터 중지법 등 쟁점 법안 8건의 연내 처리 계획을 철회하라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요구를 거부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예정보다 2시간 늦게 개의한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네 번째 안건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상정되자마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첫 토론자인 나경원 의원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예를 표하지 않자 “인사 안 하느냐”며 신경전이 시작됐다. 발언 전 의장에 대한 인사는 국회 관례다. 우의장의 채근에도 나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가운데)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자 여야 의원들이 단상으로 나와 언쟁하고 있다.

의원이 무시하고 토론을 시작하자, 우의장은 “인격의 문제”라고 쏘아붙였다.

양측의 신경전은 우의장이 “의제에 서벗어난 발언”이라며 나의원의 토론을 중단시키면서 재점화했다. 우의장의 경고 속에 나의원이 민주당의 일방

적 국회 운영에 비판을 이어가자, 우의장은 “의도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한다”며 발언대 마이크를 꺼졌다. 비교적

발언의 범위가 자유로운 필리버스터 중 의장이 토론자의 발언을 강제로 중지한 건 매우 이례적으로 1964년 4월 20일 당시 이효상 의장이 김대중 의원

의 필리버스터(5시간19분) 중 마이크를 끈 이후 61년 만이다.

이후 여야는 발언대 주변에 모여 대치하며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우의장이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국회 법을 지키라”며 35분간 마이크를 꺼기 때문이다. 나의원은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 횡행하는 곳이 대한민국 국회”라고 항의했다. 하준호·양수민·조수빈 기자

“한동훈 가족명 게시글 4인, 전화 끝번호 동일”

국민의힘 당무감사위 조사 공개
한 “코너 몰린 장동혁, 정적 공격”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9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연루된 ‘당원 계

시판 의혹’ 중간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긴급 공지를 통해 “당원명부 확인 결과 한 전 대표의 가족과 같은 이름을 쓰는 A씨, B씨, C씨는 모두 서울 강남구 병

소속”이라며 “휴대폰 번호 끝 네 자리도 동일했다. D씨는 재외국민 당원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 위원장이 공개한 A씨는 한 전 대표 부인, B씨 장인, C씨 장모, D씨는 딸과 이름이 같다. 한

전 대표 딸은 2023년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위원장은 또 “이들의 탈당 일자가 거의 동일하다”고 공개했다. 공지문에 따르면 D씨는 지난해 12월 16일, B씨와 C씨는 하루 뒤인 12월 17일, A씨는 12월 19일 탈당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16일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한 전 대표 가족과 이름이 같은 당원들이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익명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100여 건의 글을 올렸다는 게 당원 게시판 의혹이다. 야권 관계자는 “당무감사위는 동일인 여부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정황상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1석 5조 통합보험



엘리콧시티 · 락빌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2 로케이션에서 진료합니다.

편한나라 척추신경 전문병원

편한 위치! 편한 치료! 편한 척추!

편한나라는 지난 20여년간 척추와 척추신경과 관련되어 발생되는 통증을 치료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 의료인들의 협진으로 빠르고 정확한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와 함께 척추 및 자세교정
- 통증 침 치료(Dry Needling)
- 마사지 치료(LMT 라이센스 소지자)
- 디지털 X-Ray, 디스크 감압치료
- 물리치료기구, 재활 프로그램 완비

■ Dry Needling 이란? 침을 근육이나 근막조직의 통증점에 자침하는 치료법으로 근육통의 완화, 근육 및 인대의 긴장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진료 과목

- 자동차 사고후유증
- 척추 디스크통증
- 두통, 목, 허리 통증
- 손, 발통증 및 저림
- 어깨 결림 및 통증
- 만성근육통

취급 보험

- Blue Cross Blue Shield
- Anthem
- United Healthcare/GEHA
- Innovation Health
- Blue Choice
- Aetna
- CareFirst



Dr. 민혁기

원장 Dr. 송영성

Dr. 석호선

Dr. 민혁기

- 전 경기대 대체의학 대학원 외래교수
- Body Balance Center Director(임시교수)
- MD & VA Board Licensed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Magna CumLaude(우등졸업)
- Life Univ. Doctor of Chiropractic 과정전액 장학생
- 단대부고 졸업

원장 Dr. 송영성

- 동아고, 경희대학교 졸업
- R.O.T.C 28기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Graduated Magna CumLaude from Life Univ.
- Practiced in Choi Chiropractic
- Certified in Cox Technique-Low Back Pain
- Certified Dry Needling

Dr. 석호선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졸업
- 대구 대건고, 경북대학교 졸업
- MD Chiropractic Board Licensed
- Licensed Massage Therapist (LMT) of MD
- Completion of Asian Bodywork Therapy Program
- Member of Associated Bodywork and Massage Professionals

엘리콧시티

(410) 480-2331

3201 Rogers Ave. #102, Ellicott City, MD 21043

락빌

(301) 279-69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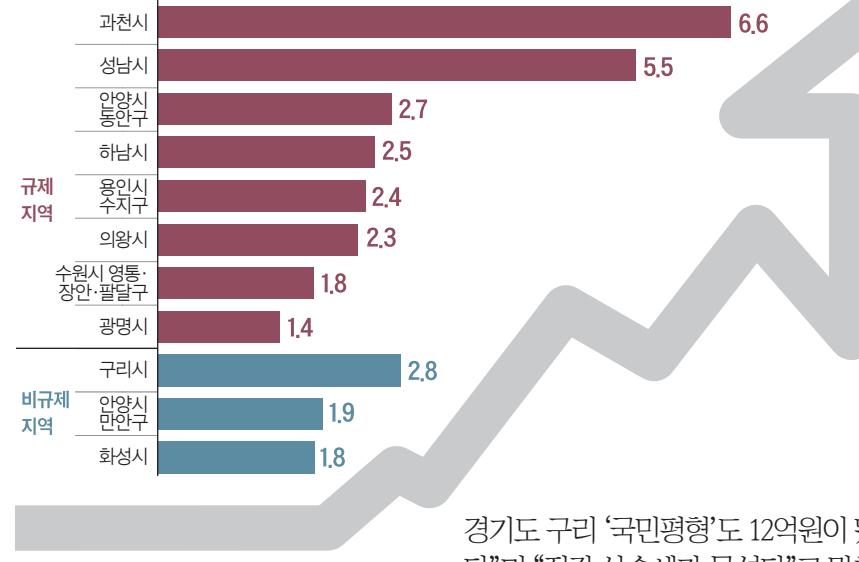
2000A Veirs Mill Rd., #A, Rockville, MD 20851

광명이 17억 찍었다.. 경기 규제지역에도 번진 '풍선효과'

<전용 84m²>

10·15 대책 이후 경기권 얼마나 올랐나?

단위: %, 평균 매매가격 변동률 ≈ 토지재적 전(9월 5일~10월 19일)과 이후(10월 20일~12월 4일)에 동일 단지, 동일 면적에서 각 1건 이상 거래가 발생한 아파트 대상 자료: 집토스, 국토부 실거래가 분석



고강도 대책에 경기 아파트 들썩
강남 접근성 좋은 비규제 지역
구리 2.8%, 화성 1.8% 등 상승세
“경기 역세권 신축은 부르는 게 값”

15억원 이하 아파트가 많은 경기도 아파트값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다. 대책 직후에 캡투자가 가능한 경기도 화성·구리시 등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났지만, 최근에는 규제 지역인 광명·하남·의왕·안양시 등에서도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 25억원 초과 아파트는 2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는 4억원, 15억원 이하는 6억원으로 줄어들자 상대적으로 대출을 받기 쉬운 15억원 전후 아파트 매수세가 커졌다.

집토스에 의뢰해 ‘삼중 규제’(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구역)가 시행된 10월 20일 전후(9월 5일~10월 19일, 10월 20일~12월 4일)로 거래된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을 비교한 결과,

경기도 구리 ‘국민평형’도 12억원이 됐다”며 “집값 상승세가 무섭다”고 말했다.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 전용 84m²도 최근 17억원대, 59m²는 15억원에 거래됐다. 인근 공인 중개사는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 역세권 신축 아파트는 요즘 부르는 게 값”이라고 했다. 이곳은 캡투자(전세 끼고 매수)가 안 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됐는데도 매매가격이 1억원 가량 올랐다. 30대 직장인 허모씨는 9일 “이 아파트는 올 초만 해도 10억원대였는데, 이제

10·15 대책으로 대출이 크게 줄면서



택 공급 불안 심리가 여전히 무 주택자들이 ‘탈서울 내 집 마련’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인기 지역에선 신고가도 쏟아지고 있다. 집토스 집계 결과, 10월 20일 이후 이달 초까지 경기도 12곳 규제 지역에선 신고가 거래가 141건 나왔다. 경기도 비규제 지역에선 444건의 최고가 거래가 이어졌다. 경기도 규제 지역의 경우 ‘9억원 초과 15억원 이하’ 아파트에서 신고가 거래가 76건으로 절반 이상(54%)을 차지했다. 비규제 지역인 경기 외곽에선 비교적 저렴한 ‘9억원 이하’ 아파트의 신고가 거래가 341건(77%)으로 가장 많았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 교수는 “내년 입주 물량이 서울도 줄지 만 경기 지역도 올해 대비 1만 가구가량 준다. 정부 규제에도 가격 상승 압력이 클 수밖에 없다”며 “실질적인 공급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민정 기자

강남은 집값 키맞추기 중.. 상대적으로싼 ‘강남 3곡’ 몰린다

(세곡·자곡·내곡동)

외곽에 위치, 거래량 적었던 지역 송파도 15억 이하 집 거래 급증

지난 3일 서울 송파구 문정시영 전용 39m²는 기준 거래가에서 1억1000만원 오른 9억원에 거래되며 역대 최고가를 고쳐 썼다. 인근 공인중개사는 “이 지역에서 매매가격이 15억원 이하인 몇 안 되는 단지다. 대출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수요층의 문의가 이어진다”고 밝혔다. 지난달 17일 강남구 자곡힐스테이트 59m²도 1억6000만원으로 12억6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10월 서울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후 강남권에선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지 않은 단지를 중심으로 거래 쏠림현상이 나타났다. 9일

부동산플랫폼 ‘아설’에서 규제 시행일 있다는 점에서 실수요층의 문의가 이어진다”고 밝혔다. 지난달 17일 강남구 자곡힐스테이트 59m²도 1억6000만원으로 12억6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10월 서울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후 강남권에선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지 않은 단지를 중심으로 거래 쏠림현상이 나타났다. 9일 부동산플랫폼 ‘아설’에서 규제 시행일

인 10월 20일부터 이달 8일까지 50일간 거래량 상위 서울 아파트 단지 99개를 추린 결과,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단지 62개가 순위 안에 들었다. 규제 전 50일 동안엔 이들 지역에서 2개밖에 없던 것과 대조적이다.

강남·서초구에서는 세곡동·자곡동(강남구), 내곡동(서초구) 등 이른바 ‘3곡동’ 지역 단지의 거래가 활발했다. 자

곡동 래미안강남힐즈·강남자곡힐스테이트(이상 16건), 세곡동 강남LHI 단지(9건), 세곡푸르지오(8건), 내곡동 서초더샵포레(8건) 등이 순위 안에 들었다. 외곽에 위치해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낮고 거래량이 많지 않던 지역이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 교수는 “3곡동 단지는 다른 강남 지역과 ‘키 맞추기’를 해오는 과정”이라며 “다른

지역을 매수하려던 수요도 일부 유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구별로는 송파구 단지가 38개로 가장 많았다. 문정시영(26건)·가락쌍용1차(20건)·문정래미안(16건) 등 가격대가 상대적으로 낮은 단지의 거래량이 많았다. 김민관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은 “마포·성동구와 규제 수준이 같아지니, 강남권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풀이했다.

정은혜 기자

범여권 ‘유엔사 패싱’ DMZ법에.. 국방부 “유엔사와 협의를”

유엔사령부(UNC, 유엔사)가 승인하지 않아도 정부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출입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국방부가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작전에는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여야 한다”며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강·한정애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일명

DMZ법안)’에 대해 국방부는 9일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DMZ 정전 관리의 책임이 있는 유엔사 측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명시적 반대는 아니지만, 유엔사와의 협의라는 조건을 달아 우려를 표한 셈이다.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DMZ법안 3건은 DMZ 출입을 통일부 또는 정부가 허가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을 뒀

다. “통일부 장관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도 불구하고… 허가할 수 있다”(제12조) 등이다. 또 해당 법이 기존의 DMZ 관련 법안보다 우선한다는 조항(제5조)도 뒀다.

이는 정전협정에 따라 DMZ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유엔사의 권한과 충돌 소지가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DMZ를 통한 남북 교류 사업을 두고 정부가 유엔사와 마찰을 빚은 적이 있

다. 여당은 이를 실정법 제정으로 정면 돌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지난 9월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에 제출한 검토 의견에서 “DMZ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도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 작전에 제한이 없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다른 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경우 군사작전에 대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의 우려 표명으로 볼 수 있다.

또 ‘DMZ법이 현행 군사시설보호법에 우선하는 것은 안 된다’는 취지로도 회신했는데, 이는 완곡한 반대 표명으로 볼 여지도 있다. 현행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르면 군사분계선(MDL) 인접 지역은 전 지역이 군사 지역으로 뷰여 있기 때문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검토 의견을 통해 “정전협정은 국제법에 준하는 효력이 발생하며, 이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유정·심석용 기자

홈스프링 아동 가족 상담소

HopeSpring Child & Family Clinic, LLC

상담분야

아동, 청소년, 성인 상담, 부부 상담, 가족 상담,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미술 치료, 표현 예술 치료, 자녀문제 컨설팅, 부모 상담, 부모 교육 및 정신 건강 관련 강의

상담진료분야

우울증, 조울증, 불안장애, 분노조절장애, 강박증, 선택적 항목증, 조현병, PTSD, ADHD, Autism, 섭식 장애, 발달장애 및 지연, 학교 내에서 문제 행동들, 부모자녀 갈등, 대인관계 갈등, 아동 학대(신체적 폭력, 성폭력 등), 가정폭력, 부부 갈등, 고부 갈등, 별거/사별/이혼/재혼 후 심리적인 어려움, 스트레스 관리법

폐어페스티티 도서관 및 음악

3915 Blenheim Blvd, STE 23A, Fairfax, VA 22030
www.hopespringchildandfamily.com
info@hopespringchildandfamily.com

정신건강 전문가 권미경, Ph.D.
(Dr. Mi-Kyung Kwon)

- ▶ 한국과 미국에서 25년 이상 임상 경험
- ▶ National Certified Counselor
- ▶ National Certified TF-CBT Therapist
-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VA)
- ▶ Licensed Clinical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MD)
-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TX)
- ▶ Registered Play Therapist & Supervisor
- ▶ 전) Kennedy Krieger Institute, Psychotraumatologist
- ▶ 전) Trauma Training Academy, Faculty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좌골 신경통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어깨, 무릎 통증 ■ X-ray, 재활운동 시설 암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럭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 전문의)

고환율에 다급한 정부, 수출기업이 쟁여둔 달러까지 본다

기재부, 기업 외환 점검 TF 추진
복지부, 국민연금 외화채 발행 검토
전문가 “지나친 정부 간섭 우려”

달러당 원화 가치가 1470원대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않자, 정부가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수출 기업의 외환 상황을 본격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이 ‘달러빚’(외화채 발행)을 내는 걸 검토하고 있다.

이런 고강도 조치를 두고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례가 없는 국민연금의 외화채 발행도 장기적으로 국민의 노후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있다.

9일 기재부 관계자는 “수출 기업의 외화 자금 현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TF를 발족한다”며 “기업들로부터 어떤 자료를 제출받을지 검토 중이며 필요할 경우 인센티브(혜택) 등 제도 개선 논의까지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산하 국제금융국에 외환 수급 전담 TF를 설치하고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업의 환전 흐름과 해외 투자 현황을 정례적으로 점검하며 관리할 예정이다. 기업의 ‘달러 쟁여두기’로 외환시장이 위축되고 있으니 직접 들여다보겠다는 의도다. TF에선 수출 기업에 다양한 제도적 혜택을 주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달러 환전에 적극 나서거나 국내 설비 투자를 늘리는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한도를 늘리고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방안 등이다. 세제 혜택도 거론된다. 일례로 해외 자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익금 불산입) 비율을 현행 95%에서 100%로 확대하는 식이다.

복지부도 외화채 발행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무(無)부채’를 유지해온 국민연금의 채권 발행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국민연금이 직접 시장에서 달러로 채권을 발행해 ‘달러빚’을 내는 것인데, 직접 현물환 시장에서 달러를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준다.

정부는 증권사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증권사의 해외 투자 상품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 설명 의무 이행 여부, 위험 고지의 적정성, ‘빚투’(빚내서 투자)를 부추기는 마케팅 관행 등을 내년 1월까지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이런 조치를 두고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업 입장에서는 해외 투자나 원자재 수입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환전을 미루는 것인데, 이를 정부가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외화채 발행과 대해서도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채권을 발행하면 결국 그간 내지 않던 이자를 내야하는데 국민 노후를 위한 연금 수익률 극대화란 목표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현직 총리가 한은 총재와의 간담회 일정을 사전에 공개하고 만난 것도 드문 일이다. 이날 만남은 김 총리의 제안이 계기가 됐다. 이런 정부의 강도 높은 대응에도 외환시장 반응은 시큰둥했다. 이날 달러당 원화 가치는 5.4원 하락(환율은 상승)한 1472.3원에 마감하며, 다시 한번 1470원대 아래로 내려갔다.

강인수 교수는 “서학개미(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나 기업이 잘못 판단했다는 식의 접근보다는 한·미 관세협상이나 대내외 금리 차처럼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세종=김연주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왼쪽 둘째)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오른쪽)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최근 경제·금융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 총리는 “환율, 물가 안정 등 시장 안정을 위해 한은과 정부의 공조가 중요하다”며 앞으로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해 나가자고 말했다.

[사진 총리실]

이창용, 고환율 원인으로 ‘국민연금 해외투자’ 찍었다

김민석 보고 요청으로 이례적 만남 이, 해외 주식투자 비중 축소 주장

김민석 국무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9일 만났다. 이례적이었다. 그간 한은 총재는 통화정책 독립성을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과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과의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제외하고는 정부 고위 관료와 회동하는 것을 꺼려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이 총재와 새벽 7시30분부터 한 시간 가량 비공개 경제 현안 간담회를 가졌다. 김 총리는 지난주 기획재정부의 현안 보고 이후 한은에 고환율 문제에 대한 구체적 보고를 요청했다. 총리실이 기대한 건 국장급 보고였지만 이 총재가 “직접 가서 설명하겠다”고 나섰다고 한다.

이 총재는 고환율 문제의 주된 원인

을 일반적으로 지목되는 한·미 간 금리 역전 현상보다는 미국 등 해외투자에 편중된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 문제로 진단했다고 한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본부는 기금의 수익성을 고려해 올해 기준 운용액의 36.8%(486조 4260억원)를 해외주식 투자에 쏟고 있는데, 이로 인해 원화 가치 절하가 이뤄지고 있으니 해외 주식 투자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 총재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국민연금을 두는 현재의 편제가 적정한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고 한다.

이 총재는 “중앙은행의 기능을 통화 발권으로만 보는 것은 옛날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라며 한은 경제연구원의 구조개혁 연구들을 소개했다고 한다. 김 총리가 “각종 국책 연구기관들과 한은 연구원은 뭐가 다르죠?”라고 묻자, 이 총재는 “중간보고 때 기준 연

구와 같은 결론인 게 뻔하면 거기서 바로 중단하게 한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또 연구원이 지난 3월 인구 소멸 대책으로 발표한 2~6개의 거점 도시를 육성하는 방안을 거론하며 “정치적 논쟁을 고려해 6개 거점 도시 육성을 발표했지만 사실 대한민국은 큰 도시 2개면 된다”는 말도 했다.

최근 여권에선 임기가 내년 4월까지인 이 총재를 활용하는 법에 대한 설왕설래가 늘고 있다. ‘이창용 총리설’에 이어 최근엔 ‘이창용 서울시장’ 아이디어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서울 시민들은 시장에게 안정을 기대한다”며 “한은 총재를 거쳐 서울시장이 됐던 ‘조준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다른 여권 관계자는 “정치보다는 경제 관료로서 활용도가 더 크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윤지원 기자

세금 5년 퍼부었지만…‘지자체 배달앱’ 반토막 났다

〈거래액 58% 감소〉

민간 배달앱 독점을 완화하고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출시된 공공 배달앱이 ‘계륵(鶴脣)’이 되고 있다. 5년여간 정부와 지자체가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는데 여전히 민간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데다, 재정 투입의 지속 가능성에도 의문부호가 붙어서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배달 앱 이용 외식업체 중 공공 배달앱을 이용하는 비율은 2022년 9.2%에서 2024

년 19.2%로 증가했다. 공공 배달앱 수수료율은 민간 배달앱(6.8~7.8%)보다 월씬 낮은 0~2% 수준이다.

하지만 유형별로 희비가 엇갈린다.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운영해 온 공공 배달앱 실적은 나빠졌다. 경기도의 ‘배달특급’의 거래액은 2022년 1310억원에서 지난해 556억원으로 57.6% 감소했다.

같은 기간 대구시의 ‘대구로’ 거래액도 631억원에서 517억원으로 18.1%, 전북 군산시 ‘배달의명수’ 매출액은 73

억원에서 40억2000만원으로 44.9% 줄었다.

반면에 민관협력형 공공 배달앱인 ‘땡겨요’ 주문액은 551억원에서 1136억 원으로 2년새 106.2% 급증했다. 민간 배달앱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도 지난해 매출액이 각각 4조원, 1조원을 돌파하는 등 급성장하는 추세다.

공공이 민간의 혁신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광용 자

유기업원 정책실장은 “공공 배달앱은

경쟁사에 비해 입점업체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다, 앱 안정성, 자체배달시스템 부재, 배달원 연계 시스템(배달라이더 확보 불편함) 등에서 뒤쳐져 있다”며 “민간 플랫폼은 이용자 평점, 리뷰, 경쟁압력을 통해 자연스럽게 품질이 개선되지만 공공앱은 이러한 메커니즘이 약하다”고 짚었다.

최근 지자체 중 경기도가 칼을 빼 들기도 했다. 올해 62억원이던 배달특급 지원 예산을 내년 37억원으로 40% 삭감했다.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최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단순히 재정을 투입해 쿠폰을 발행하면 결국

도 재정으로 소비자에게 돈을 주는 것”이라며 “재정 지원이 늘면 이용률이 늘어나겠지만, 어디까지 이것을 해야 하는가 그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민간 배달앱의 독주는 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져 소상공인과 소비자 부담을 키울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앞으로도 공공 배달앱 육성에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올해 650억원의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해 공공 배달앱 소비쿠폰 등을 지급했다. 그 결과 올해 매출액은 증가 전환할 전망이다.

김경희 기자

김원근 변호사 재판·소송



- 민사·형사·이혼·강제집행·공사관련·세입자분쟁·비즈니스·프랜차이즈 분쟁·세금분쟁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가정폭력·범죄기록밀수·임금 연장근로수당·경업금지
- 소비자 보호법 명예훼손·자동차 교통사고·산재보험·화재보험·자동차 보험·각종 보험사고
- 기타 각종 재판 및 소송처리

도 재정으로 소비자에게 돈을 주는 것”이라며 “재정 지원이 늘면 이용률이 늘어나겠지만, 어디까지 이것을 해야 하는가 그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민간 배달앱의 독주는 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져 소상공인과 소비자 부담을 키울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앞으로도 공공 배달앱 육성에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올해 650억원의 추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추천이 꼬리를 무는 부동산

GALAXY REALTY

갤럭시부동산

★ 최근에 마켓에 올리지 않고
주인 *세입자 바로 연결한 집
(렌트 구하는 문도 활성화, 갖고 있는 집도 많음)



| | | | | |
|---------------------|--|-------------------|-----------|--|
| 주택 매매 및 렌트 | 1465 Hampton Hill Cir, McLean, VA | COMING SOON | \$1.25M | 로리가 Hampton of McLean에서 가장 많이 거래를 한 에이전트라고 소문이 나서 본인 집이 빌려 달라고 연락 옴. 2/6 마켓에 올라올 예정 |
| | 5280 Jule Star Dr, Centreville, VA | UNDER CONTRACT | \$689,000 | 손님이 꼭 원하는 지역의 차고 1 터운 홈, 경쟁률 높고 득템, Buyer So Happy |
| | 8110 Squirrel Run Rd, Springfield, VA | SOLD | \$625,000 | Seller가 원하는 조건으로 팔. 45일 만에 Rent Back은 보너스. 로리는 파는 것도 잘 함. Seller So Happy. 11/24 세틀먼트 완료 |
| | 1477 Hampton Hill Cir, McLean, VA | SOLD | \$1.32M | 복수 오피 반기 경쟁시켜 리스팅 가격보다 2만불 더 받음. Seller So Happy |
| | 6758 Brook Run Dr, Falls Church, VA | SOLD | \$775,000 | 집 시장마지 주재원 청약 렌트 완료 |
| | 16309 Sandy Ridge Ct, Woodbridge, VA | SALE | \$970,000 | 10/21 세틀먼트 완료 |

DC 내 위치 좋은 장사 잘 되는 곳이나 은퇴 예정 사업을 하면서 투자용 집. 두 번째 집 살 때 다음 페이먼트 지원할 정도로 안정된 수입

| 주소 | 기간 | 세입자 |
|---|-------------------------------|--|
| 을 거울/내년 봄에 파견 나를 주재원 30여명 있음, 렌트 높을 집 갖고 있는 집 주인 협연 | 10월~ 내년 1월 입주 예정 | \$2,000 ~ \$5,500 가격대 렌트 |
| 1423 McLean News Ct, McLean, VA | 바로 입주 가능 | \$5,500 집 전체 업그레이드 된 차고 1 터운 홈, 방 3, 화 3+1, 카펫 암말, 풍情景로우 중/클린 고등 |
| McLean, One Park Crest 콘도 | 바로 입주 가능 | \$4,000 |
| 6518 Alexis Ln, Springfield, VA | 바로 입주 가능 | \$2,700 방 2, 화 2, 지정 차고, Springhill ES, Longfellow MS, McLean HS |
| Centreville, VA | 12/20 입주 가능 | 차고 1 터운 홈, 클린 고등 |
| 6605 Anthony Crest SQ, McLean, VA | 12월 말 입주 가능 | \$4,800 맥클린에서 유입하게 수영장 있는 차고 1, 터운 홈, 방 4, 화 3+1, 풍情景로우 중/클린 고등 |
| 7606 Jervis St, Springfield, VA | 1/1 입주 가능 | \$3,200 집 전체 Renovation 된 차고 1, 싱글 홈, 고등 |
| Vienna 테이스 옆 Amberwood 테이스 단지 3세 | 현재는 12/20일, 두세는 1/1일 입주 가능 | \$4,600-\$4,800 차고 2 터운 홈, Greenbom 앤 Westnair 초등 학교 가깝 수 있는 차고, 집 상당 아주 좋음 |

일 년에 80~100여 주재원 렌트 구해 줌

사무실 [703] 622-0312 직통 [703] 625-9909

1952 Gallows Rd. #102, Vienna, VA 22182
(타이슨 DMV 옆, 한미과학재단 1층)

로리 정
갤럭시부동산 대표 에이전트



'삼성 반도체 신화' 권오현의 일침

성공의 저주 간힌 한국 중국을 양보지 마라

권오현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열린 2025 미래전략 콘퍼런스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시험 문제가 바뀌었다. 체점 방식도 바뀌고 옆자리 수험생도 달라졌다. 그런데 한국만 모른다. 반도체 '조격자'를 일궈낸 권오현 전 삼성전자 회장의 진단이다. 그는 "한국은 중국을 여전히 간과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의 성공 방식은 유효하지 않아 전방위 개혁이 필요하며 그 시초는 사립"이라고 강조했다. 8일 오전 서울대 자연과학대학 과학기술산업융합최고전략과정(SPARC) 총동창회 학술포럼에서다. 권 전 회장은 1985년 삼성전자에 연구원으로 입사해 2008년 반도체총괄 사장, 2012년 삼성전자 대표이사에 올랐다. 2017년 삼성전자 인텔을 제치고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에 오르자 일선에서 물러난 뒤 삼성종합기술원 회장을 역임했다.

권 전 회장은 "한국은 성공의 저주에 갇혔다"고 직격했다. "한국이 이 정도 성과를 낸 건 인류 역사에서 기적 이지만 성공은 거기에 안주하는 기득권을 낳았고, 정치·경제 제도가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권 전 회장은 한국이 직면한 최대 변수로 '정부 주도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중국을 꼽았다. 그는 "반도체·철강·조선·휴대폰 등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 중

중국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나라
한국의 최대 변수인데 여전히 간과

가장 큰 개혁 대상은 규제 시스템
미국처럼 '네거티브'로 전환해야

'똑부' 리더들, 지금은 비효율 원인
몸 아닌 머리가 부지런히 생각해야

한국에서 만든 건 하나도 없다"며 "선진국이 만든 걸 한국이 가져와 훨씬 값싸고 좋게 만든 건 대단하지만 부가가치가 떨어지고 있다"고 했다.

가장 큰 개혁 대상은 '규제 시스템'이다. "미국은 안 되는 것을 빼고 다 되는 '네거티브' 시스템인데, 한국은 해도 된다고 정한 것만 하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이며 "이런 식으로는 모범생은 키울지 몰라도 새로운 발상이 안나온다. 이게 한국이 정권마다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권 전 회장의 『다시, 조격자』 출간을 앞두고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 권 전 회장은 '똑똑한 리더'의 개념부터 다시 정의했다. 기존 한국 리더들은 대개 '똑

부'(똑똑하고 부지런함)였으나 이제 지금 비효율의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그는 "인간보다 기계가 더 지식이 많으므로 지식보다 '지혜'가 많은 똑똑함"이 필요하고, "주말에 애쉬며 몸이 부지런한 게 아니라 '머리'가 부지런히 생각해야 한다"고 '똑부'를 새롭게 정의했다. 회사 최고경영자(CEO)가 대학의 기초 연구자와 만나 토론하고, 다른 분야 사람들에게 영감을 얻는 일이 자주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상사들이 옛날식으로 자주 직원을 불러 회의하고 자료를 준비시키니 기업의 유능한 인재들이 생각할 시간이 없다"고 지적했다.

권 전 회장은 스타트업 창업자를 위한 조언으로 "이 사업으로 무엇을 하려는지 뚜렷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병철 삼성전자 창업자의 '사업보국(事業保國, 사업으로 국가에 기여한다)'이나 일본 마스크 테슬라 창업자의 '화성개척' 같은 단순하고 명확한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경영인에게는 "오너가 준 임무를 잘 수행해 신뢰를 얻는 게 먼저"라며 "결정적인 때 오너를 설득해 사업 전략을 관철시키는 '회심의 한방'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심사현 기자

AI시대, 80년대생 리더 온다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이 기업의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면서 80년대생 '젊은 리더'들이 경영 일선에 배치되고 있다. 왼쪽부터 정기선 HD현대 회장, 최윤정 SK바이오팜 전략본부장, 신유열 롯데바이오로직스 대표, 하태홍 GS퓨처스 대표.

[사진 각자]

기업, CEO·상무 등 젊은 임원 발탁

농심·삼양식품에 90년대생 임원도
"AI·신규사업 추진, MZ와 소통도"

윗세대 용퇴 이끄는 메기 역할도

정기선(43) HD현대 회장은 재계 10대 그룹 중 유일한 1980년대생 총수다. 그는 경기도 판교 사옥 20층 집무실까지 직원들과 함께 공동 엘리베이터로 출퇴근한다.

집무실은 43m²(약 13평) 규모다. 구내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식사하고, 의미 있는 행사에 '커피차'를 쏘기도 한다. 회사 유튜브에도 단골로 출연하는데, 지난 10월 회장 취임 직후 임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한 약속("언제 어디서든 여러분과 만나 경험하고 소통하겠다")을 지키는 행보다.

연말 재계 임원 인사에서 총수 3~4세 최고경영자(CEO)부터 신임 상무까지 80년대생이 주목받고 있다. 과거에는 최신 유행에 민감한 유통업체에서 주로 젊은 인재를 발탁하곤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제조업까지 업종을 불문하는 추세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최고인사책임자(CHRO)를 지난 한준기 동명대 부산국제대 교수는 "연말 인사에서 기업마다 '비상경영'을 강조하며 전체 임원 자리를 줄이는 '칼바람'이 불었다"면서 "여전히 70년대생 임원이 주류지만 80년대생 젊은 임원의 발탁이 두드러졌다"고 평가했다.

특히 재계에선 80년대생 총수 일가가 전진 배치됐다.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의 장녀 최윤정(36) SK바이오팜 사업개발본부장을 전략본부장으로 선임했다. 전략본부가 회사의 핵심 의사결정 기능을 맡는 만큼 그룹 경영에 한발 더디겠다는 평가다.

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의 장남 신유열(39)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부사장)을 롯데바이오로직스 대표로 발령

했다.

이 밖에도 구자열 LS 이사회 의장의 장남 구동휘(43) LS MnM 부사장이 사장에 올랐다. 하진홍(40) GS건설 상무는 부사장, 하태홍(40) GS퓨처스 상무는 대표로 각각 승진했다. 신상열(32) 농심 부사장, 전병우(31) 삼양식품 전무 등 90년대생도 눈에 띈다.

일반 임원 인사에도 80년대생 바람이 불었다. 삼성은 최근 임원 인사에서 1985년 이후 출생한 임원 비중이 15%로 나타났다. SK는 80년대생이 20%였다.

한화는 최근 4개 계열사 임원 승진자 14명 중 5명, CJ는 신규 임원 45%가 각각 80년대생으로 집계됐다. 회사마다 "젊은 인재를 전진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4대 그룹의 한 부사장은 "젊은 총수는 과거와 달리 실시간 메신저로 보고 받고 바로 결론을 내리는 업무 처리 방식을 선호한다"며 "80년대생 임원의 기동력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승진자 면면을 보면 과거 고속 승진의 보증수표였던 재무나 기획, 전략 부서 대신 인공지능(AI), 로봇, 차세대 통신 등 첨단기술 분야 연구개발(R&D) 인력이 많았다. 한 10대 그룹 인사담당 임원은 "80년대생 임원은 '디지털 네이티브'인 데다 글로벌 경험과 기술·서비스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많다"며 "기업마다 화두인 AI 전환을 가속하고 MZ(1980~2000년대생) 세대 직원과 소통, 미래 먹거리 중심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포석"이라고 설명했다.

80년대생 임원 선임 자체가 '쇄신'의 신호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삼성전자 인사팀장(전무)을 지난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은 "연공서열이 강한 문화에서 80년대생 임원을 앞세워 세대 교체를 위한 '메기' 역할을 기대할 뿐 아니라 자연스레 윗 세대 임원들을 용퇴(勇退)로 이끄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기환 기자

전체인구 0.1% 늘 때, 외국인·귀화자 5% 늘어났다

(이주배경인구)

지난해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 20명 중 1명은 외국인이나 이민 2세 같은 '이주배경인구'였다. 8일 국가데이터처는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이주배경인구는 271만5000명이라고 발표했다. 1년 전보다 13만4000명(5.2%) 늘었다. 이주배경인구는 본인 또는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이주 배경을 가진 사람을 뜻한다. 국내 3개월 이상 거주 중이지만 한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과 귀화·인자, 이민자

2세, 탈북민 등 한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을 합쳤다. 이주배경인구가 집계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의 전체 인구(5180만6000명)에서 이주배경인구 비율은 5.2%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늘었다.

지난해 전체 인구가 0.1% 증가하는 동안, 이주배경인구가 5.2% 늘면서 고, 이민 2세 등 내국인은 67만2000명

(24.8%)이었다.

이주배경인구 중 81.9%(222만3000명)가 한창 경제활동을 하는 15~64세(생산연령인구)였다. 김서영 데이터처 인구총조사과장은 "한국 종인구 중 생산연령인구가 70%, 고령인구가 19.5%인 것에 비해 이주배경인구의 연령 구성이 젊다"며 "최근 고용허가제 확대가 취업 인구 유입 측면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안효성 기자

NVAR Top Producer
Zillow Premier Agent
Top 15% Nationwide Agent by Homesnap

방5/화4.5/차고3, 1.05 에어컨

새 지붕, 새 HVAC

\$1.5M

방5/화4.5/차고3, 1.05 에어컨

새 지붕, 새 HVAC

SOLD

방5/화4.5/차고3, 1.05 에어컨

새 지붕, 새 HVAC



LOVE HAND
Home Health & Adult Daycare

먼길, 험한길, 언제나 한결같이 묵묵히 손잡아 주는 사랑손이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 간병사 그리고 직원들, 모두가 만족한 회사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 데이센터에 가족의 돌봄을 맡겨주세요.

은혜안에 한행복, 한소망을 나누는 곳!! 섬김이 무엇인지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메디케이드 (Medicaid) 신청이 필요하세요?
롱텀케어(Long-Term Care) 신청이 힘드세요?

러브핸드 홈헬스의 전문 상담사가
신청부터 성실히 도와드립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간병인이 필요하세요?
은혜와 사랑으로 섬기는 러브핸드 홈헬스의
간병사분들이 여러분을 섬깁니다.

편법이 없는 간병회사를 찾고 있으세요?
원칙의 신념 러브핸드 홈헬스에 전화하세요.
저희는 원칙과 법을 준수합니다.

사랑의 섬김이 넘치는 러브핸드 시니어데이케어

- 버지니아 주정부 및 메디케이드로부터 인가 된 시니어 데이케어
-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프로그램 구성
- 그리운 맛과 건강을 생각한 집밥으로 아침 및 점심 식사, 그리고 영양 간식 제공
- 의사 방문시 교통편 제공
- 메디케이드 혜택
- 친절한 간호사와 함께하는 수시 건강 체크 및 상담
- 취향에 맞춘 즐거움과 편리함을 주는 각종 시설 완비
- 일반 회원은 소정의 회원비로 센터 이용 가능
- 서류 번역 및 작성 등 제반 쇼설 서비스 제공

사랑의 돌봄이 있는 러브핸드 홈헬스

- 버지니아 주정부 및 메디케이드로부터 인가 된 전문 간병 서비스
- 노인성 치매, 장애우 전문 간병
- 메디케이드 혜택
- 개인 부담 환자 최저 부담 상담
- Skilled Nurse 서비스
- 방문 물리치료 서비스

직원 모집

* 회사 성장으로 인해 일할 더 많은 인재를 모집합니다.
* 문의: admin1@lovehandhomehealth.com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문의 및 상담

703-657-0944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데이케어 / 챔틀리
Love Hand Home Health &
Senior Daycare/Chantilly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703) 657-0944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데이케어 / 뉴포트뉴스
Love Hand Home Health &
Senior Daycare/ Newport News
716 Denbigh Blvd., Suite E-1
Newport News, VA 23608
(757) 527-4140

우리말 바루기

‘하릴없다’가 ‘할일 없음’?

영화 ‘어쩔수가없다’에서 만수(이병헌)는 취업에 목숨을 걸었다. 그렇지만 희망을 안고 찾아간 ‘문재지’에서 굴욕만 맛본다. 만수는 다시 결심한다. “나를 위한 자리가 없다면 내가 만들어서라도 취업에 성공하겠다.” ‘어쩔수가없다’는 듯이. ‘하릴없다’는 듯이.

혹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여기서 ‘하릴없다’는 “할 일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달리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는 의미다. “어쩔 수가 없다”와 거의 같다. 일상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지만 소설이나 에세이 같은 글에서는 어쩌다 접할 수 있다. 때론 사회적 무력감이나 고립감 같은 상황을 묘사하는 장면에서도 나온다.

“쟤네 알거지가 되어 여덟 식구가 하릴없 이 쪽박을 칠 수밖에 없었다.”(송기숙 ‘녹두 장군’) 소설 ‘녹두장군은 조선 후기 부패한 관리들의 혹독한 수탈과 농민들의 빈곤을 보여준다.

작가는 피할 방법이 전혀 없고, 어찌 해 볼 도리가 없음을 ‘하릴없다’로 나타냈다. 여덟 식구가 밭벼도 못 치는 무력감과 고립감을 ‘하릴없다’는 말로 전했다. 수탉 앞에서 그들은 죽거나 ‘하릴없이’ 일어서야 했다. 소설 ‘태평천하’의 ‘하릴없이’는 문맥상 ‘틀림 없이’ ‘영락없이’와 통한다. ‘하릴없다’는 이렇게 ‘조금도 틀림이 없다’는 뜻도 가지고 있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w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①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 · 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홍암범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w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재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지난 10월 말부터 약 한 달간 한국에 다녀왔다. 매년 세미나와 특강 참석차 한국을 방문하지만 이번에는 안식년을 맞아 장기간 체류하면서 많이 달라진 한국의 모습과 문화를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었다.

서울대, 이화여대, 서강대 등 수도권 대학은 물론 전남대, 대구대, 그리고 부경대 특강을 하면서 대한민국 전국에 다녔는데 달라진 한국의 모습에 새삼 놀랐다. 우선 특강에 참석하는 학부생들의 숫자가 크게 줄었다. 학부생들이 외부인사 특강에 관심이 거의 없다고 한다. 주로 대학원생과 교수들이 특강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학가의 모습도 많이 변했다. 학생들이 모여서 대화를하고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우정을 쌓던 모습은 완전히 없어진 듯하다. 대학가 앞 식당에는 혼밥, 혼술하는 학생들만 보인다. 서로 대화하는 모습이 없다. 대학가의 활기찬 모습이 사라지는 듯해서 놀랍고 한편 아쉽다.

밤 문화도 완전히 달라졌다. 예전에는 저녁 식사하면서 한잔하고 곧이어 2차, 또는 경우에 따라 3차까지 했는데 이제는 그런 모습은 거의 사라졌다. 저녁 식사 시간에 손님이 많이 없고 한적한 모습만 보인다. 지인들과 저녁 식사하면서 텅 빈 식당에서 우리만 식사한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다. 아주 유명한 식당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저녁 식사 시간에 손님이 거의 없다고 한다.

낮선 한국, 아쉬운 그 시절



장태한
UC리버사이드 교수
김영옥재미동포연구소장

젊은이들은 회사에서 회식하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고 한다. 직장 회식 문화는 거의 사라진 셈인데 저녁 8시가 넘으면 지하철 또는 버스가 텅 빈다. 예전에는 엄청 붐비던 시간인데 저녁 8시가 넘으면 사람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아파트 주차장이 저녁 8시만 넘으면 만원이어서 주차 공간을 찾기도 쉽지 않다고 한다.

또 상당수의 식당들에서 직원들이 주문을 받지 않는다. 키오스크로 직접 주문하는 경우가 많다. 키오스크 사용이 어려운 시니어들은 식당에서 음식 먹기도 힘들어졌다. 일부 식당에서는 로봇이 음식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

손을 들어 택시를 잡던 모습이 사라진지도 이미 몇년 되었다. 키카오 택시 앱을 설치하지 않으면 택시를 탈 수가 없다. 대부분의 택시들이 예약 등을 켜고 다닌다. 손을 들어 타려고 해도 거의 서지 않는다. 앱을 설치하고 미국에서 미리 인증하고 가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어서 해외동포들은 택시 타기도 쉽지 않다.

달라지지 않은 모습도 있다. 바로 배수구에서는 악취인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한다. 배수구가 자주 막히기 때문에 미국처럼 U턴 배수관을 설치하지 않고 직선 배수관을 설치해서 밖으로 냄새가 배출된다고 한다. 법으로 제정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건설사들의 반대로 쉽지 않다고 한다.

강형원 전 LA타임스 사진기자와 만나 대화를 나누다가 미훈모 출생신고 문제가 나왔다. 예전에 미훈모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고 한다. 즉, 혼인 신고를 한 부부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어 미훈모들이 갓난아기들을 버리거나 해외입양을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해외 입양 1위 국가가 된 것이다. 지금은 미훈모도 출생신고가 가능하나 제도적으로 쉽지는 않다고 한다.

서울역에 가면 소음이 매우 심하다. 대부분 선교 활동인데 확성기를 사용해서 큰 소리로 외치고 찬송가를 크게 틀어서 매우 귀에 거슬린다. 그럼에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서인지 모르겠다.

모교인 인천고등학교 졸업 50주년 행사에도 참석해서 반가운 친구들의 얼굴들도 많이 볼 수 있어서 기뻤다. 어찌면 대부분의 친구들은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제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면서 급변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에 놀랍고 한편 정이 사라지는 사회가 되는 것이 아쉽다.

음식과 약

스트레스에 대한 치명적 오해



정재훈
약사·푸드라이터

우리는 스트레스에 대해 잘못 알고 있다. 흔히 스트레스라고 하면 직장 상사의 잔소리나 입시 압박 같은 정신적 부담만을 떠올린다. 하지만 생물학에서 말하는 스트레스의 범위는 훨씬 넓다. 내 몸의 생존 균형, 즉 항상성을 깨뜨리는 모든 자극이 곧 스트레스다.

그러니 시험이나 인간관계만 스트레스가 아니다. 수면 부족, 감기 바이러스의 침입, 수술, 겨울 철 매서운 추위도 몸에는 강력한 스트레스다. 몸은 이 비상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코르티솔 같은 방어 호르몬을 쏟아내며 사투를 벌인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난 한 해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연말 파티는 조금 모순적이다. 시끌벅적한 분위기와 기름진 음식으로 잠시 즐거울지 모르지만, 오장육부의 입장에서 연말 회식은 가혹한 신체적 스트레스의 현장이다. 특히 추운 날 과식은 몸에 커다란 부담을 주는 행동이다.

이유는 복합적이다. 우선 겨울의 낮은 기온은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높인다. 몸은 추위라는 스트레스와 싸우느라 교감신경이 잔뜩 날 서 있는 상태다.

여기에 고지방·고칼로리 안주가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면 몸의 부담은 더 커진다. 소화를 위해 위장으로 가는 혈류가 크게 늘어나고, 동시에 체온을 유지하고 전신에 혈액을 순환시키기 위해 심장은 더 빠르고 강하게 뛰어야 한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한 번의 과식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성질환자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 무리해서 일하는 심장 근육에 평소보다 더 많은 산소와 혈액이 필요한데, 이미 좁아진 관상동맥 뒷에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심장에 탈이 나는 것이다.

미국심장협회(AHA)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과식 후 2시간 동안 심근경색(심장마비) 위험이 평소보다 약 4배나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17개 연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격렬한 신체 활동, 식사, 정서적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을 유발하는 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과식은 정신적 스트레스나 격렬한 운동처럼 심근경색의 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 비만, 운동 부족, 흡연과 같은 위험요인을 가진 사람에게는 더 위험하다.

여기에 술까지 더해지면 대사적 스트레스가 완성된다. 간은 알코올이라는 독소를 분해하기 위해 다른 대사 기능을 미루고 비상 체제에 돌입 한다. 정신적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마신 술이 간에는 야근을 넘어선 철야 근무를 종용하는 셈이다.

그렇다고 송년회를 모두 취소할 수는 없다. 하지만 몸이 겪을 스트레스의 총량을 줄여줄 수는 있다. 천천히 여유를 두고,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부터 먼저 먹으면 포만감을 늘리고 과식을 피할 수 있다. 술잔은 줄이고 대화는 늘리자. 모쪼록 연말 모임이 몸과 정신에 모두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황계실 571-239-6054

**고객만족 17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건물·오피스·창고·상가**



**부동산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 | |
|---|--|
| 1. 센터빌 벽돌 타운 | SOLD \$589,000 |
| 2. 애쉬번 타운 | \$660,000 |
| 3. 맥클린 콘도 | \$389,000 |
| 4. 스텔링 타운 | SOLD \$645,000 |
| 5. 게이스빌 골프 싱글 | SOLD \$1,060,000 |
| 6. 빌더 새집 구매 확실히 도와드립니다 Sold Pending | 1. Haymarket 55+ Villa \$670,000 2. Bristow 55+ singl \$750,000 3. 매너시스 2025 새집 \$670,000 방3, 화3.5, 치고 2 |
| 7. 우드브리지 싱글 | SOLD \$649,000 1997년, 방4, 화3.5 치고 1, 치고 학군, 전부 리모델링 포트폴리오/RTH, RT1, RT24, 디시출근 편리 |
| 8. 도미니언 밸리 컨트리 클럽 헤이마켓 싱글 | \$1,699,000 1애이커 숲속, 6,700sqft, 방5, 화5.5, 치고 3, 선별, 고급 조명, 트레이 천장, 스파 워시, 드레스룸, 인로우 스위트, 미더룸, 개인룸, 바포함, 최신 HVAC, 정수 시스템 |
| 9. 센터빌 타운 | \$499,000 2017 리모델링 방3, 화3.5, 1,740sqft, 치하 1bath, 워크아웃, 브레이크, 28.66.29 교통요지 OPEN HOUSE 12/14/25 1pm~3pm 13943 Preacher Chapman Pl, Centreville, VA 20121 |

김철민

함동법률사무소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히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약력

- 조지타운 법과대학원
- 미국 연방의회 연수 (House of Representative)
- United Nations, Research Fellow (UNU Headquarters, Tokyo, Japan)
- Kotra 해외진출기업 자문변호사
- ICSC (Int'l Council of Shopping Centers) Member
- Redcliff Partners 고문변호사
- 이민, 투자, 상법 전문변호사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완벽한 Team-Work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최선을 다해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취업/가족초청이민
- 종교비자/이민
- E2 비자/투자이민
- 비자변경 및 연장
- 강제추방문제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 국제협작투자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 사업체 매매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부동산 투자 개발

대표 703-973-8700 | 7700 Little River Tw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 예촌 앞 빌딩 3층

“1년 지났는데 처벌 0, 원인규명 전무…유족들 피눈물 흘려”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가 오는 29일로 1년을 맞는다. 항공사고 특성상 가족들이 유명을 함께 한 경우가 많아 비극성이 더하다. 그러나 참사 원인 규명과 책임자 문책은 전혀 이뤄진 게 없다. 유족들이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삭발하고 릴레이 시위를 하는 이유다. 참사 유가족 협의회 상임이사인 김성철(53)씨도 아내와 팔을 동시에 잊었다. 지난 7일 대통령실 앞 시위에 나선 김 이사가 만났다.

“줄초상 유족 많아…18명 숨진 집도”

- 어떻게 시위에 나서게 됐습니까?

“참사 1년인 오는 28일까지 희생자 수에 맞춰 179일간 모든 유가족이 돌아가면서 시위하고 있습니다. 마침 오늘(7일)이 숨진 맘딸의 생일이라 이날을 택해 시위하러 올라온 거죠. 1남 1녀를 뒀는데 이젠 아들만 남았습니다.”

- 가족을 돌아나갈 때마다 슬픔이 오족 하시겠습니까?

“희생자가 돌아온 유족은 평균입니다. 세 명에서 다섯 명은 분들이 많고 18명을 잃은 유족까지 있습니다. 부모님 팔순을 기념해 온식구가 여행 갔다변을 당한 겁니다. 부부 여행객이 많았으니 아이들만 남은 집도 많고, 아이들끼리 여행 갔다변을 당해 악상을 치른 집, 남편이나 부인들끼리 여행 갔다가 홀아비·과부가 되신 분들도 많습니다.”

- 시위에서 요구하는 핵심은요?

“참사 조사 기구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가 우리 유족들에게 정보를 전혀 공개하지 않아요.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참사인데 1년이 지나도록 처벌된 사람 하나 없고 원인도 규명된 게 전무예요. 경찰도 9개월 동안 잠잠하다 썩 달 전부터 지금까지 관련자 40여명을 기소도 아니고 입건한 게 전부입니다.”

- 어안이 벙벙합니다.

“꼬리 날개 등 사고기 파편들이 1년 째 무안공항 내 공터에 방수포만 씌워 놓은 채 방치돼 있어요. 유족들이 3주 전쯤 시신의 일부라도 발견될까 해서 파편들 조사를 요청한 끝에 국립과학수사 연구원에서 20명쯤 와 정밀 검사를 하기로 했어요. 한데 검사 당시 항철위가 현장에 기자들 접근을 막고, 유족들에게 ‘파편은 볼 수만 있고 활용은 안 된다’고 해요. 이유를 물으니 ‘활용하면 오염이 된다’는 겁니다. 어머니 유족들이 격분해 ‘1년간 허허벌판에 파편을 방치한 건 항철위 아니냐. 파편에 시신 일부라도 있으면 그야말로 오염됐을 것 아

느냐’고 따졌어요. ‘활용이 안 된다면 파편내역 리스트라도 보여달라고’ 하니까 ‘없다’는 거예요. 파편 내역 조사 한번 안 했으면서 무작정 ‘활용하면 오염된다’ 라니 어이가 없었죠. 결국 검사는 무산됐습니다.”

- 항철위는 당초 4일과 5일 중간보고 성격의 공청회 개최를 추진했는데 유족들 반대로 연기했는데요.

“항철위는 공청회에서 ▶조류(버드 스트라이크) ▶방위각 시설·둔덕(로컬 라이저) ▶기체·엔진 ▶운항 등 총 4개 주제별로 조사 내용을 설명하고 유족들을 대표한 전문가들과 논의할 예정이었는데요. 그러려면 유족 측 전문가들이 조사 내용을 어느 정도 알아야 공청회에서 토론이 되잖아요. 그래서 항철위에 ‘1차 조사 개요라도 달라’고 하니 ‘못 준다. 공청회 현장에서 주겠다’고 해요. 유족은 공청회에서 질문을 못 하게 법에 규정돼 있어 전문가들이 대신 문 도록 한 건데 이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공청회장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말이 됩니까. 또 조류와 둔덕은 이미 지난 7~8월에 용역 보고서가 나왔다고 합니다. 유족들이 그때 조사 내용을 달라고 했는데 또 ‘오염된다’며 못 준다는 겁니다. 조달청이 조사했으면 공개가 되는데 이 건은 유독 모 연구소에 수의계약을 준 것이라 접근도 못 해요. 유족들이 항의하니까 ‘공청회 때 발표하겠다’고 해요.”

“분노한 유족 6명, 자진 사퇴”

- 그래서 유족들이 공청회를 거부했군요.

“저를 포함해 6명이나 삭발하며 항의한 끝에 연기된 거죠. 항철위는 독립기구라고 주장하지만, 인사권을 국토부가 갖고 월급도 국토부에서 나와요. 사무국장부터 국토부에서 파견된 인사입니다. 국토부 책임을 묻는 기구가 국토부 하부조직이니 말이 되나요. 지난 6월 이재명 정부로 바뀌면서 유족들은 항철위 행태가 달라질 거로 기대했는데, 변하게 전혀 없어요. 결국 국토부 내 카르텔이 문제의 본질 아닌가 합니다.”

- 그동안 항철위가 유족들에 해준 것은요?

“형식적인 간담회 정도밖에 없어요.

항철위는 늘 하는 말이 유가족과 10여회

넘게 소통했다는 것인데, 실은 ‘조사가

총 16단계인데 지금은 몇 번째 단계’라

는 얘기나 해주는 수준입니다. 조금이라

도 내용을 내놓은 건 지난 7월 엔진 조사

결과인데 그때 항철위는 ‘조사가 엔진

을 끈 게 사고의 원인’이라며 기자회견



7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김성철씨는 삭발한 머리 위에 모자를 쓰고 시위에 임했다. 그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최소한의 자료조차 공개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오염된다’는 주장만 하니 유족들이 대통령실 앞에서 삭발하고 릴레이 시위에 나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참사 원인을 투명하게 규명하고 책임자 문책을 제대로 해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김경록 기자

179명 숨진 참사…40여명 입건이 고작 항철위, ‘오염된다’며 자료 감추기 급급 고아 유족들, 상속세 폭탄 맞을 우려 커

을 열고 조종사 과실로 몰아가려 했어요. 유족들이 격하게 항의해 회견은 무산됐고 항철위는 나중에 국회에서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정정했죠.”

- 지난 7월 항철위가 사고기 엔진 조사 결과를 발표하리다가 중단된 이유군요.

“그렇죠. 손상은 오른쪽 엔진에 많았는데 조종사가 실수로 왼쪽 엔진을 끄는 바람에 양쪽 엔진이 다 정지돼 참사가 났다고 항철위는 주장했어요. 그러나 어차피 왼쪽 엔진도 손상된 만큼 엔진을 끈 것이 결정적 원인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새떼 충돌과 관제 시스템 등도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겁니다. 특히 외국 전문가들이 지적한 대로 다른 나라 공항에서 찾기 힘든 둔덕형 시설물이 활주로 끝에 있던 점은 반드시 주요 원인으로 다뤄졌어야 합니다. 그 구조물에 사고기가 충돌한 끝에 폭발한 것 아닙니까? 항철위나 국토부가 그건 쏙 빼고 조종사 실수가 유일한 원인인 양 몰아가니깐 유족들이 분노한 거죠.”

- 둔덕형 시설물을 주요 원인으로 보는 이유는요?

“2007년 무안 공항 건설 당시 방위각 시설물이 항공 안전 구역에서 276m밖에 떨어져 있지 않게 설계됐으니 이전해 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구조

물 건설 당시엔 내부에 없던 콘크리트가 이후 누군가에 의해 설치됐어요. 이후 콘크리트가 문제로 지적됐지만 매년 유아무야 넘어가다 참사 전 해인 23년에도 지적이 되자 콘크리트를 제거하는 대신 그 위에 더 보강해버린 거예요. 이러

니 참사가 난 것이라 유족들은 생각합니다. 누가 이런 결정을 하고 결재를 했는지 공문서에 다 나와 있을 텐데 국토부는 이 얘기만 나오면 답변을 피합니다.

2007년 공항 설계 때부터 지난해까지 구조물과 관련해 결재한 관리들이 수십 명 될 텐데 구조물이 사고 원인으로 판명 나면 줄줄이 책임을 지게 될까봐 그런 것 아닐까 합니다. 한달 전쯤 유사한 구조물이 설치된 국내 공항들에 대해 국토부가 권고사항을 발표했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것 치워달라’는 겁니다. ‘둔덕 구조물을 치워달라’고 하면 자신의 책임을 자인하는 격이 될까봐 이렇게 에둘러서 표현한 듯해요. 이밖에 국토부나 항철위는 179명의 사망원인을 ‘화재’에서 찾으며 ‘동시에 숨졌다’고 하

는 분위기인데 이것도 문제예요.”

“179명 사망 시점이 똑같다? 경악”

- 왜 그런가요?

“유족들은 참사 원인을 구조물과의

충돌로 인한 기체 폭발로 보는데 ‘화재’라고 모는 것부터 문제고요. 또 화재가 발생해도 179명이 동시에 숨질 수는 없습니다. 몇 초 간격이라도 사망 시점이 달리지죠. 그런데 항철위 측이 내놓은 사망 시점은 전원이 똑같으니 말이 안 됩니다. 이로 인해 부모가 다 숨져 고아가 된 유족들은 상속세 폭탄을 맞게 된 점도 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먼저 숨지고 어머니가 몇 초 뒤 숨겼다면 아버지 재산이 어머니에게 상속되면서 수억 원의 공제 혜택이 생기는데, 부모가 동시에 숨겼다면 그 혜택이 없어져 고아 유족들의 상속세 부담이 급증한 끝에 집을 팔아야 하는 처지에 몰립니다. 부모 잊고 집까지 잊어 피눈물 흘리는 신세가 되죠. 민주당 의원들에게 호소했더니 ‘안타깝지만, 부모 동시 사망의 경우 상속세 폭탄 피할 길이 없다’고 하니 큰일입니다.”

- 집권당 입장에선 특히 텃밭에서 일어난 참사이니 신경을 썼을 듯한데요.

“민주당이 신경을 썼죠. 참사 서너 달 만에 특별법이 만들어졌는데 상당히 빠르게 입법이 된 거라 하더군요. 근데 그 분들은 이걸로 다 됐다고 생각한 듯해요. 참사 당시 계엄 정국이었고 이후 탄핵과 대선 등 큰일이 이어지다 보니 언론의 관심이 적었던 것도 안타깝죠. 늦었지만 최근 정부가 유족들 항의를 받아들여 항철위를 국토부에서 종리실로 이관시킨 만큼 객관적 조사가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 유족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대부분 무안공항에서 텐트 치고 생활하며 순번을 정해 상경해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1주일에 6일을 공항 라운지에서 살고, 하루만 집에 가서 빨래를 해결합니다. 부모 잊은 미성년자와 대학생 유족이 10여명 되는데, 트라우마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족회에선 그들의 후견인들을 통해서만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방송 기자였던 딸을 잊은 60대 남성 유족이 돌연 숨져 슬픔이 더하죠.”

- 돌아가신 가족 얘기 좀 해주시죠.

“아내와 딸(당시 26세)은 다 사회복지사였어요. 군에 간 대학 2년생 아들(22)이 내년 초 제대하기 전 모녀가 베트남 여행 다녀오는 길에 변을 당한 거죠. 저는 안전화업체 연구소에서 근무해 있는데 참사 이후 일이 순에 안 잡혀 그만두고 유족회 이사를 맡은 겁니다. 아들에게 미안하죠. 한참 친구들과 어울릴 나아저녁 시위하고 있습니다.”

강찬호 논설위원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 65세 되시는 1960년생 신규 가입신청과 가입
- / Part C (HMO/PP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메디케어 DSNP 특별 보험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타주 전입, 직장 퇴직 후 메디케어 신청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Tel: 571-225-0110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Penn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과정 수료
- ◇ 한국, 미국에서의 27년 임상경력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www.naturadent.net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시설**정동영 장관과 미국의 대북 엇박자...한·미 공조 문제 없나**

최근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만나 대북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북한과의 협상 재개를 위해, 또 협상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대북 제재는 유지·강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 대사대리가 대북 제재 관련 주무 부처가 아닌 통일부 장관을 만나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은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정 장관이 현 정부 출범 이후 대북 협상 재개를 위해 한·미 연합훈련 조정, 9·19 군사합의 복원과 함께 제재 무용론 등 대북 유화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정 장관은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바이 든 정부 당시 이뤄진 (한·미) 군사훈련 증거와 9·19 군사합의 파기는 극복 대상’ “제재와 대북 강압 정책 속에서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됐다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대사대리가 직접 정 장관을 만나 미국의 입장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 대사대리가 면담에서 대북 협상력 제고를 위해 한·미 간 ‘긴밀히 조율된 메시지’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은 정 장관에 대한 속도 조절 주문으로 읽힌다.

미국은 지난달 트럼프 2기 들어 첫 대북 제재를 발표했다. 김 대사대리가 밝힌 대로 북한 비핵화 협상에서 대북 제재는 여전히 유용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피스 메이커’, 한국은 ‘페이스 메

이커’라며 대북 정책 추진에 있어 한·미 공조를 강조해온 정부 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당초 미국이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 차원의 공동 제재 발표를 희망했으나 정부의 소극적 대응으로 결국 미국이 독자 제재를 발표하게 됐다는 이야기까지 정부 안팎에서 흘러나왔다.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이후 북·중·러 연대가 강화되면서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가 일부 약화한 측면이 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대북 제재 해제와 영변 핵시설 폐기를 맞교환하려던 2019년 싱가포르 북·미

**미 대사대리, ‘대북 메시지 조율’ 이례적인 주문
한·미 외교·안보라인 소통 통해 한목소리 내야**

정상회담 때와는 달리 제재 해제를 위한 비핵화 협상을 ‘절대 불가’라고 입장 바꿨다.

그러나 국제 정세의 변화로 대북 제재의 효용이 일시 약화될 순 있지만, 대북 제재는 여전히 북한 비핵화 협상을 위한 유용한 수단이다. 지난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의 활동 연장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불발되자 한·미·일 등 11개국이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을 출범시킨 것도 이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한·미 간 엇박자다. 김 대사대리는 한·미 공조 강화를 위해 한국 외교·안보 라인과의 만남을 정례화하자고 제안했다. 정 장관도 돌출 발언을 자제하고, 이 과정에 참여해 향후 한·미 간에 조율된 대북 메시지를 내야 한다.

세관 마약 의혹 무혐의...대통령 지시가 혼란 키웠다

어제(9일)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 연루된 세관 공무원과 경찰 고위 직 등 15명에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세관 직원들이 마약 밀수를 도왔다는 주장도, 경찰·관세청 지휘부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었다는 결론이다. 합수단의 책임자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에 임명된 친여권 성향의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다.

이 의혹은 2024년 7월 백해룡 경정의 폭로로 점화됐다. 백 경정은 “2023년 마약사건을 수사하다 외국인 운반책에게 세관 공무원의 도움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수사를 확대하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과 경찰 고위층의 외압을 받아 좌천까지 당했다”고 주장했다. 최근엔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사건 배후로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합수단의 결론은 달랐다. 합수단은 “밀수범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점을 추궁한 끝에 ‘세관 직원의 도움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실토틀 받아냈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과 김건희 일가의 마약 밀수 의혹 등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혹은 현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6월 서울동부지검에 합동수사단이 구성되면서 수사로 이어졌다. 조용히 진행되던 수사는 지난 10월 이재명 대통령이 “성역 없이 엄정 수사하고, 백 경정을 수사팀에 괜견하

리”고 지시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대통령이 수사팀 구성에까지 관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었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의 꼴사나운 갈등까지 노출됐다. 임지검장이 제보자인 백 경정을 기준 수사팀에 합류시키는 것은 공정성 논란을 부를 수 있다고 판단해 별도 팀을 구성하자 백 경정은 기준 수사팀을 “불법단체”라고 비난했다. 급기야 어제 합수단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백 경정은 “검찰이 사건을 덮었다”고 반발하며 검찰과 관세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전담 수사팀이 결론을 내린 사안에 옆 수사팀이 ‘내가 수사하겠다’고 나선 모양새다. 국가 수사시스템의 규율이 무너진 황당한 일이다. 수사는 엄격한 증거에 따라 이뤄져야지, 특정 수사 담당자의 심증에 좌우될 수는 없다.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재수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합수단의 결론을 보면 백 경정이 한 초기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겪었을 세관 공무원의 고통은 대체 누가 책임질 것인가.

백 경정의 이런 돌출행동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대통령까지 나서 그에게 힘을 실어준 탓은 아닌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백 경정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난 이상 인사조치가 불가피하다. 더 이상 개인이 국가 수사시스템 전체에 혼란을 주는 일은 막아야 한다.

팩트 조작해 국민 기만한 관료 5인

안혜리의
시시각각



時 視 各 角

지난달 감사원이 발표한 의대 증원 감사 보고서를 국민 모두 읽었으면 좋겠다. 여전히 평생 공직에 몸담아 온 이관섭·안상훈(교수 출신)·장상윤·조규홍·박민수 고위 관료 다섯 사람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잘 보이겠다고 숫자를 조작하고 국민을 기만해 온 나라를 고통스럽게 만든 과정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다. 복기해야 재발을 막는다.

감사원 발표가 나오자 대다수 언론은 “보고 때마다 더!”라는 식의 제복을 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복지부 안을 거듭 퇴짜를 놓은 끝에 증원 폭이 2000명으로 늘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는 절반의 진실일 뿐이다. 대통령실 핵심 참모와 복지부 장차관은 단순히 상사(대통령)의 부당한 지시를 어쩔 수 없이 이행한 영혼 없는 공무원이 아니었다. 주요 대목마다 팩트를 조작해 대통령 의중에 맞는 방안을 만들고 국민에게 거짓말한 적극적 공모자들이었다.

의사 증원 사태 한 해 전인 2023년 6월로 돌아가 보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500명 증원 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다. 본인 진술대로 “수급 전망에 기초한 게 아니라 대통령의 의중 파악용” 숫자였다. 대통령은 “1000명 이상”을 외쳤다. 이때부터 대통령실과 복지부는 대통령이 원하는 숫자 ‘만들기’에 골몰했다. 10월 대통령 보고 직전 ‘3년간 1000명씩 도합 3000명 증원’ 초안을 먼저 본 안상훈 사회수석은 박민수 차관을 통해 “(대통령에게) 훈날 수 있으니 다시 생각하라”고 했다. 조 장관은 뚝딱 1942명을 추가해 4942명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대통령은 여전히 만족하지 않았다. “충분히 더 늘려야 한다.”

조 장관의 고민이 깊어졌다. 나라 걱정, 국민 걱정이었으면 좋았으면 그게 아니었다. 그 정도 숫자를 내놓으면 “객관적(으로 보이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서울대 의대 등 3개 기관의 보고서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렇게 ‘2035년 1만 부족’ 논리를 만들어 이관섭 수석(이후 실장)에게 보고했다. 11월 이 수석은 두 가지 지시를 했다. 하나는 “세 보고서 모두 현재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균형)고 본 건 비합리적이니 부족분을 산출하라”는 거였다. 다른 하나는 “의사의 위라벨 주제와 여의사 증가를 반영하면 부족한 의사 수가 늘어 날 테니 새로 산출하라”는 지시였다.

복지부는 세 보고서 작성자 중 신영석 고려대 교수와 KDI 권정현 연구위원에게 보완 연구를 요구했다. 12월 초 신 교수로부터 “4786명 부족”이라 잡정치를 받고, 그날 21일 2000만원 용역계약을 맺었다. 이 지점에선 양측 입장이 엇갈린다. 신 교수는 “처음부터 복지부 요구는 단기간에 불가능해 의료 취약지역 의사 수를 주겠다고 했는데 복지부가 부족한 의사 수로 왜곡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실무자는 감사에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더 기막힌 건 KDI 보완 연구다. 오히려 부족한 의사인력 수 감소로 나오자 이관섭 실장은 반영하지 않

**대통령 희망에 숫자 ‘만든’ 관료들
필요에 따라 넣고 빼며 조작·왜곡
재정 낭비, 의료 붕괴 책임 물어야**

기로 했다.

사실상 조작인데, 대통령실과 복지부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12월 27일 대통령 보고 5일 전인 22일 장상윤 수석(안상훈 후임)은 900명, 1600명, 2000명 단계적 7000명 증원을 담은 1안과 2000명 일괄 1만 명 증원 2안이 담긴 초안을 본 후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조 장관은 또 5일 만에 1안 1600명을 2000명으로 고쳐 도합 7800명을 보고하면서 “1안이 의대 교육 질 저하를 막을 수 있다”고 했으나, 대통령은 1안을 반대했다.

이후 벌어진 일은 모두 아는 그대로다. 이런 엉터리 과정을 통해 나온 2000명이 의료시스템과 의학교육을 망가뜨렸다. 그런데도 “꼼꼼하게 산출한 최소한의 규모(윤석열)”라거나 “과학적·합리적 근거를 따져 정밀하게 예측한 답”(장상윤)이라며 국민을 계속 속였다. 재정 낭비만도 수조원대다. 대통령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중앙일보

구독신청·배달 1588-3600 / 080-023-5001 홈페이지 <http://jife.joongang.co.kr>
광고 접수 02-751-5555 / FAX 02-751-5806 흡연페이지 <http://jad.joongang.co.kr>

주필 이하경
편집인 최훈
신문제작총괄 고현곤
편집국장 김종운

1965년 9월 22일 창간 | 1965년 7월 30일 등록번호 제00195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저작권자(C) 중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료 | 월정 20,000원 | 1부 1,000원

상용건물! 사업체! 주택매매!**이제 오승환과 함께하십시오!**

**주택리스팅 받습니다!
MD 리큅스토어, 세탁소 리스팅 보유**

언제든지 상담완영 합니다!(건물·사업체·주택)

비즈니스 손님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주세요!

**Realtor®
EA / Notary Public Seung Oh**

오승환 410.303.0452

GIMNT REALTY

**MD 자이언트
No. 1
에이전트**

MD Ellicott City**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밍 구함니다.



443-759-9798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한국과 미국에서 풍부한 임상경험과 실력을 갖춘

**통증 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해 드립니다!**

**메디
케어**

**교통
사고**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캐쉬플랜



진료 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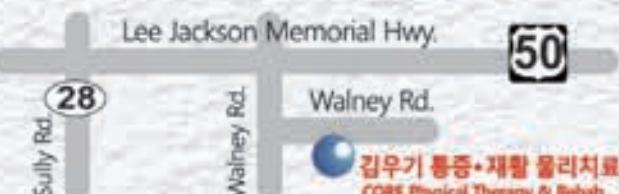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봐스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치료
관절 / 근막이완치료
전기치료



김민정 DPT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예약환자에 대해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고객만족
100%

중고차
150대
보유

차량
고가
매입

중고차 어디에 파는게 가장 유리할까요?

카멕스에 팔까?

가격 너무 싸게 산다고 하고..
귀국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차팔고
귀국때까지 사용할 차도 문제이고...

인터넷에 판매할까?

타이틀 이전 등 뒷마무리가
불안하고...

개인거래를 할까?

나중에 차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입장이 곤란해 질 것 같고...

한국자동차에 차를 팔면?

워싱턴지역 유일한 한인 중고차 전문 딜러인 한국자동차에
귀하의 자동차를 파시면 최고의 가격은 물론 고객 각각의
상황과 편의를 먼저 생각합니다.

- **최고의 가격에 자동차 매입**

카멕스보다 더 좋은 가격에 드립니다.

견적서를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 타이틀이전, Tax 문제등 판매후 세부문제 완벽처리

- 귀국시점과 판매시점이 차이가 있을시 판매후

귀국시까지 차량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994년부터 2025년 현재 **30년 이상**
8천대 이상 판매 실적!!

SPECIAL

귀국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새 차구입시 Trade-In이 걱정되십니까?

중고차를 팔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고객의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www.HANKOOKMOTORS.com

한국자동차

대표 김태원 **703.352-8949**

703.225.9151

9909 Main St., Fairfax, VA 22031





건강 & 연예/문화 Sports

703.973.8700
7700 Little River Twpk, #303, Annandale, VA 22003

① 중앙일보 JoongAng Ilbo

Wednesday, December, 10 2025 C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
소송**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웅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Hanmi Homehealth (한미 홈헬스)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평평있는 정직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감당 하실 수 있도록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t. (703)303-4556 / t. (703)303-0988
f. (703)569-0600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하루 8000보 ‘가성비 걷기’ 사망 위험 60% 낮춘다

10여 년 전 필자가 한 대국민조사에 따르면 국민 두 명 중 한 명은(53.9%) 주변 사람의 좋은 건강 습관이나 질병 극복 사례를 보고 좋은 영향을 받아 자신감을 얻고 건강을 관리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 면에서 유명인들의 운동 성공담은 감사하고 아름답기까지 하다.

달리기와 걷기 운동은 심폐 기능을 향상하고 근골격계를 강화하며,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당뇨병, 고혈압, 만성 폐쇄성 폐 질환, 골다공증 등 만성 질환 예방과 관리에 효과적이다. 스트레스 해소, 우울감 개선, 치매 예방 등 정신 건강에도 좋다. 꾸준한 유산소 운동은 염증 유발 물질을 줄이고, 염증 억제 물질은 늘리며 면역세포의 노화를 늦추고 건강한 노화를 이끄는 가장 강력한 면역 조절 인자이다. 치료로 들어가는 의료비용을 크게 줄여 사회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노인 하루 5000보 걸어야 인지력 유지
1년 전 비어만 교수의 호주 그리피스대 연구진이 신체활동이 가장 낮은 40세 이상의 사람이 평소보다 1시간만 더 걸어도 수명이 6.3시간(최대 11년)이 늘어날 수 있다는 흥미로운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평균적으로는 5.3년의 수명 연장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가장 비활동적인 사람들에서 가장 큰 수명 연장의 효과를 보이는 이유를 신체활동이 조금만 증가하더라도 만성질환으로 인한 초기 사망 위험이 많이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많이 걸으면 의사의 멀리할 수 있다”는 속담은 걷기 운동의 강력한 건강 효과를 잘 보여준다. 흔히 ‘하루 1만보’가 가장 먼저 떠오를 정도로 걷기의 대명사처럼 알려졌지만, 만보계 업체의 마케팅 전략에서 비롯된 매력적인 목표로 보일 뿐, 과학적인 근거는 미약하다.

만성질환 예방에 효과적인 걷기 꼭 1만보를 목표로 할 필요 없어
2500보 걸을 때부터 건강에 도움
500보 늘릴수록 심혈관 사망 7%↓

최소한 얼마를 걸어야 건강에 도움이 될까? 바나흐 교수가 이끈 폴란드 우즈 의과대학 연구팀이 약 22만7000명을 대상으로 한 17개의 연구를 메타 분석한 결과,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약 2500보(2337보)로 시작해 500보가 늘어날수록 7%씩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률은 약 4000보(3867보)에서 시작해 1000보를 추가할수록 15%씩 감소했다. 즉, 건강을 위해서는 하루 최소한 2500보는 걸어야 건강 투자 가치가 있다.

지난 8월에 호주 시드니 대 스마트카리스 교수 연구팀 결과에 따르면, 하루 2344보를 기준으로 1만 보까지 걸음 수가 1000보씩 늘어날 때마다 주요심혈관 질환 위험은 17.1%, 심부전은 22.4%, 심근경색은 9.3%, 뇌졸중은 24.5% 떨어졌다. 또한, 하버드의대 하마야 교수의 노년 여성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도 걷지 않는 그룹에 비해 1주일에 1~2일 최소 4000보 이상 걸은 그룹은 사망 위험이 26%, 3일 이상 걸은 그룹은 40%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더 걸을 수록 더 좋은 건강 효과가 있었다. 최소한 주 1~2회라도 하루 4000보 이상 걸는 것이 노년 건강에 중요하다. 하버드 의대의 차월 교수 연구팀은 고령층의 경우 하루 5000보 정도는 걸어야 인지 기능 저하 속도를 크게 늦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그 연구팀은 7500보 이상에서는 효과가 더는 많이 증가하지 않았다고 했다.

중간중간 빠르게 걷기, 건강에 더 효과
그렇다면 최대 얼마 걸음까지가 가성비가 있을까? 많이 걸을수록 좋겠지만, 시간적으로나 동기 차원에서도 적정 목표가 필요하다. 스페인 그라나다대가 주도해 총 12개의 연구의 11만1309명을 종합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7126보까지 51%의 심혈관 위험 감소, 8763보까지 사망률 위험 60% 감소가 관찰되었다. 투자한 시간 대비 최적의 혜택을 원한다면 7000~9000보 사이가 적절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빠른 걸음과 같은 중간도 신체 활동으로 주당 약 150분을 권장한다. 이는 하루 7000~8000보에 해당한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무엇보다 걷기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하루 2500보로 시작해 매일 최소 약 4000보 이상을 걸어서 체력을 키우고 걷기의 즐거움을 만끽한 다음, 8000보까지 늘릴 수 있으면 금상첨화다.

윤영호서울의대 교수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wpk, #310-B
Annandale, 22003

Ebenezer Matching
스페셜 매칭
초혼, 재혼, 시니어
애벌애설과 함께 평생의 인연을 만나보세요!
(917) 359-1578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내 집보다 편안한
아리랑 건강 복지센터
“사랑과 정, 효를
다하여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443.691.7968

락빌의 건강지킴이

황지연 내과

Jiyon Hwang-Ki MD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만성 성인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을
황지연 내과와 함께 관리하세요.”

진료 과목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협심증, 해소, 천식, 위궤양, 간염, 알러지검사, 신경통, 관절통 및 신경질환, 갑상선, 종합검진, 각종 예방 주사, 부인과 진료, 수액 주사, 링거 주사

** 메디케어 및 HMO, 각종 일반 보험 취급합니다.
** Amerigroup 받습니다.

Dr. 황지연

Jiki Medical Associates, LLC
Internal Medicine

301-610-6630

www.drhwangki.com

• 연회원제 주치의 프로그램 •

1단계 기본 (Essential)

- 연회비: \$1,800 (월 \$150)
- 포함: 연 2회 종합검진 (CBC, CMP, TSH, Lipid, HbA1c, UA, EKG), 원격진료 4회, 약물 검토·처방 갱신, 전문의·병원 연계
- 정기 관리 기본: 6개월마다 검사+상담, 원격진료 최대 4회 예약창 제공

2단계 프리미엄 (Premium)

- 연회비: \$3,000 (월 \$250)
- 포함: 연 4회 종합검진 (동일 항목), 원격진료 8회, 독감백신 1회, 약물 검토·처방 갱신, 분기별 검사/상담, 원격진료 최대 8회, 독감백신 시즌 내 접종, 전문의·병원 연계

등록비: \$250 (1회)

Telehealth 추가비: 포함 회수 초과 시 \$50/회
(사전 고지 후 \$50/회 결제)

연장/갱신: 만료 45일 전 갱신 알림, 30일 전 취소 가능



15200 Shady Grove Rd, Ste 108, Rockville, MD 20850
Fax. 301-610-5431 | Email. jikimedical@gmail.com

“호전·악화 반복하는 건선, 표적치료제로 피부 개선할 수 있어”

인터뷰 윤상웅 대한건선학회장
분당서울대병원 피부과 교수

겨울철엔 추위와 건조감이 심해 피부 질환이 악화하기 쉽다. 특히 건선 환자는 질병 관리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 찬 바람과 낮은 습도에 증상이 더 심해져서다. 일부 환자는 대인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위축되는 모습을 보인다. 다행히 최근엔 표적치료제인 생물학적 제제가 활발히 쓰이면서 치료 효과와 환자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고 있다. 대한건선학회장인 분당서울대병원 피부과 윤상웅 교수에게 건선 치료의 최신 경향을 들었다.

-건선은 어떤 질환인가?

“건선은 면역 체계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만성 염증성 피부 질환이다. 은백색의 각질로 덮인 염증성 피부 병변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아직 완치가 어려운 데다 관절염, 심혈관 질환, 대사증후군 같은 전신 질환을 동반할 수 있어 빨리 진단과 치료를 받고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특히 병변이 노출된 피부인 얼굴이나 두피, 손등에 나타난 경우 사회생활할 때 불편감을 호소한다. 피부 질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탓에 만성적인 우울감을 겪는 환자도 있다. 결국 건선 치료의 목표는 피부 병변을 최대한 개선하고 증상의 재발과 악화를 줄이며 합병증을 예방해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

-건선 환자는 어떤 치료를 받나?

“경증 건선은 스테로이드, 비타민D 유도체 등의 국소 치료제로 관리한다. 이를 병변에 꾸준히 바르면 충분한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중등도 이상에선 보통 국소 치료와 함께 전신 치

은백색 각질 생기는 만성 염증성 질환
얼굴·손에 발병 환자 우울감 겪기도
치료 편의성 높인 생물학적 제제 등
증상별 효과 좋은 치료법 체계화돼



분당서울대병원 피부과 윤상웅 교수는 “올바른 질환 정보를 환자에게 알려 꾸준히 치료를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료를 병행한다. 전신 치료에는 전신 광선 치료나 면역 조절 또는 세포 증식 억제 효과가 있는 경구용 약, 생물학적 제제를 이용한 표적치료법 등을 활용한다.”

-약물치료의 한계점은 없다.

“중등도 이상의 건선 치료에 활용하는 면역 조절제나 세포 증식 억제제는 장기간 써야 한다. 이때 간·신장 등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경과 관찰을 지속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또 환자는 이런 약물치료로 증상이 100% 개선되길 기대하지만 실제 치료 효과는 이와 차이가 있다.”

-생물학적 제제는 어떤 환자에게 사용하나.

“생물학적 제제는 주로 기존의 전신 치료에 반응이 충분하지 않거나 부작용이 발생해 치료를 지속하기 어려운

증등도 이상의 건선 환자에게 사용한다. 생물학적 제제는 면역 반응을 유발하는 원인 물질을 억제하는 원리를 바탕으로 높은 피부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른 치료보다 약물 사용 간

격이 길고 부작용 발생도 적어 학생·직장인처럼 병원을 주기적으로 방문하기 어려운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 방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치료 계획을 세울 때 고려하는 요소는 뭇나.

“건선 환자의 치료 방침을 정할 때 질환의 중등도, 병변 부위, 병변의 확산 속도, 불편감 정도 등을 다각도로 고려해야 한다. 특히 눈에 잘 띠는 부위에 병변이 있다면 환자의 심리적인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피부 개선을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장

에 맞게 부작용을 최소화한 방법을 선택하고, 환자가 치료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치료의 편의성도 함께 고려한다.”

-치료법의 발전으로 치료 성과도 향상 됐나.

“건선 치료에 효과적인 표적치료제들이 등장하면서 치료 목표가 확대됐다. 증상 조절뿐 아니라 높은 수준의 피부 개선과 삶의 질의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얼굴·두피처럼 눈에 띠고 치료가 어려운 부위에 쓸 수 있는 치료 선택지가 늘어나 환자들이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을 받고 있다. 최근엔 효과가 오래가고 치료 간격이 긴 약제 덕분에 편의성이 높아져 바쁜 일상에서도 꾸준히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무엇보다 최신의 표적치료제들은 장기간 써도

지속적인 안전성을 기대할 수 있다.”

-최근 대한건선학회장에 취임했는데, 학회 운영 계획은.

“대한건선학회는 2027년 창립 30주년을 맞는 중견 학술단체다. 학회장으로서 건선 환자가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치료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과거보다 건선의 치료법이 다양해지고 체계화되고 있다. 환자의 증상과 동반 질환, 사회 환경에 맞춘 지속 가능한 치료 전략이 전국의 모든 피부과 진료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건선 환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여전히 많다.

“피부 질환은 ‘전염될지 모른다’는 오해와 외양에 대한 편견 때문에 많은 환자가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사회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온라인에 피부 질환과 관련한 잘못된 정보가 만연해 있다. 학회는 건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한다. 매년 ‘세계건선의 날’(10월 29일)을 기념해 환자 수기 공모, 가족 지원 프로그램 등을 기획하고 있다.”

-환자·보호자들에게 해줄 조언은.

“건선은 고혈압·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으로 장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증상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치료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가족이 질환의 특성과 환자가 겪는 정서적인 부담감을 이해한다면 환자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학회도 환자가 부작용이 적고 좀 더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신의 의학 지식을 업데이트하고, 이를 진료 현장에 적극적으로 응용·보급해 나가도록 하겠다.”

김선영 기자

부광약품 중장기 전략 발표

파킨슨병 치료제 임상 성과, 룬드베그 빅딜…글로벌 제약사로 도약

부광약품이 글로벌 신약 개발 기업으로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덴마크 자회사 콘테라파마가 파킨슨병 치료제 ‘CP-012’의 임상 1b상에서 긍정적 결과를 확보한 데 이어 글로벌 제약사 룬드베그(Lundbeck)과 빅딜을 체결하며 신약 개발 제약사로의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부광약품은 이 같은 성과를 기반으로 RNA(리보핵산) 플랫폼 분사 등 중장기 전략을 구체화해 글로벌 바이오 생태계에서의 입지를 넓힐 계획이다.

부광약품은 지난달 18일 기업설명

‘아침 무동증’ 영역 첫 치료제 가능성
플랫폼 분사·해외 네트워크 확장 계획

회에서 콘테라파마의 파이프라인과 향후 전략을 공개했다. 토마스 세이거 콘테라파마 CEO는 임상 현황과 글로벌 협력 성과를 소개했으며 안미정 부광약품 회장은 중장기 전략을 제시했다.

파킨슨病 환자의 50~70%는 아침에 몸이 굳어 움직이기 힘든 ‘아침 무동증’을 겪는다. 기존 치료제의 반감기가

짧아 새벽 시간대에 약효가 소진되는 것이 원인이다. 콘테라파마의 CP-012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치료제다. 파킨슨병 치료 약물 성분인 레보도파가 수시간 지연 방출돼 증상이 심한 이른 아침에 작용한다. 약동학·신티그래피 분석에서 이러한 작용이 확인됐고 임상 1b상에서 안전성과 내약성도 입증됐다. 회사는 CP-012가 아침 무동증 영역의 첫 치료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세이거 CEO는 “CP-012는 파킨슨病 환자 증가 추세 속에서 상업적 가치 역

시 크다”고 말했다. 부광약품이 외부 기관에 의뢰한 보고서에 따르면 8대 주요국 아침 무동증 치료제의 기대 최대 매출은 한 해 약 1조 3000억원에 달한다. 부광약품은 CP-012의 신속한 2상 진입 전략을 검토 중이다. 단독 개발, 공동 개발, 라이선스 아웃(기술 수출) 등 다양한 옵션을 열어두고 있다.

콘테라파마가 확보한 또 하나의 성과는 룬드베그의 RNA 기반 신경계 질환 신약 공동개발 계약이다. 콘테라파마의 RNA 플랫폼은 ▷AttackPoint discovery(질병 표적 발굴) ▷Oligo

Disc(RNA 치료제 후보 최적화) ▷SpliceMatrix(스플라이싱 조절 기반 신약 설계) 등 세 가지다. 이를 통해 질병 변형 가능성이 있는 분자 표적을 발견하고 최적화된 RNA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다. 세이거 CEO는 “콘테라파마 RNA 플랫폼은 ASO·siRNA뿐 아니라 저분자 화합물까지 다룰 수 있다”며 “이런 범용성을 가진 플랫폼은 드물다”고 설명했다. 콘테라파마의 RNA 플랫폼과 룬드베그의 임상 개발 경험이 결합하면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가영 기자

최지호

가정의학 / 노인의학 클리닉

24/7 전화 진료



최지호, MD
가정의학/노인의학 전문의

-1995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2006년 플로리다 대학교 가정의학 전문의 수료
-2013년 조지워싱턴 대학교 노인학 평로우 수료

전화/문자/사진/비디오

240-232-5989

Fax: 703-662-6165
frontdesk@immediatehousecalls.com
immediatehousecalls.com

전문 노인의학 / 일반 진료

- 처방전 관리(당뇨, 고혈압, 고지혈, 갑상선, 위장약, 기억력/치매, Pain Patches(Lidoderm, ZTido, Flector, Pennsaid))
- 통증치료(체외충격파 / 치료 초음파)
- 치매(기억력) / 우울증 검사
- 상·하 기도 감염, 요로 감염
- Xray / CT / MRI 리퍼럴
- 종합 피 / 소변 검사
- 심전도 검사

건강백세+건강 지킴이 주사 (수액/정맥주사)

- 기력회복
- 면역력 강화
- 항산화
- 머리카락 & 피부 건강
- 뇌 건강(기억력, 집중력)
- 관절통 완화 & 염증 개선
- 심혈관
- 신경 안정

한방 치료 / 치료 마사지 (MD만 가능)

- 한방 치료 Ace Acupuncture 571-438-4644
- 치료 마사지 Healing Hands Massage 703-314-9461

* 메디케어 파트 B 받습니다.

*남자 간호보조원 (MA) 채용합니다.

VA 4216 Evergreen Lane, ste 125
Annandale, VA 22003-3256

진료시간 월 ~ 수, 9am ~ 3pm
토, 9am ~ noon

MD 16051 Comprint Circle,
Gaithersburg, MD 20877-1320

진료시간 목 ~ 금, 9am ~ 3pm

*메릴랜드에서만 치료 마사지와 한방 치료가 가능합니다.

보호대 믿고 과한 운동…관절 닳아 회복할 틈 없어

보호장구, 심리적 안정감만 더해줘
과신 말고 준비운동으로 부상 예방

관절 보호대(사진)의 높이 빠진 건 '장비발'이 탐나서는 아니었다. 좀 급하게 걷는다 싶으면 수시로 빼끗거리는 발목, 종일 키보드를 두드리며 혹사당하는 손목, 이유 없이 뚝뚝 소리 나는 무릎은 아랑곳하지 않고 러닝, 요가, 필라테스를 즐겨왔다. 그러다 하나씩 탈이 나기 시작했다. 무게 중심이 무릎에 쏠리는 동작에선 무릎은 빼걱거리고, 발목은 찌릿, 손목은 저릿거렸다. 이런 이유로 들인 게 무릎·발목·손목 보호대 3종 세트다. 운동 재미에 빠질수록 부상에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스포츠 손상을 예방하는 헬시템으로써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깐깐한 소비자임을 자처하며 겹색한 결과, 미국에서 특허를 받고 무릎을 단단하게 잡아주는 데다, 얇지만 격한 움직임에도 훌러내리지 않는다는 제품 광고에 노출됐다. 러닝머신을 뛰고 나면 무릎이 약간 붓고 육신거리는 느낌이 드는 게 아무래도 무릎관절 불안정 때문인가 싶었다.

필라테스, 요가용도 따로 장만했다. 발레리나들이 쓰는 무릎 보호대라고 광고하는 제품이었다. 쿠션형이어서 바닥에 무릎을 댈 때 불편함이 있던 동작도 거뜬해 보였다. 손목·발목 보호대도 줄줄이 장바구니에 담았다. 카드 결제를 고민할 때마다 보호대들은 나를 향해 '네 관절, 지금도 닳고 있다'고 말하는 듯했다.

보호대를 다양하게 써보니 우선 심리적 안정감이 컸다. 예컨대 무릎에 무리가 가는 동작에



출처: Gettyimagesbank

이 생겼다. 한번에 몰아서 운동하기가 됐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다. 보호대가 관절을 꽉 잡아주니 내 관절 건강이 한 단계 좋아진 줄 알고 평소보다 운동량을 올려버린 것이다. 보호대를 믿고 방심해 과한 운동을 몇 번 하다 보니 관절이 회복할 틈이 없어졌다.

관절을 지지하는 주변 근력이 약하고 자세가 흐트러져 있는 데다 회복 습관이 없는 데 보호대 하나로 해결되길 바랐음을 깨달았다. 종합영양제를 한 알 먹고 노화가 멈추길 바라는 것 같았다. 보호대는 보조 수단이다.

스포츠 손상은 넘어지거나 부딪치는 외상과 함께 관절과 근육을 너무 많이 쓰는 바람에 생긴다. 준비운동·마무리 운동을 건너뛰고, 자세가 제대로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운동을 이어가는 게 혼란 원인이다. 특히 짧을 때는 회복이 빠르고, 체력도 좋다는 믿음 때문에 조

심성이 떨어지기 쉽다.

스포츠안전재단의 '스포츠안전사고 실태 보고서'(2020년)를 보면 생활 체육인들이 많이 다치는 부위는 발목, 무릎, 손목, 어깨 순이었다. 다친 원인은 대부분 염좌(삠)와 좌상(타박상), 골절 같은 익숙한 부상들이다. 많은 부상이 예견된 사고처럼 반복되지만, 예방 의식은 생각보다 낮았다. 조사 대상자 3명 중 1명은 운동 전에 준비운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무리 운동이나 안전 장비 착용, 자신의 체력 수준을 고려하는 습관 역시 전반적으로 부족했다.

관절은 세월을 속이지 않는다. 짧을 때부터 꾸준히 아껴 쓴 사람과 '괜찮겠지' 하며 무리한 사람의 관절은 다른 속도로 노화한다. 작은 손상이어도 반복되면 회복력은 한계에 부딪힌다. 그러면 재생되는 대신 퇴행성 변화로 넘어간다. 생각보다 이른 나이에 관절 노화가 먼저 찾아온다.

스포츠 손상 예방하는 관절 관리



대퇴사두근 단련
무릎이 베티는 힘은 주변 근육과 인대가 얼마나 잘 받쳐주느냐에 달려 있다. 그중에서도 내 구성의 핵심은 무릎 바로 위의 대퇴사두근(허벅지 앞쪽 근육)이다. 이 근육이 탄탄하면 충격을 먼저 흡수해 무릎관절이 직접 손상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반대로 이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이 아파서 덜 움직이고 근육이 더 약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다. 의자에 앉아 다리를 쭉 뻗고 발끝을 몸 쪽으로 당기는 동작은 대퇴사두근을 키우는 쉬운 방법이다.



발목 손상 시 보호대 착용
운동하기 전에 발목을 가볍게 돌리고 발끝을 위아래로 움직여 관절을 미리 준비시켜야 한다. 발목에 갑작스레 하중이 실리면 쉽게 빼끗한다. 발목을 접질렸을 땐 부기나 피멍이 없는 가벼운 염좌라도 우선 냉찜질로 가라앉히고, 최소 2주 동안 발목 보호대를 착용하는 게 좋다. 손상된 인대가 제대로 아물지 못하면 발목이 자주 헛도는 불안정한 상태가 돼 작은 충격에도 반복적으로 접질린다.



열감·통증 있으면 쉬기
관절에 열감이나 통증이 나타나면 무리가 왔다는 신호다. 관절 안쪽 조직인 인대, 연골, 힘줄에 미세 손상이 발생했음을 뜻한다. 이 단계에서는 관절을 즉시 쉬어야 한다. 움직여야 풀린다는 생각으로 버티면 만성 통증이나 관절염 초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단발성의 작은 손상일 때는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자연 치유력이 작동한다. 염증이 가라앉고 미세하게 벌어진 조직이 다시 복도록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이민영 기자

소아암 환자 데이터, 절반 이상 확보 “세계 어디도 못한 일”

희귀병·소아암 어린이에 희망을

다리가 아파 병원을 찾은 생후 15개월 A양의 허벅지에서 커다란 종양이 발견됐다. 여러 병원의 의료진이 각종 검사를 했지만, 정확한 병명을 밝히지 못했다. 결국 A양에게 내려진 진단명은 그저 '악성 종양'이었다. 진단이 구체적이지 못하니 제대로 된 치료도 불가능했다.

서울대병원 등 7곳 데이터 모아

등록환자 700명 치료 길 열려
암 유전자 발견 등 성과 속속
이건희 기부금 3000억 마중물

다. 그랬던 A양이 '이건희 소아암 극복 사업'에 참여하면서 희망이 생겼다. 사업을 통해 인체의 모든 유전 정보를 해

독하는 유전체 전장 검사를 받아보니, 매우 희귀한 유전자변이를 가진 백혈병의 아형으로 나타났다. 고형암(혈액암을 제외한 암) 형태로 나타났지만, 실제로는 혈액암이었다는 얘기. 정확한 진단을 받고 나니 치료에도 희망이 생겼다.

지난 5일 서울대 의과대학 융합관에서 열린 '소아 고형암 정밀의료사업' 심

포지엄에서는 이 사업이 지난 2년간 이룬 성과가 발표됐다. 사업을 이끄는 피지훈 서울대병원 소아신경외과 교수가 발표를 마치자 심포지엄에 참석한 해외 연구자들은 "2년 만에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는 반응을 내놨다.

소아암은 성인 암과 달리 환자 수가 적어 치료는 물론 진단조차 쉽지 않다. 워낙 희귀해 연구가 그만큼 진전되지

못한 터이다. 이런 한계를 깨기 위해 국내 연구자들은 '소아 고형암 정밀의료 사업', 이른바 'STREAM(Strategic Treatment And Magic for pediatric cancers)' 프로젝트를 이어왔다. 이 사업은 고(故) 이건희 전 삼성 회장 유족이 소아암·희귀질환 극복에 써달라며 기부한 3000억원을 재원으로 2023년 본격화됐다. 소아 고형암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개인별 맞춤 치료를 해내는 게 최종 목표다.

남수현 기자

현스 홈케어 서비스 HYUNS HOME CARE SERVICE *Always With You!*



어르신 상담 Senior Consulting Service

- ▶ 맞춤형 개인 간병 서비스
(치매 상담제공 - CDP)
- ▶ Medicaid 신청 및 각종 정부 지원 안내
(푸드 스탬프, 교통 지원 등)
- ▶ Senior Living 안내
(시니어 아파트, 그룹홈 등)
- ▶ 병원 및 약국 업무 대행 서비스
- ▶ 의료기기 및 개인용품 주문 서비스



30년 삼성 HR 경험, 이제는 홈케어 서비스와 함께 합니다.

“사랑을 아는 경험, 사람을 돌보는 마음 –
현스 홈케어”

간병사 모집 Caregiver Recruitment

- ▶ 월 2회 간병사 교육 및 Certification 발급
- ▶ CNA 교육 지원
(시험 응시료 1회 지원, 취득 시 추가 혜택 제공)
- ▶ 주급 지급
(매주 금요일)
- ▶ 안정적인 근무 배정 및 경력 관리 지원
- ▶ 친절하고 체계적인 행정 지원



2834 Hill Rd., Vienna, VA 22182

703.507.2492 Mr. 배 571.334.3963 Mr. 윤

Hyunshomecare@gmail.com
admin@hyunshcs.com

www.hyunshcs.com



간수치 높을 땐 술 끊고 식이요법, 빈혈 소견 땐 원인 진단

건강검진 결과지는 한 해의 건강 습관을 점검할 수 있는 '신체 리포트'다. 그러나 용어가 생소해 대강 헤어보고서 랍에 넣어두는 경우가 흔하다. 지표 결과가 질병의 경계선을 가리키지만 그래도 정상 범위라고 안심하고 넘기는 사람도 많다. 건강검진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활습관을 개선해 심각한 질병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는 데 목적이 있다. 결과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위험 요인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질병의 경고등을 꺼야 한다.

특히 요즘 직장인의 주요한 건강 화두는 혈당이다. 30세 이상 성인 7명 중 1명이 높고 있을 만큼 국민 질병 수준으로 당뇨병 환자 규모가 커져서다. 일 반적으로 공복 혈당 또는 당화혈색소가 각각 126mg/dL, 6.5% 이상부터 당뇨병, 100mg/dL, 5.7% 이상부터 당뇨병 전 단계로 본다. 당뇨병에 해당하는 수치라면 당장 의료진과 상의해 혈당 목표치를 정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당뇨병 전 단계라도 생활습관 교정
당뇨병 전 단계일 때도 안심은 금물이다. 이 중 25~40%는 5년 내 당뇨병으로 진행한다는 보고가 있다. 조기 발견을 위해 적어도 1년에 1회 혈당 검사가

검진 결과지 제대로 이해하기

γ-GTP 수치 과음 영향 많이 받아
50세 넘은 남성, 매년 PSA 검사 권장
갑상샘 기능, 지표 상호 연관성 중요

건강검진 결과 속 지표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
이 생활습관 개선과 질병 예방의 출발점이다.

필수다. 전 단계에선 식단 관리와 운동, 체중 조절 등의 노력만으로도 당뇨병 발생을 예방할 수 있고, 그 효과가 10년 이상 이어진다.

간은 생활습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장기다. 평소 과음·폭음이 잦고 고기·튀김·찌개류 같은 고지방·고칼로리 식사를 즐기는 사람이라면 간 건강을 걱정해야 한다. 간 기능 정도를 확인하려면 AST·ALT·γ-GTP 수치를 살펴보는 게 도움 된다. AST와 ALT는 간 세포 내에 존재하는 효소로, 간세포가 파괴되면 이 효소가 혈액으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혈액검사로 간 손상 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 AST·ALT 수치가 100IU/L 이상으



출처: Gettyimagesbank

로 높다면 바이러스성·약물성·지방성 간염 등으로 간이 심하게 손상됐을 수 있으므로 정밀 검사를 꼭 받아야 한다. 간혹 검사 전 무리하게 운동하거나 과음한 사람도 일시적으로 수치가 높게 나올 수 있다. 이런 경우라면 1~2개월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γ-GTP는 간의 해독 작용과 관련 있는 효소로, 수치가 100IU/L 이상으로 높게 나왔다면 과음, 복부 비만, 이상지질혈증이 원인일 수 있다. 금주와 식이요법, 유산소 운동으로 2~3개월간 체중을 조절한 뒤 추적 검사를 하는 게 좋다.

성별에 따라 쟁겨야 할 지표도 있다. 전립샘 건강은 남성의 관심사다. 검진에서도 전립샘 특이항원(PSA) 검

사 항목을 많이 선택한다. PSA는 전립샘에서 분비되는 단백질로, 보통 4ng/mL 미만을 정상 범위로 본다. 이보다 수치가 높으면 전립샘 이상 신호일 수 있어 병원 진료가 권장된다. 50세 이상 남성이라면 매년 PSA 검사를 받고, 가족력이 있다면 45세부터 검사받는 게 좋다.

여성은 임신·출산·폐경으로 호르몬의 변동이 큰 편이다. 이런 변화는 갑상샘호르몬의 기능에도 영향을 준다. 검진에서도 혈액검사를 통해 갑상샘 기능을 점검할 수 있다. 갑상샘자극호르몬(TSH) 수치가 대표적이다. TSH는 갑상샘을 자극해 호르몬 생성을 돋는 역할로, 보통 0.4~5.1μU/mL가 정상

범위에 해당한다. 갑상샘호르몬인 유리 티록신(Free T4)도 TSH와 함께 갑상샘 기능 이상을 진단할 때 살피는 지표로, 0.8~1.9ng/dL를 정상 기준으로 본다.

여성, 혈액검사로 갑상샘 기능 점검
정상 범위는 성별이나 나이, 임신 여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수치 자체 보단 지표의 상호 연관성을 들여다보는 게 좀 더 의미가 있다. 정상 기준보다 Free T4 수치가 낮으면서 TSH 수치가 높다면 갑상샘기능저하증, 반대로 Free T4 수치가 높으면서 TSH 수치가 낮으면 갑상샘기능항진증을 의심해볼 수 있다. 정확히 진단하려면 자가항체 측정이나 초음파 등의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빈혈 소견이 있다'는 문구도 자주 보인다. 빈혈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지표는 헤모글로빈(혈색소)이다. 이는 적혈구 내 산소 운반 단백질로, 이 수치가 11g/dL 미만으로 낮을 땐 그 원인을 꼭 찾아야 한다. 이는 피가 빠져나가고 있는 '철 결핍성 빈혈'이나 염산·비타민 B¹² 등의 영양분 결핍일 수 있어서다.

김선영 기자

도움말=김은숙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교수, 이정우 경희대병원 비뇨의학과 교수

'무효심결예고제' 도입, 불필요한 소송 줄이고 특허 안정성 높인다

특허 무효 결정 전 통지하는 제도

특히는 기업의 경쟁력이자 생존 수단이다. 기술을 지키느냐, 빼앗기느냐에 따라 명운이 갈릴 수 있다. 기술 변화가 빠르고 경쟁이 치열한 산업일수록 특히의 유효 여부가 시장의 주도권을 좌우한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계의 관심이 특히 무효심결 방향을 사전에 통지하는 '무효심결예고제' 도입에 쏠리고 있다. 다만 의약품에 예외 규정을 두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제약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허가특허연계제도 예외 적용은 형평성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심판부가 최종 무효심결을 내리면 권리자가 대응에 나서게 된다. 심결 취소 소송이나 정정 심판을 진행하는 식이다. 이 과정이 최소 2~3년가량 소요돼 기업의 시간과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

도입 맨 기업 비용 부담 줄어들어

특허심판원이 추진 중인 무효심결예고제를 통해 이런 불편을 줄일 수 있다. 무효심판 심리가 종결되기 전, 무효심결 예정 사실을 특허권자에게 알려 청구항을 정정하고 권리를 유지할 수 있는 절차적 기회를 보장하기 때문이다.

덕분에 특허권자는 물론 무효 심판 청구인도 추후 불필요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제도 도입에 대한 여론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앞서 2015년 이뤄진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1.3%가 제도 도입에 찬성했다. 법적 분쟁을 사전에 조정해 기업의 시간·비용 부담을 줄이고, 특히의 법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실제 일본의 경우 무효심결예고제가 도입되고 특히 무효율이 18%로 낮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에 현재 우리나라의 무효 심판 인용률은 40~50% 수준으로,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보다 두 배 이상 높다.

이처럼 제도 도입의 취지와 기대 효과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구체적

를 통해 특허권자가 필요할 경우 판매 금지 신청 등으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제네릭 제약사가 심판을 통해 기준에 등재된 특허를 무효화시키면 9개 월간의 독점적 판매 권한인 우선판매 품목허가권(우판권)을 부여한다. 시장을 먼저 선점할 수 있는 일종의 '보상권'이다. 단, 우판권을 획득하면 품목 허가 신청 사실이 특허권자(오리지널사)에게 통지된 날로부터

터 9개월 이내에 무효심결을 받는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이견이 발생한다. 일부 제약업체는 무효심결예고제가 도입돼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와 맞물리면 우판권 확보, 제네릭 출시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하지수 기자



“간병이 필요하신 모든 분들을
퍼스트로 모십니다.”

퍼스트 홈케어,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과 편의를 위한 종합 간병서비스!

- ♥ 약 쟁겨드리기
- ♥ 청결 유지 및 침상 정리
- ♥ 이동 보조 산책 또는 운동 도와드리기
- ♥ 병원 예약 및 동행(필요시) 해드리기
- ♥ 간단한 집안 일 도와드리기
- ♥ 말 동무 해드리기
- ♥ 식사 도와드리기
- ♥ 우편물 정리 및 각종 고지서 납부 도와드리기
- ♥ 정기 간호사 방문 및 건강 상태 확인 등등

롱텀케어, 푸드스탬프, 메디케이드 상담 및 신청 도와 드립니다

직원모집

퍼스트 홈케어에서는 어르신을 진심으로 섬기며, 내 가족처럼 대할 수 있는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간병인: 00명 / 코디네이터: 00명

퍼스트 홈케어에서 본인 능력을 무한대로 펼치며, 안정적인 삶을 영위해 보세요.
퍼스트 홈케어가 있습니다.

*퍼스트 홈케어 위치: 센터빌 스파월드 건너편 3층 메디컬 빌딩



교통사고 치료 전문

멀시척추신경

여러분 가정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MERCY
CHIROPRACTIC

25년 임상경험의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 병원

- ▷ 교통사고 · 운동사고 · 직장사고
- ▷ 스포츠 · 노동 후유증
- ▷ 오십견 및 급만성 요통
- ▷ 좌골 신경통

- ▷ 척추측만, 거북목 증후군
- ▷ 관절 클리닉
- ▷ 손발 통증 및 저림

- 최신 물리치료, X-Ray 완비
- 유학생 보험 / 여행자 보험
- 교통사고 보험처리에 필요한 모든 서류작성을 도와드립니다.
-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



전문의 박종현

한의사 김경환

전문의 정지현

www.jungmercyclinic.com• Email : jungspinechiropractic@gmail.com

애난데일

703.256.30057535 Little River Trpk. #200-B
Annandale, VA 22003
(한국말보. 엔 컨트리 2층)

센타빌

703.830.099313880 Braddock Rd., Suite 102
Centreville, VA 20121

엘리코티시티

410.465.32219005 Chevrolet Dr. #4
Ellicott City, MD 21042

'소셜연금 62세 수령' 위험한 조언 확산

소셜연금을 62세부터 받으라는 조언이 최근 틱톡과 유튜브에서 폭발적으로 퍼지고 있다. 소셜미디어에 금융 조언을 올리는 인플루언서들을 '핀플루언서(finfluencer)'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최근 들어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이른 나이인 62세에 신청해 이를 매달 주식에 투자하라고 주장하는 영상과 맴을 잇달아 올리고 있다.

문제는 이런 주장이 대부분의 재정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강조해 온 조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가능하다면 70세까지 소셜연금 수령을 늦춰 평생 받는 월 수령액을 높이라고 조언한다.

소셜연금 전문가인 로런스 코틀리 코프 보스턴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셜연금을 너무 일찍 신청해 적은 액수를 받는 것이 가장 큰 실수"라며 "대다수 근로자들은 70세까지 수령을 자연하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라고 말했다.

소셜연금은 62세부터 받을 수 있지만 만 100%를 받는 67세 이전에 수령하면 최대 30%까지 액수가 줄어든다. 반대로 70세까지 수령을 미루면 '지연 크레딧'이 붙어 67세 이후 매년 약 8%씩 수령액이 증가한다. 70세 이후에는 지연 크레딧이 붙지 않는다.

'62세 수령, 주식 투자' 주장의 근거는 이익이다. 최근 주식시장이 강세장 흐름을 보이자 "소셜연금을 일찍 받아 투자하면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올해 S&P 500은 약 14% 상승했고 지난 10년간 배당을 포함한 연평균 수익률은 12%를 조금 넘는다. 그래서 일부는 "조기 수령한 연금을 주식에 투자



62세부터 소셜연금을 받아 주식에 투자하는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들의 조언이 최근 밤처럼 퍼지고 있다.

'일찍 받아서 주식 투자' SNS서 퍼져 전문가들 '수령 지연이 최고의 전략'

해 수익률을 올리면 연금 수령을 늦춰 얻을 수 있는 증가분을 상쇄하고도 남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미래 수익률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을 무시한 주장이다. 수령을 늦춰서 더 많이 받는 것은 확실히 보장된 것이다. 리스크가 전혀 없고 연간 물가상승률 조정(COLA)에 따라 수령액도 자동으로 인상된다. 복

(CBPP)의 캐슬린 로미그 사회보장·장애정책 디렉터는 "COLA 조정은 대부분 은퇴자의 유일한 인플레이션 방어 수입"이라며 "소셜연금은 은퇴자 대부분에게 가장 안전하고 큰 소득원"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주식시장은 단기 변동성에 취약하고 인플레이션 위험에도 노출된다. 뱅가드의 루카스 브랜들-청 투자전략 애널리스트는 "지난 10년의 뛰어난

수익률을 재현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전례 없는 기업 실적 성장과 역사적으로 높은 밸류에이션, 달러 가치의 장기 상승이 모두 갖춰져야 가능한 일"이라 고 분석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경우, 은퇴자들이 단기간에 지출해야 하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렵다는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 즉시 폭락이 은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는 금융위기가 잘 보여줬다.

핀플루언서의 맘이 아니더라도 은퇴자 7명 중 1명은 수령을 미루면 액수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기 수

령을 선택한다. 투자운용사 슈로더스의 데브 보이드 미국화정기여부문 책임자는 "많은 은퇴 예정자들이 지연 수령의 이점을 알고 있지만 당장 돈이 필요하거나 소셜연금의 지속 가능성성을 걱정해 조기 수령을 탐한다"고 지적했다. 은퇴자 3명 중 1명은 소셜시큐리티 자금이 고갈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

현재 노동시장에서 해고가 증가하면서 직장을 잃고 수령 시점을 당기는 경우도 많다. 수입이 끊기고 재취업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62세 조기 수령은 사실상 불가피해진다.

전문가들이 62세 조기 수령을 모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건강 문제나 가족력에 따른 기대수명 단축,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는 더 나은 선택이 되기도 한다. 또 부부 모두 소셜시큐리티 기록이 있을 경우,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62세에 조기 수령을 하고 소득이 많은 배우자가 70세까지 기다려 급여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유리할 수 있다.

꼭 조기 수령을 선택해야 한다면 협금 흐름 부족이나 퇴직 후 소득이 없는 등 실제 원인이 있어야 한다. 주식 투자 용 자금 확보가 조기 수령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가뜩이나 62세 수령이 많은 상황에서 꼭 써야 할 돈을 주식에 투자하는 리스크까지 안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다.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올라가는 소셜연금의 혜택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현명하다.

안유희 객원기자

오바마케어 보조금, 허위 신청 90% 승인

GAO, "정부 지원금 줄줄 썼다"
소셜번호·소득 증빙 없이 기입
중복 수령도 2년간 9만7000건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을 둘러싸고 민주·공화당의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연방과 주정부의 보조금 관리가 극도로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 회계감사원(GAO)은 최근 보고서에서 정부가 지급하는 보험료 보조금(APTC) 제도에 광범위한 사기·취약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연장을 놓고 여야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이러한 문제

점은 제도 유지를 추진하는 민주당과 달리 공화당이 연장에 제동을 거는 이유로 해석된다.

지난 3일 공개된 GAO 보고서에 따르면, GAO가 최근 2년간 실시한 합정 테스트에서 연방 건강보험거래소(Federal Marketplace)는 허위 기입 신청 10건 중 9건을 승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료 일부를 세액공제 형태로 선지급하는 제도(APTC)이지만, GAO는 이 과정에서 허위 신원 겸증 부실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지난 2024년 GAO는 허위 신원 4명의 명의로 보험을 신청했고,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국(CMS)은 이들에게 매월 235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소셜번호(SSN), 시민권, 소득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가입이 그대로 유지된 사례도 확인됐다.

올해 조사에서도 허위 신원 20명 중 18명이 지난 9월 기준 여전히 보험 적용 상태였으며, 이들에게 지급된 보조금은 한 달에 1만 달러를 넘었다. GAO는 "진체를 대변하는 사례는 아니지만, 제도 운영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SSN 중복 사용과 무단

를 나타냈다. 동일 SSN으로 1년 치 이상의 보험 혜택을 중복 수령한 정황은 2023년 2만9000건, 2024년에는 6만 8000건 이상에 달했다. 보험 애이전트가 소비자 동의 없이 가입 조건을 변경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례도 2023년 최소 3만 건, 2024년에는 16만 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는 약 처방·중단이나 의료 이용 차질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세금 정산 과정에서도 누수가 포착됐다. 2023년 플랜 연도 기준 약 210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이 세금보고를 통해 정산된 기록이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이는 반드시 불법 수령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격 미달자에게 보조금이 지급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

GAO는 CMS가 2018년 이후 보조금 사기 위험 평가를 한 차례도 개선하지 않았으며, 기준 평가 역시 위험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데다 이에 따른 대응 전략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CMS는 일부 기술적 통제 장치를 도입했다고 설명했지만, 실효성을 확인해 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GAO는 후속 분석을 거쳐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김경준 기자

**중앙일보
구독 문의
703.281.9660**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척추사랑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척추를 사랑하십니까?"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에서는 정확한 진단후,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정성껏 집중 치료합니다."

교통사고 통증 치료전문 / 자세교정

진/료/과/목

- ◆ 교통사고후유증 (Auto Injury)
- ◆ 두통/목/턱관절 (TMJ) 통증
- ◆ 허리/척추디스크/좌골신경통
- ◆ 손목/팔꿈치/어깨 통증
- ◆ 운동상해/직장상해
- ◆ 발/무릎 통증/자주빼는 발목
- ◆ 만성피로/근육통/관절염
- ◆ 재활/물리/운동 치료
- ◆ 자세교정 및 건강유지
- ◆ 청소년 성장클리닉
- ◆ 임산부/산후 및 여성클리닉

교통사고

필요하신 모든 절차를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도와드려, 치료에만 전념하실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Dr. 이형훈

(Mark H. Lee DC, CCEP, FIAMA)

-고려대학교 Biotechnology 졸업
-고려대학교 생명공학 대학원
-Internship for ProteinOne's Lab at UMC and MedLink Hospital in Washington D.C.
-University of Chiropractic
-Certified in Gonstead System
-Certified in Gonstead Extreme Adjusting
-Certified Chiropractic Extremity Practitioner (C.C.E.P.)
-Fellow of International Academy of Medical Acupuncture (F.I.A.M.A.)
-Worked for Gwinnett Medical Back & Neck Pain Clinic in GA
-Licensed in Maryland with Physical Therapy Privileges
-Licensed in Virginia Board of Medicine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LoveSpine

Chiropractic Clinic 척추사랑

락빌 클리닉

T 301.231.7588 / F 301.231.7587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 lovespineclinic@yahoo.com

코리안프리에서 3분, 실버스프링 웨트 헨터풀(H-mart)에서 10분 거리

센터빌/챈들리 클리닉

T 703.429.4622 / F 703.429.4623

14161 Robert Paris Ct. Suite B

Chantilly, VA 20151

Email : lovespineclinic@gmail.com

센타빌 롯데/한마트(H-mart)에서 각각 5분거리

김민지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VA·MD·DC 면허

이력

- 대원외고 불어과 졸업
- 한국외대 영어/불어 전공
- 몬트리올 Concordia University에서 심리학 전공
- 캐나다 국방부에서 부 참모총장 및 국방정관 분석관으로 다년간 근무
- J. Reuben Clark Law School J.D.
- 미국 연방 지방법원, 유타 대법원 근무
- D.C., 버지니아 주 로펌 다수 근무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이혼 후 양육권/양육비/위자료 변경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에서 이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osperlawpllc.com/>)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VA 전화 TEXT: 703.593.9246

11166 Fairfax Blvd, Ste. 406, Fairfax, VA 22030

MD 전화 TEXT: 443.901.8693

5457 Twin Knolls Rd., Ste. 300, Columbia, MD 21045

mkim@prosperlawpllc.com



엑소 스타일 노래하고 사극처럼 한복 입고… AI, 다 되네

몇 시간 걸리는 공포 영화의 특수 분장, ‘팬심’으로 만드는 ‘최애 아이돌’ 스타일의 음악 작곡, 다양한 국적을 가진 뷰티 인플루언서들의 립스틱 홍보… 이 모든 게 AI(인공지능)로 가능해졌다. 지난해부터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이 추진해 온 ‘AI 콘텐츠 제작기원 사업(협력형)’을 통해서다.

올해만 44억원이 투입된 이 사업에는 자사의 IP(지적재산권), 플랫폼을 가진 대기업과 기술력을 지닌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뤄 참여했다. 예를 들면 소녀시대·엑소 등 글로벌 아티스트들의 IP를 보유한 SM엔터테인먼트가 음성 합성 기술을 가진 주식회사 베시스와 함께 SM엔터 스타일로 곡을 쓰고 음원을 만드는 AI 기술·콘텐트를 개발하는 식이다.

올해는 총 두 차례에 걸쳐 11개팀을 선정, 각각 4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김남걸 콘진원 책임신기술본부장은 “먼저 대기업·중견기업에 필요한 기술 수요를 공개한 후 이를 지원할 중소기업을 매칭했다”며 “내년에는 지원 사업 범위를 모빌리티, 유통, 관광, 식품 산업 등으로 넓히고 총 16개 과제에 64억원을 지원하는 등 규모도 확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제는 팀별로 다양했다. 콘텐트 제



작 업체인 오프더레코드컴퍼니는 AI 기술을 활용해 아모레퍼시픽의 베추얼 인플루언서 ‘지지(한국)’ ‘미오(일본)’ ‘아일라(미국)’의 쇼츠(짧은 영상)를 제작했다. 영상에서 이들은 여러 스타일

의 옷을 입고 길을 걷거나, 화장을 바

르고 카메라를 바라본다. 윤완식 오프더레코드 감독은 “얼굴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AI 기술 개발로 일일이 재보정 하는 수고를 덜게 됐다”고 설명했다.

방송 미술 업체인 MBC아트는 인사

한국콘텐츠진흥원 AI 협력형 사업 SM엔터·CJ ENM·MBC아트 등 콘텐트 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지원 “중기 기술과 대기업 IP 만남 성과”

화장품 베추얼 인플루언서 ‘지지’ ‘미오’ ‘아일라’(왼쪽부터). 오른쪽은 MBC아트의 전통 의상과 장신구 3D 데이터로 AI가 만든 이미지.

[사진 오프더레코드컴퍼니·인사이트]



단과 사극 제작에 활용할 전통 의상과 장신구 이미지 데이터를 구축했다. 강태훈 인사이터 부대표는 “생성형 AI로 한복을 입은 인물을 만들어 달라고 명령하면, 중국이나 일본의 전통 의상이 불쑥 튀어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MBC아트가 갖고 있는 전통 의상과 장신구 2만 4000여점을 일일이 3D 이미지 데이터로 구축하고, 이를 적용할 영상 제작 프로그램도 만들었다”고 말했다.

LG전자와 체감형 콘텐트 제작사 셀빅은 주변 환경에 실시간으로 반응해 영상이나 소리를 생성하는 사물인터넷 기술을 개발 중이다. 예를 들어 실제 눈이 내리는 상황에서 AI 기능이 탑재된 TV 등 기기의 패널(화면)에 바

깥 날씨와 비슷하게 눈이 내리거나 날로에서 모닥불을 피우는 장면이 랜덤으로 뜨는 식이다. 정영균 셀빅 상무는 “불편함의 개선보다는 정보와 오락을 결합한 ‘인포테인먼트’ 개념에 초점을 맞춘 기술”이라며 “향후 광고, 마케팅, 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CG 업계 등에서 광범위하게 응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CJ ENM과 웨스트월드는 생성형 AI 시스템으로 SF판타지 장르의 VFX(시각효과)를 구현, 30분 분량의 애니메이션 ‘프렌즈’ 등 미드폼 콘텐트를 2편 만들었다. 이 작품은 호주 시드니 AI필름페스티벌에서 최고상(금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최민자 기자

※중앙일보·한국콘텐츠진흥원 공동기획

덜어내니 보였다, 심은경이 말하는 ‘나다운 것’

영화 ‘여행과 나날’ 10일 개봉

“부족함 느끼는 주인공, 나와 닮아”

영화 ‘여행과 나날’(10일 개봉, 미야

미야케 감독이 원작의 일본인 중년 남성 주인공 대신 심은경(31)을 주연으로 캐스팅한 건 “애써 잘 보이려 하지 않는 모습이 주인공과 닮았다”는 이유

에서다.

지난 5일 서울 동작구 아트나인에서 만난 심은경은 자신과 닮은 ‘이’의 모습에 끌렸다고 말했다.

“나는 별로 재능이 없는 것 같다”는 대사에 꽂혀 출연을 결심했어요. 나 또한 부족함을 느끼는 순간이 많거든요. 그걸 많은 이들 앞에서 용기 있게 말하는 ‘이’의 태도를 보고 연기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은경은

“여백이 많은 만큼 느끼는 대로 표현할 수 있어 자유로움을 느꼈다”며 “말로 표현되지 않는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는 영화”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에서 활동하면서 언어의 벽을



영화 ‘여행과 나날’은 ‘말이란 틀에 갇혀 있다’고 느끼며 더 이상 글을 쓰지 못하던 각본가 ‘이’(심은경)가 설국 같은 시골 마을로 여행을 떠나며 벌어지는 이야기다.

[사진 엔터인필름]

느꼈던 자신의 경험과 ‘이’의 고민이 비슷한 점이 있다고 했다. “슬럼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이’의 캐릭터에 자신을 투영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다.

설경을 즐기던 ‘이’는 호텔 방을 구하

지 못해, 깊은 산 속 오래된 여관에서 속을 알 수 없는 주인 벤조(쓰쓰미 신이치)와 함께 지낸다. 그와 감정을 나누고 작은 소동에 휘말린, 꿈결 같은 시간은 ‘이’의 마음을 회복시켜 다시 편

을 들게 만든다.

심은경은 영화 ‘신문기자’(2019)로

일본 아카데미상 최우수 여우주연상을 받고, 이번 영화로 싱가포르 국제영화제 여우주연상 후보에 오르는 등 일본에서 인정받는 배우로 성장했다. 하지만 영화 속 ‘이’처럼 끊임없이 자신의 재능을 의심한다. “영화 ‘수상한 그녀’(2014)로 많은 사랑과 큰 상을 받은 뒤 ‘내게 그런 자격이 있는 걸까’란 생각에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최고가 아니어도 된다, 연기를 좋아하는 마음이면 된다’고 마음을 다잡고 작은 영화에도 출연하고, 일본 활동에도 도전하게 됐습니다.”

그는 “작품에 어떻게 녹아들어야 하는지 간과했다는 걸 느낀 뒤 내 자신이 한없이 부족하게 느껴졌다”며 “지금은 스스로 만족하는 연기를 하고 감독의 만족스러운 표정을 보면서 짜릿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정현목 문화선임기자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 안과

**25년 over 11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7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 백내장 레이저 수술
- 녹내장 레이저 치료&수술
-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 정기적인 눈 검사
- 안구 건조증 치료
- 눈 당뇨병 레이저 & 주사
- 안검마수(눈꺼풀 저점 개선)
- 각종 보험 적용 됩니다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ulane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nt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Lee Koo Acupuncture Pain Control Clinic & Herbs

서울 미국 한방병원

원장 이구 (한의학 박사)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86에서 출생
*전 메릴랜드 한의과대학 교수
*임상경력 50년
*각종 보험 취급 (교통사고 보험 100%)
*VA, MD, DC 면허 소지

저서

- *신비한 체질의 세계 (사상의학)
- *만성병의 음식치료와 보양법
- *정설침구혈위대전
- *사암침법해설 (사상의학)

**** 특진 (사암 오행침과 사상체질의학 전문)**

모든 알러지, 피부병, 각종 통증, 목디스크, 갱년기 장애, 콧병, 불임증, 여드름, 기침, 정력감퇴, 통풍, 위산과다, 허리통증, 피곤증, 탈모증, 조루증, 이명, 변비, 복부개스, 설염, 부인과 하혈, 중풍, 이갈이, 코골이, 머리흔드는병, 수전증, 미용침, 치질출혈, 장출혈, 코피, 모든 출혈 치료됨.

크레딧 카드 환영

TV Travel Channel
서울이구한방병원 방영

Lee Koo Acupuncture Pain Control Clinic & Herbs

서울 미국 한방병원

원장 이구 (한의학 박사)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86에서 출생
*전 메릴랜드 한의과대학 교수
*임상경력 50년
*각종 보험 취급 (교통사고 보험 100%)
*VA, MD, DC 면허 소지

저서

- *신비한 체질의 세계 (사상의학)
- *만성병의 음식치료와 보양법
- *정설침구혈위대전
- *사암침법해설 (사상의학)

**** 특진 (사암 오행침과 사상체질의학 전문)**

모든 알러지, 피부병, 각종 통증, 목디스크, 갱년기 장애, 콧병, 불임증, 여드름, 기침, 정력감퇴, 통풍, 위산과다, 허리통증, 피곤증, 탈모증, 조루증, 이명, 변비, 복부개스, 설염, 부인과 하혈, 중풍, 이갈이, 코골이, 머리흔드는병, 수전증, 미용침, 치질출혈, 장출혈, 코피, 모든 출혈 치료됨.

크레딧 카드 환영

TV Travel Channel
서울이구한방병원 방영

무패·무실점... 잉글랜드 'AI 독심술'

(월드컵 유럽 예선)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하는 잉글랜드는 8전 전승, 무실점으로 FIFA 북중미 월드컵 유럽 예선을 '무결점 통과' 했다. 사진은 잉글랜드의 마르쿠스 래시포드가 지난 9월 유럽 예선 세르비아전에서 팀의 5번째 골을 성공시키는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축구 알파고'가 월드컵에서 잉글랜드의 12번째 선수로 뛴다. '축구 종기' 잉글랜드 대표팀이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 대비해 AI 기반 경기력 관리 시스템을 전면 가동한다.

BBC는 최근 "이미 엘리트 축구 무대에서 AI가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며 "페널티킥 분석, 선수 커디션 및 부상 관리, 전술 분석을 통한 상대 약점 파악에 도움을 주는 잉글랜드 전략의 핵심 기술"이라고 전했다.

토마스 투헬 잉글랜드 대표팀 감독의 벤치에는 데이터 전문가,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함께 앉는다. 이들은 외부에서 구입한 분석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잉글랜드 축구협회(FA)가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도 운용한다. 복잡한 데이터를 코치진과 선수들이 직관적

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서 제시하는 게 이들의 핵심 역할이다. AI 기술과 축구 사이의 통역사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페널티킥 혁신'이다. FA의 분석 책임자 리스 롱은 "월드컵 때는 상대국 47개국 선수들이

16세 이후 찼던 페널티킥 정보를 활용한다. 과거에는 한 팀의 정보를 수집하는데 닷새가 걸렸지만 이번 AI를 이용해 5시간이면 할 수 있다"며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상대 선수의 페널티킥 성향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8

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개막을 앞두고 열린 커뮤니티실드 경기에서는 리버풀 선수들의 페널티킥 선호 방향이 적힌 크리스털 팰리스 골키퍼의 물통이 카메라에 잡혀 화제가 됐다. 크리스털 팰리스는 승부차기에서 3-2로 이겼다.

월드컵 앞서 AI 관리 시스템 가동 47개국 선수 페널티킥 성향 파악 하프타임 땐 상대 전술 그래픽화 기술 격차에 축구 양극화 지적도

AI는 키커에게도 도움을 준다. 키커에게는 상대 골키퍼가 주로 어떤 방향으로 몸을 던져 막는지 알려준다. 롱이 FA에 합류한 이후 잉글랜드의 페널티킥 기록은 크게 향상됐다. 유로 2020과 2022 카타르 월드컵 대표였던 코너 코디는 "유로 대회 직전에 큰 회의를 했다. 선수별로 어디로 차는 게 좋겠다는 정보를 줬다. 방향을 알려주니 오히려 부담이 줄었다"고 말했다. 잉글랜드는 2020년 이후 27번의 페널티킥에서 23번 성공했다.

최근 들어 AI 축구 소프트웨어는 엄청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경기 중 수만 건의 움직임과 데이터를 추적하고, 전술 패턴을 읽어낸 뒤 이를 비디오와 그래픽으로 시각화해서 하프타임에 선수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상대가 어떤 타이밍에 강한 압박을 시작하는지, 선수들이 서 있는 위치에서 균형이 무너진 지점은 어디인지, 어느 구역에서 공을 잃을 때 실점 확률이 높은지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하프타임 10분은 '축구 알파고'의 맞춤형 훈수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된 것이다.

BBC는 "최근 월드컵에서는 스페인·프랑스·아르헨티나가 더 좋은 성과를 냈지만 AI를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한 나라는 잉글랜드·독일·미국"이라고 평

가했다. 리버풀 존 무어스 대학의 엘리스터 맥로버트 교수는 "잉글랜드는 모든 연령대의 대표팀에 데이터 엔지니어, 분석가들이 포진해 있다"고 말했다. 잉글랜드 대표팀의 훈련장인 세인트 조지스 파크에는 터치스크린과 3D 전술 보드가 갖춰진 '인터랙티브 회의실'도 새로 지어졌다.

인공지능은 선수들 컨디션 관리에도 활용된다. 잉글랜드 대표팀 식당에는 '웰빙존'이 있다. 이곳에서 선수들은 매일 아침 수면·통증·피로도 등을 입력한다. 이런 정보는 실시간 분석돼 코치, 물리치료사, 의료진 등에게 제공되고 훈련 강도와 식단, 회복 프로그램에 적용된다.

이 같은 AI 기술은 국가 간의 축구 실력 차를 더 벌릴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아이슬란드의 분석가 톰 구달은 "잉글랜드는 막대한 자원과 자금, 인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 처지와는 극과극"이라고 말했다.

대한축구협회는 2023년 12월 기술 본부 산하에 전임지도자, 피지컬 트레이너, 의무 트레이너, 분석관, 연구원들이 통합된 하이퍼포먼스 그룹을 조직해 운영하고 있다. 김지훈 팀장은 "잉글랜드 대표팀 같은 수준은 아니지만 우리 성인 대표팀도 유수의 전력 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 향후 최첨단 기술을 접목하기 위해 국제적인 트렌드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AI가 축구 관련 직업을 없애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있다. 이에 대해 롱은 "AI는 인간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코치의 결정을 보조하는 도구"라고 강조했다.

이해준 기자

'이을용 아들' 이태석, 유럽 경험이 보약

올해 A매치 13경기서 12차례 출전
오스트리아 리그 옮겨서도 맹활약

이을용의 아들 이태석(23·아우스트리아 빈)이 쑥쑥 자라고 있다. 1년 전 이맘 때만 해도 이태석은 갓 태극마크를 단 신인에 불과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쿠웨이트 전을 통해 국가대표팀 평가전(A매치)에 출전을 치렀다. '꾸준히 흥명보 축구

대표팀 감독의 부름을 받아 아버지처럼 월드컵 무대를 밟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거의 이뤘다. 이태석은 올해 흥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에서 가장 눈에 띈 수비수다.

이태석은 대표팀 주전 왼쪽 풀백 자리에 굳혔다. 올해 흥명보 팀이 치른 13차례 A매치에서 12차례나 출전하며 탄탄한 수비 실력을 인정받았다. 지난 달 18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가나와의 올해 마지막 평가전(1-0승)에선 대표팀 데뷔골도 터뜨렸다. 이강인(24·파리생제르맹)의 패스를 헤딩 결승골로 연결했다. 짧은 시간 내 국가 대표급 수비수로 진화한 비결은 '유럽 경험'이다. K리그1 포항 스텔러스에서 뛰던 이태석은 지난 8월 오스트리아 아우스트리아 빈으로 이적했다. 그는 자신의 강점은 최대한 살리고, 약점을 빠르게 보완하는 전략을 택했다. 아버지



오스트리아 빈의 이태석이 7일 프리킥 골을 넣고 기뻐하고 있다. 시즌 2호골. [사진 SNS]

처럼 원발적이 주무기인 그는 훈련과 경기마다 고감도 킥 감각을 뽐냈다. 덕분에 단숨에 주전 풀백과 전담 키커 자리를 꿰찼다. 이적생에게 키커 자리를 내주는 건 유럽에선 보기 드문 일이다.

이태석은 지난 7일 2025-26 시즌 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 16라운드 볼프스베르거전에서 프리킥 골을 성공하며 '골 넣는 수비수' 면모를 뽐냈다. 시즌 2호 골이다. '이젠 아버지보다 키이 좋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아직 멀었지만, 조만간 뛰어넘겠다"며 웃었다. 이를 용도 "아직은 내가 더 키이 좋다"면서 "나를 빨리 뛰어넘기를 바란다. 이를 대신 '태석이 아빠'로 불리고 싶다"며 응원했다.

피주영 기자

채여혜 한의원

Chai Oriental Medicine Clinic

진료 과목

- 모든 통증치료 (좌골 신경통, 두통, 목디스크통증, 요통, 오십견, 관절통, 손목통증, 무릎통증 등)
- 대사증후군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 비만
- 만성피로
- 소화장애, 순환장애
- 불면증, 어지럼증
- 불임, 생리통, 간경증 증상
- 교통사고 후유증

침·부황·뜸·한약 (치료제, 보약)

한국 공진단 판매



한방에서 처방되는
명방 중에서도
으뜸인 최고의 보약!

원장 채여혜

- 북경중의학대학 중의과 졸업
- 중국국의대사 연정화 교수님께 사사
- 상해중의학대학 중의학박사
- 일상 25년 경력



채여혜 한의원

Chai Oriental Medicine Clinic

571-587-4679 / 703-828-0056

4208 Evergreen Ln, Ste 221, Annandale, VA 22003

www.chaiorientalmedicine.com

진료 시간

• 평일: 9am~5pm • 토요일: 9am~1pm

• 야간진료: 예약환자에 한함



2026 메디케어 플랜 가입 및 변경

ONE STOP FINANCIAL SERVICES
UNI와 함께하세요!!

최적의 메디케어 플랜을 찾는 데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메디케어 플랜 가입 및 변경, 전문가의 도움으로 더 쉽게!
상담에서 신청까지 무료! 라이센스 에이전트가 도와드립니다.



문로리

703-895-7648



이린다

443-515-8522



안은신

804-464-3662



이은경

571-303-9060



장미원

703-486-6082



오경자

443-690-4290



올바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선 올바른 교육이 필요합니다.

UNI가 원스탑 재정 서비스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메디케어
세미나**

VA 페어팩스

11/1 (토요일@10am)
11/13 (목요일@7pm)

MD 엘리콧시티

10/8, 11/5, 12/10 (수요일@10am)
10/18, 11/22 (토요일@10am)



직장사고



운동사고



교통사고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진료과목

- Whiplash 전문치료
- 목 디스크, 목, 통증, 두통
- 목이 뻣뻣한 증상
- 목을 돌리기 어려운 현상
- 목을 들지 못하는 증상
- 어깨가 쑤시고 아픈 증상
- 팔이 저리고 감각이 둔한 증상
- 팔을 올리지 못하는 증상
- 허리 디스크
- 허리 통증
-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
- 좌골신경통 마비



Dr. 김진욱

- UCLA Biology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Davenport, Iowa)
- Board Certified in Permanent Impairment Rating
- Fellow of American Back Society
- Member and Board Eligible for Diplomat Status of the American College of Forensic Examiners
- Member of the American Board of Disability Analysts
- Member and Academic Consult of the National Board of Forensic Chiropractors
- Chiropractic Rehabilitation Diplomat Pro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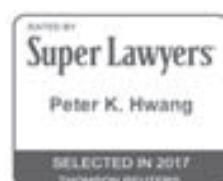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Tel. (703) 691-3111

Office Hours by Appointment



Sung Hwang&Kim | LLP
합동법률사무소



www.shkfirm.com

Toll Free: 888.772.3001



찰리 성 변호사
CHARLEY C. SUNG, ESQ.



피터 황 변호사
PETER K. HWANG, ESQ.



폴 킴 변호사
PAUL W. KIM, JD, MPH.



대니엘 페이 변호사
DANIEL W. PEI, ESQ.

Columbia, MD
Annandale, VA

T. 410.772.2324
T. 703.436.1444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7353 McWhorter Pl., Unit 202, Annandale, VA 22003

12월

구

인

광

고

함께 성장할 회사 임원(Director)을 찾습니다.

미국 FDA에서 정식으로 판매 허가를 받은 제품과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미국 전역에 사업을 펼치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회사 임원(Director)으로 참여하여 회사의 성장과 베네핏을 함께 나눌 비전과 열정 있는 분을 찾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아래 이메일로 연락 주시거나, 문자로 연락 주시면 편리한 시간에 미팅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분을 환영합니다

- 미래를 준비하며 안정적이면서도 성장 잠재력이 큰 일을 찾는 분
- 미국에서 새로운 가능성과 전환점을 만들고자 하는 분
- 역량에 따라 무한한 수의 창출이 가능한 기회를 원하시는 분
-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성향, 성실하며 대인관계가 원만한 분
- 은퇴 후 새로운 일을 찾고 계신 분
- 나이, 성별, 이중언어 여부 무관
- 영어 또는 기타 외국어 가능자는 추가 기회가 주어집니다.
- 본인의 일정에 맞춰 유연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 애난데일, VA (P & A USA Inc)

mydexa21@gmail.com / 571-668-0805 (문자요망)

파리 바게뜨 베데스타 Paris Baguette Bethesda

경험있는 제빵사,
케이크 데코분들
모십니다

301.312.2328

Ackfandb@gmail.com

WBS 월드뱅크카드 서비스 직원 모집

WBS Processing과 tech support
부서에서 함께 일하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모바일 앱과 POS 영업에
관심있는 직원도 모집합니다.
업계 최고대우 보장

관련 업무 경험자 우대하며,
체계적인 교육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 703-225-5500
hr@worldbankcard.net

SD Mechanical 테크니션 직원 모집

대형 슈퍼마켓
냉장 · 냉동

서비스 & 설치 전문 회사
유경험자 또는 관심 있으신 분

서비스 지역
VA · MD · DC

703.447.4683

sdmechanical.office@gmail.com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Fairfax 인근 공원과 숲 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걷기 좋아하시는 분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아침 숲 속을 걸으면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옵니다.”

구인

Home Improvement

에서 함께 일하실
윈도우·도어
경력자 구함
합법 신분자



703.944.8433

황계실 부동산

고객만족 17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부동산 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571-239-6054

구인

뷰티케어 브랜드 회사

마케팅 세일즈 직원 모집

- 영어/한국어 가능
- 출장 업무 필수
- 운전 경력 풍부하신 분
- 취업에 결격 사유 없으신 분
- 근무지: Rockville, MD / 타주 가능

이력서: RnRniacct@gmail.com

301.468.8949

www.onnaturalusa.com

금매

Korean BBQ
& Hot Pot
케이터스버그, MD

최적의 위치
140석 이상, 3,000sf 규모
저렴한 렌트
매매가격 Only
\$280,000

최근에 새로 지어서
리모델링 비용절감

240-988-6868

매매

확실한 순익보장 데리

DC SW 매매가 32만불 (cash only)

- 연간 수익 15만불이상 (주매상 만불)
- 수월한 운영 (키오스크 시스템)
- 저렴한 렌트비 (\$2700/월)
- 오랜 경험의 믿을만한 직원 2명
- 주 5일 (6am ~ 3pm)
- 공실위험 없는 건물

703.300.7207 (텍스트)

관심있는 분만 연락주세요

메디케어 점문기 · 점선판 보험

건강 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브리지원 보험
(BridgeOne Insurance)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L & B Universal, Inc. 히팅·냉동

리셉션리스트 구함

- ◎ Chantilly, VA 지역
- ◎ 이중언어 필수
- ◎ 근무시간 조정 가능 (풀타임)
- ◎ 인터뷰 후 급여 조정 가능

703.622.7737

accounting@lbuniversal.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 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색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5년 12월 10일 수요일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3

메릴랜드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메릴랜드 봉고메리몰 시계 및 쥬얼리샵에서 일하실 분 구합니다. 학생 환영
301-365-7794

워싱턴 베다니 장로교회(게이더스버그소재)에서 주일 1부 예배를 섬겨주실 반주자 한 분을 모십니다.
-예배시간: 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연습시간 오전 7시 20분 및 예배)*일년에 두 차례 있는 특별 새벽기도회 때 이를 간 반주하여 애함
-지원자격: 세례교인으로 교회 반주에 은사와 사명감이 있는 분(성가 및 복음성가)
-제출서류: 이력서 및 신앙고백이 담긴 간단한 자기소개서
-제출처: BPC.Music.Dept@gmail.com
-제출기한: 청빙시까지
-사례비: 교회 내규에 따름(추후통보, 혹시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문의 바랍니다)
-문의사항: 이민형 장로: 216-870-9234
이메일: leeminhung7896@gmail.com
김요한 목사: 301-215-0065
이메일: shalom1984@gmail.com
-교회주소: 1201 Quince Orchard Blvd. Gaithersburg, MD 20878
TEL: 301-670-1200
<http://bethanyusa.org/>

뷰티케어 브랜드 회사 직원 모집
마케팅 세일즈 분야, 영어/한국어 가능
출장업무 필수, 운전 경력 풍부하신 분
취업에 결격 사유 없으신 분
근무지: Rockville, MD / 타주 가능
이력서: RnRnacct@gmail.com
문의: 301-468-8949

콜롬비아 복지센터에서 함께 일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RN 간호사, 운전 기사(온니 거주 환영)
주방보조
▶ 443-691-7968

BridgeOne Insurance MD
보험 에이전트 구함, 사무실 제공, 유/무 경험자 가능
▶ 703-598-3316, 703-862-5395

H-Mart 메릴랜드 직원 모집
모집부서: 인사, 자산, 영업, 물류
근무지: Upper Marlboro MD
베네핏: 401K, 유급 병가/휴가, 보험 등
자격요건: 합법적 근무 조건 소유자
지원방법: <https://www.hmart.com/about-us/careers/job-openings>
▶ 문의전화: 201-554-6047

실버스프링에 위치한 종합보험 에이전트에서 함께 일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페인어) 가능한 유, 무경험자 구합니다.
albert@wkkinc.com
▶ 301-526-7000 (Cell) Mr. Kim
메릴랜드 주 로크빌에 있는 병원에서 라셉션 니스트와 직원을 구합니다.
영주권 스폰 가능/ 월요일~금요일 정규직 & 파트타임/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구사해야 합니다. 이력서를 LaurenKim@gmail.com으로 보내거나
▶ 301-275-2357로 전화하세요.

락빌 롯데 플라자 마켓에서 함께 일하실 전산 아이템 코디네이터를 구합니다.

▶ 301-417-8678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 모집

업무: 주방 보조(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 P: 301-942-5071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 모집: 운전기사 / 간호사(RN)

- 건강보험 -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 443-828-7777

세탁/이미용/기타

글렌버니 리커스토어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구합니다. 유경험자, 파티임

443-262-1813

DC-CUA 메트로 근처

American Breakfast에서 서버 구합니다.

풀&파티임(6am-2pm) \$18/hr + tips

703-785-8763

어큐라 MDX 2012년 134,000 마일리지

타임 벨트 & 배터리 교체, 그레이 색상,

굿 컨디션

703-909-9377

최고급 등산 장비 팝니다.

아래 번호로 메세지 남기시면 바로 전화드리겠습니다.

703-869-5919

PG 카운티 리퀴스토어 라리스틱 험파인

2~9pm 일하실 분 구함(금, 토 포함)

301-336-2500

손사이딩 올드하우스 메캐닉 헬퍼 구함

703-955-2827 / 540-680-1571

홈 인프루브먼트 회사에서 함께 일하실 원도우, 도어 경력자 구합니다.

합법적 신분자에 한함

703-944-8433

토요 핸디맨 (전기, 목수, 타일, 배관, 창문,

마루, 페인트)

443-994-3415 (전화 메세지 주세요)

영어 가능한 멜리 매니저 구합니다.

DCSW(월~금, 6am-3pm)

703-300-7207 (문자)

파리바게뜨 베네스다에서 경험 있는 제빵사

나 케이 대코분들 모십니다.

301-312-2328

Ackfandb@gmail.com

비속령 영주권 프로그램

변호사가 운영. 널심홍. 나이, 학력, 경력, 성

별 무관, 직계 가족도 영주권 혜택

웹사이트: useb3.com

문의 이메일: admin@eb3recruit.com

전화: 571-546-8683

싱글/타운 방 렌트

엘리컷시티 롯데에서 함께 일하실 전산 아이템 코디네이터를 구합니다.

▶ 443-631-7866

엘리컷시티 롯데 5분거리, 밝고 깨끗한 싱글 하우스 워크 아웃 지하, 방2, 욕실, 취사 가능

▶ 443-630-2322

조용/교통 편리한 위튼 도서관, 한아름, 메트로 근처 싱글 방이나 렌트
아파트식, 뒷문 별도, 인터넷, 직장인 환영

▶ 301-655-3248

메릴랜드 저먼타운 싱글 흄 2층 방 렌트
유포, 직장인, 잠만 주무실분 \$700

▶ 240-393-3615 (문자 요망)

메릴랜드 저먼타운 싱글 방이나 렌트 합니다.

욕실, 주방, 가구, 인터넷 완비

▶ 301-533-1438

메릴랜드 저먼타운 힐튼 하우스 전체 렌트
방3, 화3.5, 10월 1일부터 입주 가능

▶ 301-219-6030 (문자 요망)

메릴랜드 하워드 카운티 반지하 전체 렌트
방2, 부엌, 욕실, 세탁실, 출입문 별도, 롯데에
서 15분 거리

▶ 443-797-7293

실버스프링 루트 200, 95, 495 근처,
싱글 방이나 렌트 합니다.

▶ 301-962-0728 / 240-997-3168

495와 95번이 만나는 첫 번째 입구, 메릴랜드 대학 가까운 싱글 흄 이층 방 렌트

▶ 301-385-3535 (문자 요망)

메릴랜드 그린벨트 지역, 조용하고 교통 편리
타운하우스 방이나 렌트, 즉시 입주 가능,
방세 저렴

▶ 301-379-9660

사업체 매매

1. 멜리/카페 1,400sf & 패어팩스

렌트 \$2,500, 5만5천불

2. 치킨 프랜차이즈 95만불, 주매상 3만

3. 일식점, GMU 근처 20만불, 주매상 1만5천

▶ 703-303-8003

1. DC NW 잘꾸며진 한식/분식 식당 19만

2. DC NW 드라이크리닝 픽업, 주매상 9천,

주 5일, 대로변 위치

3. 치킨 프랜차이즈 3곳, VA, MD

4. 콩후터, Bakery 등 리스팅

▶ DJ Lee 703-303-8003

베데스타 텔리 \$170,000

너무 좋은 자리, 1200 SF, 주매상 \$10,000
렌트 \$5,791

▶ 703-928-5990

확실한 순익 보장 텔리 매매

DCSW 매매가 32만불 (cash only)

연간 수익 15만불 이상 (주매상 만불)

수월한 운영 (키오스크 시스템),

저렴한 렌트비, 오랜 경험의 믿을 만한 직원,

공실 위험 없는 건물, 주 5일 (6am-3pm)

꼭 관심 있는 분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703-300-7207 (문자)

Korean BBQ & Hot Pot 급매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브래드 패밀리 치과

진료 과목

- 임플란트
- 신경치료
- 교정
- 발치
- 크리운
- 임플란트 틀니
- 충치치료
- 전체/부분 틀니
- 일반치과
- 미용치료
- 잇몸치료
- 응급환자

진료 시간

월 ~ 금: 8 AM ~ 5 PM

수요일: CLOSED

571-339-3628

571-339-3682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합니다!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장소: Chantilly, VA 20151

시간: 조정 가능(풀타임)

급여: 인터뷰 후 조정 가능

전화문의: 703-622-7737

Email: accounting@lbuniversal.com

하이트론스(Hitrons) 버지니아 센터빌 지점

Full time & Part time 세일 담당 모집

가전제품 및 마사지체어, 매트리스 전문 매

장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급구합니다.

▶ 201-417-5350

러브핸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C14

구인/구직광고와 개인렌트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10일 수요일 중앙일보

No exp.require 이중언어,
▶tysi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식당/식품

애난데일에 위치한 제과점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모십니다.
캐쉬어 플타임(유/무 경험자)
제빵사 플타임(유경험자)
703-625-8525

DC-CUA 메트로근처
American Breakfast에서 서버 구합니다.
풀&파타임(6 am - 2 pm) \$18/hr+ tips
703-785-8763

우드브리지 팬티코 부대안에 있는 일식당에
서 함께 일하실 웨이츄리스 구합니다.
신분 확실하시고 영어 가능하신분
703-640-7488/443-978-0900

영어 가능한 멜리 매니저 구합니다.
DC SW(월~금, 6am - 3pm)
703-300-7207 (문자)

HashiSushi 일식당에서 서버, 어시스턴트
매니저 구합니다.
영어 필수. 경험자 폐지 우대
703-628-9168 (문자)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조성수 점장
▶703-573-6300

롯데프라자 스텔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셔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jiang.sterling@gmail.com

점보 인터내셔널 수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 주세요. 풀타임, 파트타임
▶571-991-4172

이미용

매나사스 파크 바버샵에서 함께 일하실
바비를 모십니다
일주일에 3, 4일 일하실분
703-473-9771

세탁/얼터레이션

알링턴 DC 지역 세탁소에서 직원 구함
풀/파타임 카운터 보실분
풀/파타임 얼터레이션 하실분
571-455-3609

알렉산드리아 테일러 샵에서 바느질 하실분
모십니다.

3일 파타임 가능하신분
703-328-3064

자동차 / 정비/바디샵

풀스쳐치 지역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케닉
유경험자 구합니다. 첫째/셋째 토요일 휴무
571-332-6110

엘리곳시티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케닉 기술
자 구함
410-446-9981

기타 구인

손 사이딩 울드하우스 메케닉 헬퍼 구함
703-955-2827 / 540-680-1571

홈 인프루브먼트 회사에서 함께 일하실 원도
우, 도어 경력자 구합니다.
합법적 신분자에 한함
703-944-8433

No.1 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센터빌)
▶571-591-4455

싱글/타운홈 렌트

애난데일 타운홈 렌트 \$3,400
방3, 화 3.5, 최신식 최고급으로 업그레이드
이드된 집, 화려하게 잘 꾸며 놓은 부엌
과 화장실, 집 전체 나무마루, 넓은 데크,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모델 하우스 보다 더 예쁜집, 교통편리,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매나사스 기차역 가까운 타운홈 \$2,900
방3, 화 2.5, 차고 2, 앤드 유닛
▶703-489-6926

페어팩스 비엔나역 타운홈 전체 렌트
방4 화 3.5 \$3,200 or 일부 방3 화 2.5
\$2,200
470-485-1875

센터빌 H 마트에서 10분 거리 타운하우스
\$2,350(유틸리티 별도)
방3, 화장실 1.5, 뉴 리모델링, 개/고양이 가능
12월 11일 입주, 단기 렌트도 가능
571-345-6667

GMU 대학 체육관 뒤 조용한 싱글홈 전체 렌트합니다. (웃슨 하이 학군)
방4, 화 2.5, 차고 2, 교통 편리 (조지메이슨 1
마일, 페어팩스 H 마트 1.3마일)
703-350-2278

스프링 필드 싱글홈 (애난데일 부근)
방3, 화 2, 즉시 입주 가능 \$3,600
▶703-231-5572

우드브릿지 3 Levels Townhouse 렌트
\$2,400, 방3, 화장실 3.5, 업그레이드된 지붕,
창문, HVAC, 탁트인 넓은 부엌, 2 Master
Suit Bedroom(윗층),
펜스 있는 뒷마당, 감나무가 있는 앞마당, 교
통편리, 밝은 타운하우스,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페어팩스 타운하우스 \$2,900
로빈슨 하이스쿨 근처 1,496sqft 전체 렌트

방3, 화 3.5,
703-470-1736 / 703-470-7066

애난데일에서 5분거리 싱글홈 웨이트(아랫층
과 완전분리) 렌트합니다.
방3, 풀 화장실, 리빙룸, 큰 데크, 큰 창고, 차고 2
개, 넓은 뒷마당, 395/495/953분 거리
703-508-5405 (Julia Jin)

애쉬번 타운홈 렌트 \$3,300
전체 마루, 차고 2, 데크, 267/607
Briar Woods 하이스쿨 학군
▶571-239-6054

1. 페어팩스 타운홈 \$3,300
방3, 화 2.5, 차고 1, End Unit, 편리한 로케이
션, 잘 관리된 집
2. 센터빌 타운홈 \$3,000
방3, 화 2.5, 차고 1, End Unit, 업그레이드 많
이 함, 굿로케이션
3. 스프링필드 타운홈 \$3,000
방2, 화 2.5, 2 assigned 주차, 밝고 환한 집,
업그레이드 많이 함, 교통 편리
▶703-919-0472

콘도 렌트

센터빌 롯데 근처 콘도 전체 렌트합니다.
방2, 화 2.5, 교통 편리, 즉시 입주 가능
\$2,180
301-466-1646

애난데일 콘도 \$1,500
방1, 화장실 1, 고급스런 나무 마루, 탁트인
넓은 콘도, 업데이트된 부엌, 계단없는 1층
나무가 보이는 넓은 발코니,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알렉산드리아 콘도 \$2,600
방2, 화장실 1, 1,105 SF 넓은 콘도,
13층으로 탁트인 조망, 엘리베이터,
\$100,000 가량 수리하고 업데이트한 모델
하우스 같은 콘도,
넓은 새 창문, 최고급스런 부엌, 넓은 리빙룸,
리모델한 화장실, 새 페인트,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매나사스 콘도 \$1,700
방1, 화장실 1, 앤드 유닛 880 sf, 넓고 밝은
콘도, 세탁기, 건조기, 새 화장실, 나무 마루
거실, 새 페인트, 넓은 발코니, 코스트코에서
1분 거리,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애난데일 H 마트 근처 콘도 전체 렌트
방1, 화 1, 주차 2, 완전 리모델링, 모든 가전
제품 새것, 즉시 입주 가능
703-268-8669 (문자요망)

한돈 새 콘도 렌트 \$3,000
방2, 화 2.5, 차고 1, 이노베이션 메트로에
도보, Village Center at Dulles shopping
mall, 자이언트, 1,600sf, RT267/28, 최
고 교통 요지
▶571-239-6054

애난데일 타운하우스 밝고 조용한 웨이트 렌
트 합니다.
나무 마루, 유포, 교통 편리, 여성 분 환영
고양이 허용
▶571-345-8879 (문자요망)

애난데일 메시아 장로 교회 뒤 타운홈 2층 방
하나 렌트, 남자분 환영
703-887-5173

애난데일에서 5분거리 싱글홈 웨이트(아랫층
과 완전분리) 렌트합니다.
방3, 풀 화장실, 리빙룸, 큰 데크, 큰 창고, 차고 2
개, 넓은 뒷마당, 395/495/953분 거리
703-508-5405 (Julia Jin)

센터빌 CVS 근처 깨끗한 싱글홈 2층 방하나
렌트, 가구/취사/세탁/인터넷 완비, 여자분
환영, 즉시 입주 가능
571-758-7117

방 렌트

애난데일 도서관 옆 큰 싱글하우스 마스터 베
드룸 렌트합니다
유포, \$1,000, 직장인 여성 분 환영
703-350-1986

센터빌 H 마트 5~10분 거리, 싱글하우스 밝

고 조용한 웨이트 방, 마루, 유포, 교통 편리, 여
자분 환영
571-345-8879 (문자요망)

페어팩스 조지메이슨 & 노바 대학 근처 방렌
트, 금연자, 즉시 입주 가능
703-472-2295

게인스빌 타운홈 베이스먼트 워크 아웃 방하
나 렌트합니다. 거실/화장실/세탁실/침만
주무실분
703-732-1246

센타리 롯데 근처 싱글하우스 워크 아웃 방렌
트 남자분 환영
703-344-6273

애난데일 월룸 스타일 방 렌트합니다. 방안
에 샤워실, 키친, 냉장고, 침대, 책상 등 갖추
어져 있고 깨끗합니다.
571-232-6052

로튼 (애난데일에서 15분 거리) 조용한 주택
가 1층 같은 워크 아웃 베이스먼트 전체
방 3개, 주방, 냉장고, 세탁기, 인터넷, 유저
리티 포함, 출입문 별도, 2500 sqft
571-488-5860

애난데일 H 마트 옆 밝고 조용한 콘도 방하나
렌트, 남자분 환영
571-326-5605 / 301-266-1858

애난데일 큰 싱글홈 밝고 큰 화장실 딸린방
렌트합니다. 교통 편리 롯데 1분 한강 식당 1
분 거리, 입구 별도, 주차 넉넉
703-395-4380 / 703-965-2343

스프링필드 지역 조용한 싱글홈 방렌트,
간단한 취사, 가구 완비, 인터넷, 학생 또는 직
장인 여성 환영
571-286-2439

스프링필드 (Backlick & Braddock이 만나는 곳)
조용한 싱글홈 베이스먼트 방렌트
워크 아웃, 간단 취사 가능, 교통 편리, 주차 넉
넉, 남자분 환영
703-750-2795

GMU 근처 조용한 동네 싱글하우스 옥실 딸
린 큰방 하나 렌트합니다.
남자분 환영, 즉시 입주 가능
240-271-1879 (문자요망)

애난데일 예촌암 타운하우스 방렌트
가구 완비, 취사 가능, 직장인, 학생 환영
703-622-2033

애난데일 타운하우스 밝고 조용한 웨이트 렌
트 합니다.
나무 마루, 유포, 교통 편리, 여성 분 환영
고양이 허용
▶571-239-6054

1. 센터빌 타운홈 \$600,000
방3, 화 2.5, 차고 1
2. 센터빌 타운 하우스 \$700,000
방3, 화 2.5, 차고 2
3. 비엔나 콘도 \$325,000 방1, 화 1
▶703-919-0472

챈들리 금매 타운하우스 \$300,000
방2, 화 1, 아담한 뒷마당
▶703-231-5572

애쉬번 타운하우스 \$660,000
방4, 화 3.5, 차고 2, 최고 학군, rt267/7, 델
레스 공항, 전부 리모델링, 새집 같음
▶571-239-6054

스프링필드 타운 하우스 \$710,000
방3, 화 3.5, 차고 1, 집 전체 업그레이드, 엔
드 유닛, 새 페인트, 새 데크, 워크 아웃 베이스먼

페어팩스 방 렌트 또는 하숙 하실 분 구합니다
GMU, 노바에서 5분거리,
방/화장실/부엌/세탁기 모두 별도,
편리한 파킹
703-388-8518

사무실/점포 렌트

애난데일 오피스 전체 렌트
나무 마루, Newer Windows, 계단 없는 1층
위치, 새로 단장한 화장실, 넓은 주차장, 교통
편리 \$2,000 즉시 입주
▶703-477-3114

애난데일 (자이언트 근처) 오피스 렌트
룸 4개, 화장실, 주차 다수
301-741-6567

센타빌 던킨 뒤 환한 오피스 콘도 렌트
\$1,900, 1,200sqft,
룸 3개, 화 1, 오픈 스페이스, 파킹 다수,
RT29/66/28/286
▶571-239-6054

애난데일 지역 오피스 렌트
오피스 전체 4 Room \$1,600 사무실
\$500 (전기, WiFi 포함)
703-209-5150 (문자요망)

부동산 매매

알렉산드리아 3층 타운홈 \$749,900
방3, 화 3.5, 차고 2, 교통 편리
▶703-489-6926

우드브릿지 싱글홈 \$970,000
Woodbridge의 Powells Landing 단지내
court에 있는 싱글홈
▶703-622-0312

센타빌 타운하우스 \$499,900
방

중앙생활안내광고 Classified

중·일보 2025년 12월 10일 수요일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5

트, 최근 에어컨, 히팅, 지붕, Appliances 모 두교체
▶ 703-813-8949

Dumfries 타운홈 \$469,900
2006년 새단지, 방3, 화3.5, 치고2
업데이트(에어컨, 히팅,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As is condition으로 싸게 나온집
▶ 703-813-8949

엘리컷 시티싱글홈 \$749,000
방4, 화3.5, 치고2
▶ 301-318-4242/443-668-0453

1. 워싱턴 디씨 듀플렉스 \$950,000
방4, 화장실 4+1, 치고1, 새집, 편리한 교통, 모던하고 예쁜 집
2. 워싱턴 디씨 SE 타운 \$649,000
방5, 화장실 3+1, 새타운 하우스, 모던하게 지은 예쁜 집
▶ 410-417-7080

1. 매릴랜드 포토맥 싱글홈 \$1,075,000
방4, 화장실 2+1, 치고2 포토맥에 위치한 잘 꾸며진 집, 좋은 가격
2. Nottingham 타운홈 \$349,900
방4, 화장실 3, 최근에 전부 새로 고쳤으며, HOA가 없는 집
3. Elkrige 타운홈 \$625,000
방3, 화장실 2+2, 치고2, 아주 넓고 이쁜 집, 마루 바닥, 1층에 안방
4. 실버스프링 타운홈 \$750,000
방3, 화장실 3+1, 치고2
13년된 벽돌로 지어진 고급 타운홈,
5. 엘리컷 시티싱글홈 \$820,000
방5, 화장실 3+1, 치고2, 밝고 이쁘게 잘 꾸며진 집, 넓은 뒷뜰
▶ 410-417-7080

1. 패어팩스 싱글홈 \$999,000
방5, 화장실 4+1, 치고2, 넓은 구조와 잘 가꾸어진 집, 벽돌, 마루 바닥
2. 패어팩스 싱글홈 \$1,050,000
방4, 화장실 3+1, 치고2, 우수한 학군, 편리한 교통, 최근에 업데이트
3. 비엔나 싱글홈 \$1,875,000
방6, 화장실 6, 치고2, 새집같이 아주 멋지고 고급스러운 집, 편리한 교통
4. 패어팩스 타운홈 \$850,000
방4, 화장실 3+1, 치고2, 앤드 유닛, 아주 밝고 이쁘게 잘 꾸며진 집
▶ 703-899-8999

1. 던로링 메트로 앞 콘도 \$460,000
방1, 화1, 1/2층 오픈 LOFT 835 sqft, 전부 리모델링, 나무 마루
2. 맥클린 콘도 \$389,000
방2, 화2, 1,050 sqft Mclean High, RT495, 66/26/7
Metro, Tysons Galleria 옆
▶ 571-239-6054

도미니언 벨리 컨트리 클럽, 헤이 마켓 싱글 \$1,699,000
1에이커 숲속, 6,700 sqft, 방5, 화5.5, 치고3, 선룸, 고급 조명, 트레이 천장, 스파 욕실, 드레스룸, 인로우스위트, 미디어룸, 게임룸, 바 포함, 최신 HVAC, 정수 시스템, 아외리 조트 스타일 \$460K 업그레이드
▶ 571-239-6054

사업체 매매

애남데일 버지니아 자동차 메카닉샵
차고 2개, 서비스베이 4개, 주차공간 총 분, 즉시 운영 가능, 퍼밋 완료, 1백 10만불
▶ 703-928-5990

1. 밀리/카페 1,400sf & 패어팩스
렌트 \$2,500, 5만5천불
2. 치킨 프랜차이즈 95만불, 주매상 3만
3. 일식집, GMU 근처 20만불, 주매상 1만5천
▶ 703-303-8003

1. DC NW 잘꾸며진 한식/분식 식당 19만
2. DC NW 드라이크리닝 픽업, 주매상 9천, 주5일, 대로변 위치
3. 치킨 프랜차이즈 3곳, VA, MD
4. 쿵후티, Bakery 등 리스팅
▶ DJ Lee 703-303-8003

베더스타 렌트 \$170,000
너무 좋은 자리, 1200 SF, 주매상 \$10,000
렌트 \$5,791
▶ 703-928-5990

확실한 순익 보장 렌탈 매매
DCSW 매매가 32만불 (cash only)
연간 수익 15만불 이상 (주매상 만불)

수월한 운영(키오스크 시스템), 저렴한 렌트비, 오랜 경험의 믿을 만한 직원, 공실 위험 없는 건물, 주 5일 (6 am ~ 3pm)
꼭 관심 있는 분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703-300-7207(문자)

델리샵(DC) \$150K
DC 내 위치, 장사 잘 되는 곳이나 은퇴 예정, 안정된 수입, 투자용
▶ 703-625-9909

중고 매매 / 기타

어큐라 MDX 2012년 134,000 마일리지
타임 벨트 & 배터리 교체, 그레이 색상,
굿 컨디션
703-909-9377

최고급 등산 장비 팝니다.
아래 번호로 메세지 남기시면 바로 전화드리겠습니다.
703-869-5919

비숙련 영주권 프로그램
변호사가 운영. 널성향, 나이, 학력, 경력, 성별 무관, 직계 가족도 영주권 혜택
웹사이트 : useb3.com
문의 이메일: admin@eb3recruit.com
전화 : 571-546-8683

상태 좋은 남/여 중고 골프 세트 싼 가격에 팝니다.
703-966-9072 (Mr.Kim)

색소폰, 클라리넷, 호른, 트럼펫, 트럼본, 플루트 - 악기별 개인 맞춤 레슨
757-338-8496

무빙 세일 (센터빌)
다이닝 테이블, 소케이스 그림, 유로피안 장식 품, 골동품, 청동으로 된 인어공주, 자수정 수집 품, 강아지 캐리어 등등
808-223-4825

건축/페인트/마루

손 사이딩 올드하우스 메캐닉 헬퍼 구함
703-955-2827 / 540-680-1571

구인-리모델링 건축회사에서 같이 일하실 기술자, 헬퍼 직원들 구합니다.
703-499-4494

리모델링 부엌, 화장실, 애디션, 멕, 팬스, 지붕
제너럴 컨트랙터 MR. 박
703-434-2810

JGL 건설 회사
하청없이 25년 이상 숙련된 본사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 571-213-8678

JL CONTRACTOR INC.
지붕 고민/돈 걱정 그만하세요
▶ 703-835-0945

형제 건축 & 자문
가정용, 상업용, 부엌, 화장실, 지하실
믿고 맡기시면 최상의 결과를 드립니다.
▶ 703-928-6255

TOP 건축 콜롬비아 MD
- 집수리 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 주방, 욕실 / 전기 설비, 타일 마루 / 루핑, 카펫, 페인트 / 각종 목수 일체
▶ 443-980-1167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고
만들어 드립니다.
▶ 703-910-0400

레드문 페인트
하우스 페인팅 (In, Out), 멕, 메인 터너스 와 클리닝, 샌딩, 파워 워시, 핸디맨 서비스
▶ 문의: Mr. 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 건축
빌딩 시설 관리 전문 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 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자체 라이센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 703-504-6116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멕, 그외 모든 공사, 주
정부 라이센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카톡 아이디: wan16811
▶ 571-331-6811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 목수, 각종 집수리
▶ 240-687-5155

보험

생명보험, 은퇴연금, 비즈니스 세금 절감 플랜
까지 전문적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안전한 미래를 준비하세요.
703-939-2737

지금 연금, 정말 만족하십니까?
한 번의 점검이, 내일의 차이를 만들습니다.
703-577-8181

정문기 메디케어 보험
65세 되는 1960년생 신규 가입 신청 도와 드립니다.

▶ 703-598-3316

옴니파이어 사업체, 자동차, 집, 의료, 생명 보험
▶ 1-866-915-6664

정선화 브릿지월 메디케어 / 메디케이드 보험
▶ 703-862-5395

조은혜 종합 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 접수 / 자동차 / 주택 / 사업체 보험
▶ 703-591-0009 / 703-537-9899

융자

로리문 맞춤형 연금 & 재정 관리
▶ 703-895-7648

제인 최융자 25년 경력 매입 / 재융자 / 특수
▶ 703-244-3453

マイ클 장융자 주택 / 상업용 융자 / 재정 상담
▶ 410-370-4229

유나이티드 모기지 네이션
- 낮은 이자 / Cash out / 명의 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 703-204-0022 / 703-727-9730

소독/가스검사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 410-370-8057

라돈 가스 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NRPP 면허 소지
▶ 202-774-6554

냉동 / 히팅

SD MECHANICAL 테크니션 모집
대형 슈퍼마켓 냉장 냉동 서비스와 설치 전문 회사로 냉장 냉동 쪽에 경험 있으신 분이나 관심 있으신 분 지원 부탁드립니다.

서비스 지역 VA, MD, DC
Email: Sdmechanical.office@gmail.com
전화: 703-447-4683

KWK 냉난방 BALTIMORE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 프리저 수리 전문, 믿고 맡기시면 최상의 결과를 드립니다.
▶ 443-540-6922 / 410-292-0001

L&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정용 / 산업용 전문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 703-678-1749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히터, 헤드 펌프,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리닝, 가정용 / 산업용
▶ 문의: 703-380-2282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 ELECTRIC CONTROLS SPECIALIST / 냉난방 TEACHER
▶ 410-370-8057

아라 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보일러, 세탁장비, 케리어 웃 장비 수리, Ice Maker, 풀리ング, 지하수 펌프, 정수장치 * 연중 무휴 무료 점검
▶ 443-850-3703 / 410-979-4242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 퀄리티, 워터 히터
▶ 443-280-1873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스 냉동 (가정용 / 상업용) (Mr. Chung)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풀리밍, 워킹 퀄리티, 아이스 머신, 덕트 설치 & 크리닝
▶ 301-572-2786 / 403-953-0801

보석

JJ VA 시계, 보석 수리
기술 배우면서 일하실 분 / 영어 필수 우대
703-691-1993

골든밸리 보석 (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 매입
▶ 703-988-0033 / 301-792-5615

블라인드/카펫

BI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원단, 하이컬리티, 무료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 가격
▶ 571-229-4633

TOTAL BLACKOUT LLC
한국산 블라인드 전문, 버지니아 동부 지사
오픈, AS 전단팀 보유, 놀라운 품질, 저렴한 가격, 모든 샘플 가지고 방문
▶ 703-600-9031

토털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 가격 보장, 카펫 / 하드 우드 / 타일, 주거용 / 상업용 한 번 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럭 파워스 팀 샴푸,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브러쉬, 파워 풀 청소, 응급 수해 복구 및 타일 플로워 웍스
▶ 703-967-4155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온수, 히터 디쉬워셔,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 교체
▶ 703-989-0103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 교체, 배수 펌프, 온수, 히터 교체,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 안팎 물세는 것
▶ 703-499-5984

이삿짐

Movers LLC (GOOD HAND)
-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 쓰레기 / 폐기물 처리
571-982-9871 / 202-802-2858
▶ sales@moversdmv.com

MI 이사 짐 (24/7)
빼른 / 책임 / 깊이 / 산 / 포장 / 이사 / 서비스 / 자재
▶ 571-364-4185
Email : mimovingllc@gmail.com

정크 8282 각종 딜리버리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각종 철거 전문
가정 / 사업체에 안쓰는 가구, 가전품 등 처리해드립니다.
▶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 선택, 확실한 만족, 귀국 이사 짐 포장
사 / 태주 이사 (차량 운송) 무료 견

보험

메디케어 신청 및 보험가입 61년생 무료상담!

서플리먼트 · C 플랜 · 약보험 · 치과 · 안경 · OTC

자동차 · 주택 ·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703-591-0009 / 703-537-9899



냉 · 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 · MD · 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LENNOX Carrier TRANE

Carrier, Lennox
전문설치

AWARDED

Porch Home Advisor BBB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오래되고 잊은 고장이 기계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Since 1988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 시공 및 건물 ·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상가 및 빌딩 신축 · 리모델링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 · 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센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데크,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 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욕실, 주방, 지하실, 리모델링,
페인트 전문**

**목수, 타일, 마루, 데크, 캐비넷
샌딩 보수**

**핸디맨, 플로밍, 전기, HOA
지적 수리**

703.965.3011

유리 / 이삿짐 / 재테크 / 건축 / 전기 / 헬스케어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 ·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 · VA · DC 지역, 신속시공

법양해운

귀국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태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법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기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법양해운 USA Tel. 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KOREA(BUSAN) USA(LOS ANGELES) USA(SAN FRANCISCO)
02-2033-2033 051-469-4191 310-767-5099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귀국, 해외 이사

타주, 시내 이사

귀국, 태주 차량운송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조양운송

20년 전문!!

신속

▶귀국 이사 전문

안전

▶자체 창고 보관

신용

▶타주, 시내 이사

저렴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ICC인가업체

귀국이삿짐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타주이사

100% 자체보험으로

해외이사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시내이사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 703-550-2424 Fax. 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단연 최고의 신문
중앙일보



위성통신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wpk., #310, Annandale, VA 22003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소 톡

소통

JD Star Pest Control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듀 보석

건 축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각종 집수리 일체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다이아몬드
전문점

백금(Platinum)
K14, K18, Setting 전문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결혼 예물 셋팅 전문
순금 아기들 반지 팔찌
남양 진주 각종 보석 취급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각종 보석 긍정 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Elliot City, MD 21043
엘리ott시티 롯데플라자 내

용 자

United Mortgage Nation

소중한 주택 응자는 신뢰 받는 파트너,
United Mortgage Nation과 함께하세요!

(NMLS #: 2425871)

703-204-0022

703-268-3954

www.umnloan.com

에어컨&히팅 / 핸디맨 / 건축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 웨딩 / 부동산 / 데이케어

웨딩스토리

토탈 결혼 준비

- 웨딩 플래너
- 웨딩드레스 & 턱시도 대여
- 웨딩플라워 데코
- 결혼식 장소 및 비용예산 선정

703-642-2247
9502-A Lee Hwy., Fairfax VA 22031

LOVE HAND

Home Health & Adult Daycare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 테아센터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703-657-0944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토탈카펫

30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현대부동산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하고 편안한 집을
소개해 드립니다.

내 집 마련의 꿈!
현대부동산이
함께 합니다.

*상담 환영 (집 파실 분, 사설 분, 경매)

Hyundai 703-813-8949
703-813-8150~5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핫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넥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hvac.com

703.380.2282

궁금한 기사
중앙 일보안에
있습니다

① 위성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rpk., #310, Annandale, VA 22003 T. 703-281-9660

JGL 건설회사

“하청없이 저희 **25년** 이상
숙련된 자랑스러운 시공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8001 Forbes Place, Suite 207
Springfield, VA 22151
Office: **571-213-8678**

MI 이사짐

첫번째 10% 할인
두번째 20% 할인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클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Lee
joytechhvac.com

SK 플러밍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온수, 히터 (가스/전기)
Dishwashers,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 • 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골든 벨라 보석상

• 결혼 예물 전문
• G.I.A 다이아몬드
• 보석, 금 고가 매입
• 순금 야기 돌반자, 팔찌
•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EVERSHINE Construction

KITCHEN & BATH BASEMENT REMODELING

HOME REMODELING
Patio / Fence / Deck / 기타 각종 집수리

VA Class A License / DC / MHIC
evershine-construction.com
info@evershine-construction.com

703.994.2943
Ray Kim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한국산 콤비, 룰스크린 블라인드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한국산 Smart Curtain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blinds.com bbgbblinds@gmail.com

H.P.C 집수리센터

집안팎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일단 전화 주세요!”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센스 보유 *라이벌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형제건축·지붕

H BROTHERS CONSTRUCTION, INC.

가정용 상업용
부엌 화장실 지하실

믿고 맡기시면 최상의 결과를 드립니다.

703-928-6255
14516 Flag Staff Ct, Centreville, VA 20121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 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 집 안팎 물새는 것

24Hr
703.499.5984

홈스 플러밍 켄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플러밍

- ◆ 수도꼭지 교체
- ◆ 씽크 / 디스포져
- ◆ 워터히터 / 물새는 것
- ◆ 하수막힘 / 변기교체
- ◆ 썬펌프 교체

24 hours
7days Service

571.594.4080
VA A 라이센스/보험 13908 Green Trails Ct, Centreville, VA 20121

우주 Mechanical, LLC

- 전기/플러밍/가스/히팅/에어컨
- 역류장치(Backflow)
- MD Fire 스프링클러
- 주방 화재 방지
- 용접(철, 스텐, 알미늄)
- 제작 및 설치
(기친후드, 닥트)
- 보구작업
(수해, 화재, 가구, 곰팡이) 보험처리 가능

DC, MD, WV 라이센스 소지
301-222-3277

블라인드 / 틴트

“100% 한국산 공장직영”

“놀라운 품질 저렴한 가격” 블라인드 하나로 여러분의 집이 확 바뀝니다.

한국 명품 블라인드 드디어 미국 상륙!
VA, MD, DC, PA, NC 전지역을 총괄하는 지사 오픈!!

• 한국산 지브라쉐이드, 전동블라인드, 룰스크린, 허니콤, 스마트커튼
• 최상의 품질, 다채로운 색상과 디자인 및 A/S Team 보유
• 최고급 공기정화, 항균 원단, 방염 기능
• 가정/상업/교회용 등 다양한 맞춤 제작

Total Blackout LLC
Young Lee
무료 방문
상담 및 견적
703.600.9031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 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Karen: Where are you going?

캐린: 어디 가세요?

Sandra: I'm going to see if I can get in night school.

샌드라: 야간학교에 다닐 수 있나 좀 보려고.

Karen: You're going to sign up for night school?

캐린: 야간 학교에 수강 신청하려고요?

Sandra: That's right. I'm going to learn about digital cameras.

샌드라: 그래. 디지털 카메라 좀 배워보려고.

Karen: What for?

캐린: 뭐 하려고요?

Sandra: Because I have one and I don't want to learn about it the hard way.

샌드라: 카메라는 있는데 혼자 실수하면서 배우고 싶지 않아서.

Karen: I can teach you how to use your camera.

캐린: 카메라 사용법은 제가 가르쳐 드려도 돼요.

Sandra: I want to do more than point and shoot.
샌드라: 그냥 대고 찍는 거 말고 제대로 배우려고.

Karen: If you don't understand your class I'll give you a hand.

캐린: 수업이 이해가 안되면 제가 도와드릴 게요.

Sandra: Thanks but I'll give you a lesson when I finish.

샌드라: 고맙긴 한데 강좌 다 듣고 나면 너도 가르쳐줄게.

기억할만한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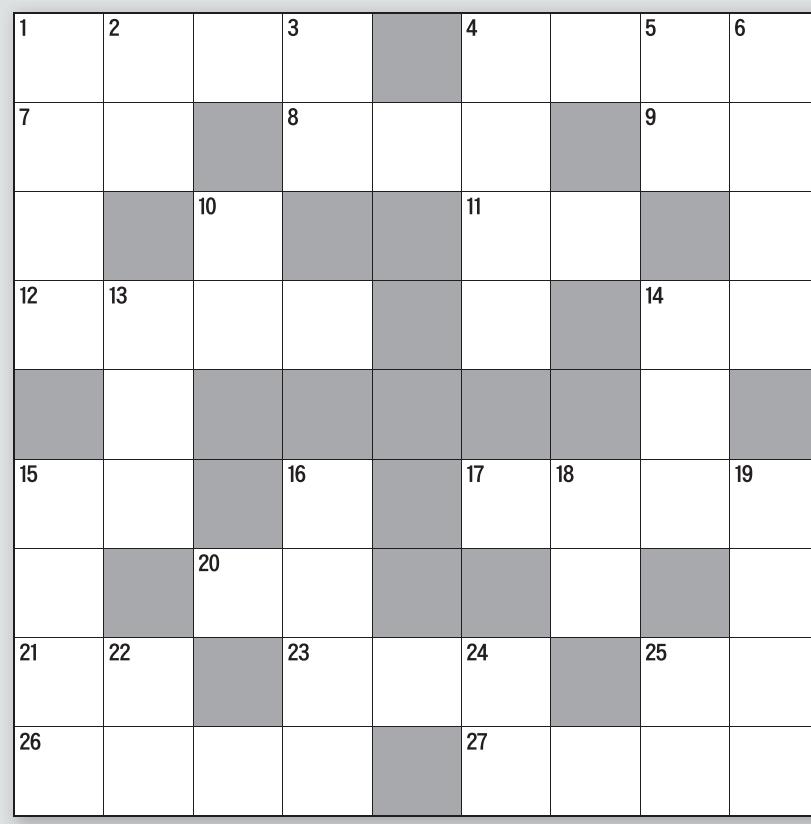
▶ learn (something) the hard way: 실수를 해가며 배우다.

“I learned the hard way that I didn't like being in the navy.”

(해군 복무가 내게 안 맞는다는 걸 실수를 통해 알았어요.)

▶ give (someone) a hand: (누구를) 도와주다.

날짜퀴즈



가로열쇠

(1)나라를 위하여 자기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이바지하는 사람. □□지(2) 서로 마음이 맞아 아주 친하게 지내는 관계. 그 부부는 그렇게 ~이었는데 어떻게 이혼을 할 수가 있지? (7)땅의 모양, 산, 강, 호수와 같은 자연 환경과 길이나 건물 같은 기호로 표시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만들었죠 (8)두 발로 폐달을 밟으면 앞으로 나아가죠. 사이를 (9)도장을 대신하여 손가락에 인주 따위를 묻혀 그 지문(指紋)을 찍은 것 (11)농가에 고용되어 농사일과 임리를 해 주고 대가를 받는 사람 (12)비가 온 뒤에 썩은 초가집 처마에서 떨어지는 검붉은 빛깔의 낙수물 (14)하루 일과를 마친 뒤에 담임 교사와 학생이 한자리에 모여 나누는 인사 (15)여러 형제, 자매 중에서 맨 나중에 난 사람 (17)알맞한 돌을 물 위로 던졌을 때에, 그 뒤기는 자리마다 생기는 물결 모양 (20)방을 덮히려고 아궁이에 때는 불 (21)경도의 막 다른 곳 (23)음력 보름날 밤 (25)부동산을 소개해 준 대가로 주는 돈 (26)어떻게 명년을 기다리느냐. 기다리기가 몹시 지루함 (27)있는 듯 없는 듯 흐지부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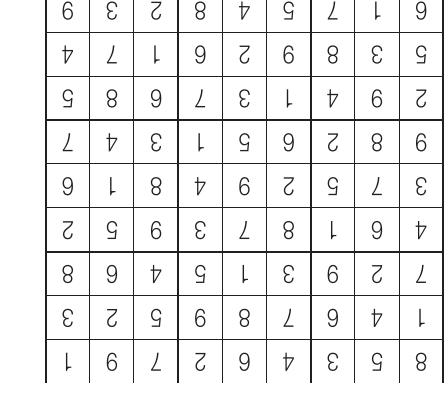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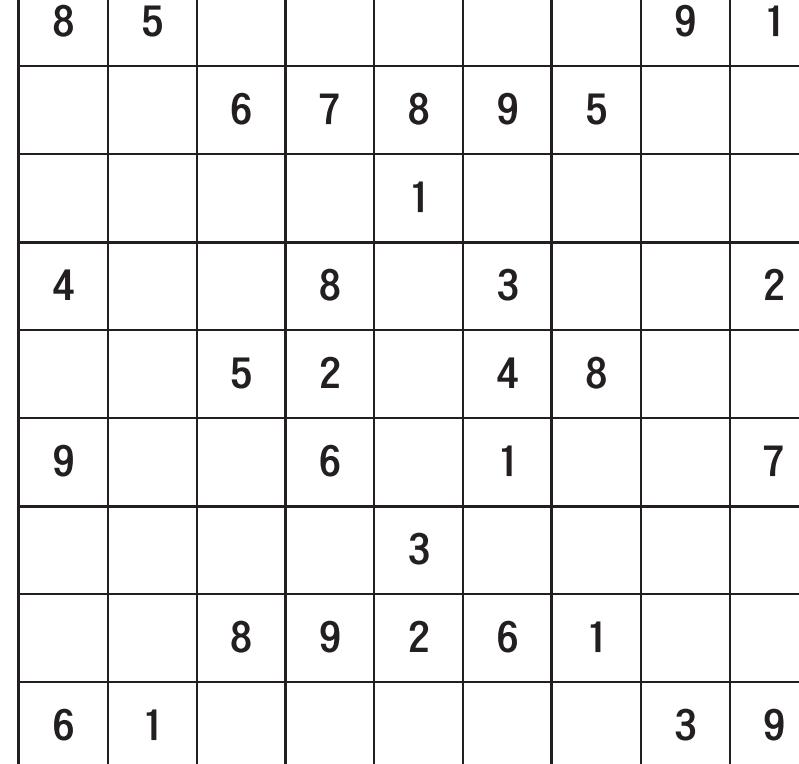
세로열쇠

(1)매우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모양 (2)나라에서 직접 관리하는 도로, 고속 ~와 일반 ~가 있다 (3)죽은 사람의 혼을 저승으로 잡아간다는 귀신 (4)끈질기게 달라붙어서 남을 괴롭히는 사람. 그녀는 손님에게 ~같이 달라붙어 물건을 팔고 있다 (5)매우 곤란하고 어려운 일을 당한 처지. ~에 빠졌다 (6)두 손바닥을 마주대고 절함. □□배(7)갓 결혼한 남자 (13)오줌에서 나는 것과 같은 냄새 (14)물품의 무게나 길이, 용량에 따라 세금이나 이용 요금을 매기는 제도. 쓰레기 ~ (15)더 낫고 더 못함의 차이가 거의 없음. □상□ (16)권세는 삽 년을 가지 못함. 아무리 높은 권세라도 오래가지 못함. 권□□ (18)물 속에서 해엄자는 일. 그녀는 바닷가에서 나고 자라서 그런지 ~을 남달리 잘한다 (19)산도 아니고 들도 아닌 땅. □산□ (22)빨랫줄을 받치는 긴 통대나 막대기 (24)남을 빙정대며 놀림. 관람석에서는 심판의 결정에 항의하는 ~가 쏟아졌다 (25)어떤 직무나 임무에 힘씀. 선배는 군의관으로 ~ 중인 남동생이 휴가를 나오면 내게 소개시켜 준다고 했다

스도쿠



자료제공=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도쿠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① 워싱턴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가 \$150(선납)으로 2024년 7월 1일부터 조정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출 광고는 월 \$2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

워싱턴 중앙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 | | |
|---------------------------|--|--|
| 성명 (Name) | 영문(Eng) | 한글(Kor) |
| 주소 (Address) | | |
| 연락처 (Phone #) | Home Cell | |
| 구독료 (Subscription Fee) | 1년 선납 \$150 | 지불 방법: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Pay to the Order of: The Korea Daily |
| Card Info | 카드 종류: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번호: EXP. DATE: / month year | |
| 신청서 보내실 곳 |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wpk., #310, Annandale, VA 22003 | |
| 20 년 월 일 | 서명(sign): | |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 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 703-281-9660, 1
7023 Little River Twpk., #310, Annandale, VA 22003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광고문의
213-368-2525

사장님의 꿈:
최신형 기계 교체
+ 수수료 절약
+ 최고 서비스

LIBERTY BANKCARD
www.worldpay.com

30년
프로모션으로
리버트 링크카드와
월드페이가
사장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미전역
에이전트 구함

상답자 모집분야 책 증정 : International best sellers
브라이언 트레이너 & 사라류 박사 공저 Succeeding
In Business In Any Market E-book 증정,
이메일/선화상남 환경 info@meridianwish.com

- ▶ **최신형 기계 교체**
(WiFi · Wireless · Touch Screen 지원)
- ▶ **수수료 매출 \$50 ~ \$500 절약!**
- ▶ **세계 1위 회사 Worldpay**
+ 30년 경력 Liberty bank card 와 Worldpay NPC Vanity사로 전화 주세요

④ www.worldpay.com 424-332-3779

✉ Info@meridianwish.com 9465 Wilshire Blvd, Suite 300 Beverly Hills, CA 90212
WORLDPAY는 전세계 175 개국 2M 고객서비스, 연간 550억건 거래
Liberty Bankcard (MPS) is a registered independent Sales Organization of Worldpay ISO
and Ecommerce, LLC, a registered ISO of Fifth Third Bank, N.A., Cincinnati, OH, USA

법무사가 되세요

"라이센스를 받으시고 고소득을 평생 올리세요"

학교 웹사이트 interpacU.com에 들어서
한국어 Sample 강의를

들어보시고 법무사반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213)674-7000 (213)505-7703

총장 법학박사 하워드

법무사가 되세요

기타 지역

구인

중식쉐프 & 헬퍼

알리스카, 취업경험자유없는분

숙제제공(858)337-0982

가장 작은
광고로
가장 큰
민족을
얻을수 있는
광고
중앙일보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경우 한분만도 가능)
-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 집구매는 일시불로 자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매월 1회
9월
햇산삼
세일

5파운드 이상 구입시 홀세일 가격 판매
· 30년 1파운드 \$750 → \$550
· 40년 1파운드 \$1,500 → \$950
· 50년 1파운드 \$2,350 → \$1,500

Kim's Acupuncture Clinic (Dealer #90-447305)
3003 W. Olympic Bl. #201 LA, CA 90006
(213)800-3662 (213)407-4524

치질·출혈 수술 안하고 OK

항문풀림·변비·요실금 출혈
직장과 대장암 발병 예방효과
새끼 손가락 크기 항문삽입형, 사용기편합니다.

똥배·뱃살 요요없이 빠져요

기적의 티타늄벨트로
허리통증·냉증도 탈출

실제사례 www.miracletouchusa.com 검색

미라클 터치 (213)675-6877

20년된 한식점 일식당 급매

소자본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현대자동차 등 협력회사 많은 지역으로 트래픽이 많은 지역입니다.

몽골베리 알라바마지역 가 \$10만 (Nego 가능)

(334) 669-4474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e#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지긋 지긋한 통증과 중풍 치료로 기적을 경험!



“중풍과 통증을 치료하는 한방의 신비!”

중풍으로 마비됐던 멜휘노 고메즈(51) 씨는 LA 한인타운 성민 산삼 한방병원에서 두 달간 치료를 받고 놀랍게 회복했다. 2022년 12월 중풍 별도 이후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던 그는, 침과 뜸, 약물 등으로 이루어진 6단계 한방 치료 덕분에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

▶ 문의: (213) 503-3304

▶ 주소: 809 S. Hobart Blvd, LA

잠 못 이룰 정도로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중풍·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니다!

10여일 만에
빼아픈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에서
벗어난
실제 치료
사례

치료전

치료후

**성민산삼
한방병원** 명약 50% 특별할인가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깨끗하게 손질된 민물장어 판매 바로 구워드십시오

\$100 이상 무료 배송
장어판매할 식당 적극 환영

LW FISH MARKET

1249 Blalock Rd #201, Houston, TX 77055

문의 (832) 605-4890 • (281) 501-2623

어르신을 위한 연말연시 최적의 선물!!
건대추 판매 11월부터

**좋은 건대추를
농장에서
직주문 하세요!**

신선농원 714.833.4988 (Mrs. Han You) 2060 Darby St, San Bernardino, CA 92407

목은해 대추 : NO
쪄서 말린 대추 : NO
감미료 첨가 : NO
화학비료 사용 : NO
농약 사용 : NO
중국산 대추 : NO

숙성된 퇴비를
듬뿍 사용하여 재배한
양질의 대추를 100%
천연광으로 정성껏
건조시켜 맛과 영양 보존
상태가 최고인 고급 건강
햇 대추입니다.



* 210번 Freeway 이용하여 세일 편리함

(State St.에서 내리서 북쪽으로 2분거리)

농장문시 전화예약 필수

전화주문 714.833.4988 (Mrs. Han You)

건대추 미주 전지역 운송비 포함 가격

\$180
\$1
SOLD
• 1BOX

\$150
\$12/lb 대추
• 10LBS•1BOX

\$100
\$7/lb 대추
• 10LBS•1BOX

* \$12/lb 대추는 \$15/lb 대추보다 품질은 같으나 사이즈가 조금 작습니다.
Pay by Zelle or check. No credit card. 하와이 알라스카 추가요금

UMEKEN



혜택도 두 배, 기쁨도 두 배

더블 혜택으로 더욱 특별해진 우메켄 선물

▶ 12월 31일까지

우메켄 효소환 모델
강석우/나연신 부부올 연말 사랑하는 분들께 **우메Ken**을 선물하세요

10% 할인 + 무료 선물

\$980 이상
제품 구입시
할인+선물



100억
유산균
\$39

OR



씨(C)밸런스
\$25

\$1650 이상
제품 구입시
할인+선물



발효 미네랄
L칼슘
\$69

OR



건강 다시
타쿠미 2박스
\$56

할인혜택과 함께 **무료 선물**도 받으세요

SALE + 선물 증정

베타글루칸 세트

~~\$539~~ ▶ \$485

리포포 세트

~~\$439~~ ▶ \$395

효소환 세트

~~\$439~~ ▶ \$395

L&B 화장품 세트

~~\$399~~ ▶ \$359

L칼슘(\$69)
무료증정



타쿠미 2박스(\$56)
무료증정



건강을 담은 특별한 선물!

무엇을 선물할지 고민되시나요?

우메Ken 기프트카드로 건강을 선물하세요!

사랑하는 이들이 원하는 건강을 직접 선택할 수 있어

특별한 날, 진심을 담은 선물로 마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UMEKEN
Gift Card실속있는 연말선물 - **우메Ken 기프트 카드****888·941·3311 umeken.com**

* These statements have not been evaluated by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to diagnose, treat, cure or prevent any disease.